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52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5.11.

발행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인 김창보 · 최재필

홈페이지 www.seoulhealth.kr · www.scdc.or.kr

- 코로나19 국내 34명 추가 확진으로 총 10,874명, 서울시 신규 확진자 24명 발생으로 총 687명
-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54명(5.10.0시 기준), 무증상 30%로 지역사회 추가전파 차단 속도전
- 이태원 일대 클럽, 연휴기간 방문인원 5517명, 용산구 전수조사 중이나 2000여명 연락불통
- 박원순 시장,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표...위반 시 엄중 처벌
- 해외 유럽·미주 신규확진자 꾸준 증가, 중동·아프리카 입국자 확진 늘어...“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진단검사”
- 문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도 도입 등 보건역량 강화 조직개편
- 코로나19,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 본격 가동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해외공유 사이트 오픈...방문 2백만 뷰 돌파, 해외 요청 지속
- 서울시, 제2회 추경을 통해...총 2조 8,329억 원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1일 확진자 100명 넘으면 병상 공동활용
- 정부 등교 연기, 2~3일간 역학조사·현장의견 보고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

1.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⁴⁾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¹⁾	687	2	541	124,530	5,957	118,573	60,498	10,332	50,166
전 국 ²⁾	10,874	256	9,610	653,012	10,128	642,884	-	-	-
전세계 ³⁾	4,025,140	279,329	1,376,002	-	-	-	-	-	-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5.11. 0시 기준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5.10. 00시 기준

3) 전 세계의 경우,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20.05.10. 15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환자 24명(5.9.확진자 5명, 5.10. 확진자 19명), 누적 확진환자는 총 687명
 - 입원(격리)환자 138명, 격리해제 547명 /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 확진환자 수는 663명(미발표 24명)
 - 5월 10일 00시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는 총 256명으로 치명률은 2.35%이며, 서울시 사망자 2명

● 서울시 확진자 환자구성 (2020.5.11. 0시 기준)

※ 확진일자는 서울시 기준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확진일자	계	이태원 클럽관련	해외 여행력 (외국인 포함)	확진자와의 접촉력		조사중	통계 미포함 (인천검역소)
				해외 여행자	기타 확진자		
5월 10일(일)	19	19	-	-	-	-	-
5월 9일(토)	18	16	2	-	-	-	-
5월 8일(금)	13	13	-	-	-	-	-
5월 7일(목)	0	-	-	-	-	-	-
5월 6일(수)	0	-	-	-	-	-	-
5월 5일(화)	0	-	-	-	-	-	-
5월 4일(월)	0	-	-	-	-	-	-
5월 3일(일)	0	-	-	-	-	-	-
5월 2일(토)	2	-	2	-	-	-	-
5월 1일(금)	1	-	1	-	-	-	-
4월 30일(목)	1	-	1	-	-	-	-
4월 29일(수)	0	-	-	-	-	-	-
4월 28일(화)	0	-	-	-	-	-	-
4월 27일(월)	4	-	4	-	-	-	-
4월 26일(일)	0	-	-	-	-	-	-
4월 25일(토)	0	-	-	-	-	-	-
4월 24일(금)	1	-	1	-	-	-	-

● 서울시 주요 발생 원인별 현황 (2020.5.11. 0시 기준)

(단위: 명)

소계	해외접촉 관련	구로구 콜센터 관련	구로구 교회 관련	동대문구 관련 (교회,PC방)	동대문구 관련 (요양보호사)	은평성모병원 관련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종로구 관련	대구 방문	인천지 관련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이태원 클럽 관련	기타
687	260	98	41	20	8	14	13	10	11	3	28	48	133

※ 역학조사서서 기반 1차 분류된 것으로,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산발 사례 또는 조사 중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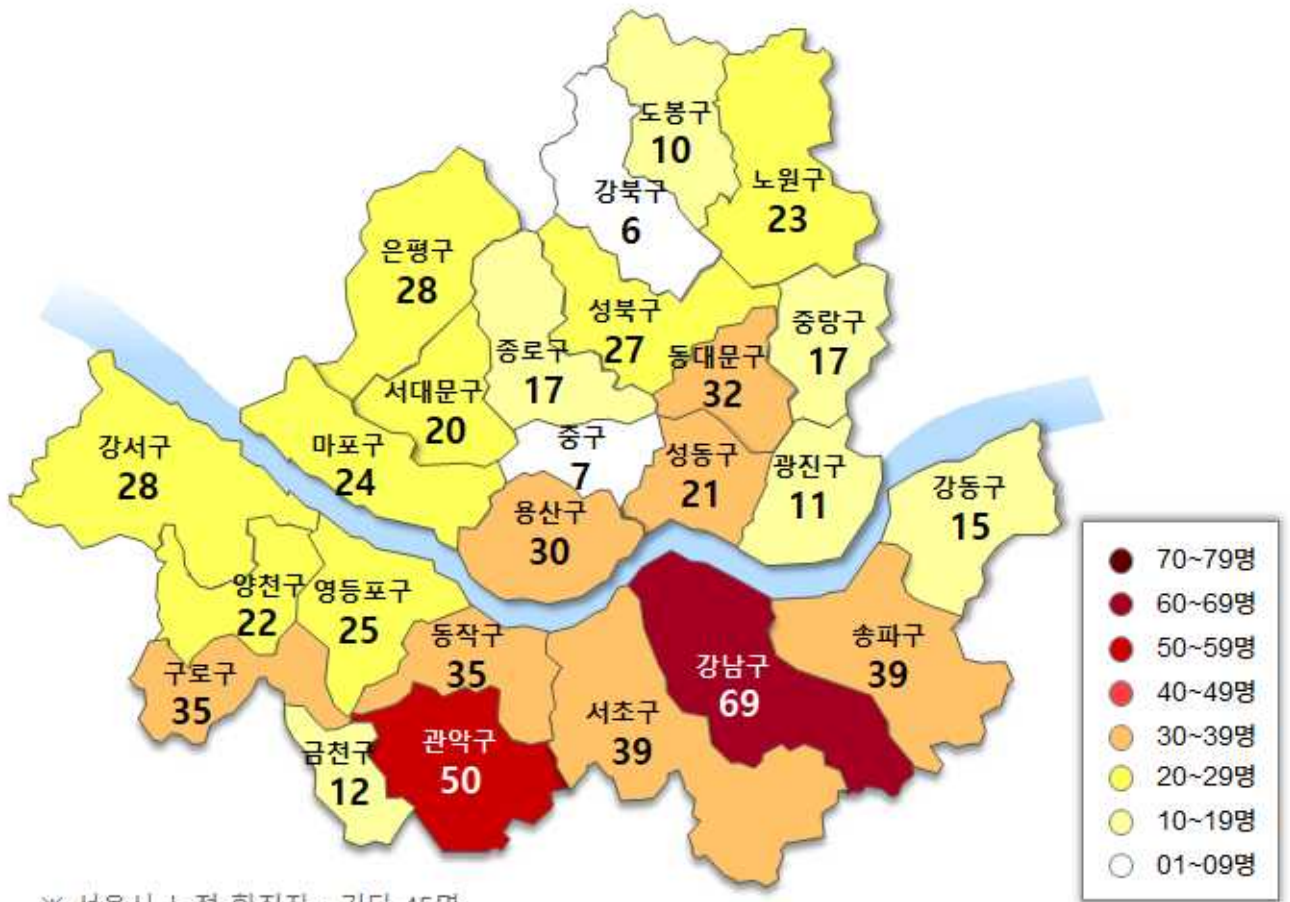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5월 11일 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총 687명임 (거주지 기준으로 강남69, 관악50, 서초39, 송파39, 구로35, 동작35, 동대문32, 용산30, 은평28, 강서28, 성북27, 영등포25, 마포24, 노원23, 양천22, 성동21, 서대문20, 종로17, 중랑17, 강동15, 금천12, 광진11, 도봉10, 중구7, 강북6, 기타45(타시도 이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계
누계	17	7	30	21	11	32	17	27	6	10	23	28	20	24	22	28	35	12	25	35	50	39	69	39	15	45	687
5/10			3	1	1	1		1	1						1					2	3		4	1			19
5/9			4				1	2		1			1			2				1	1	1	1	1			18
5/8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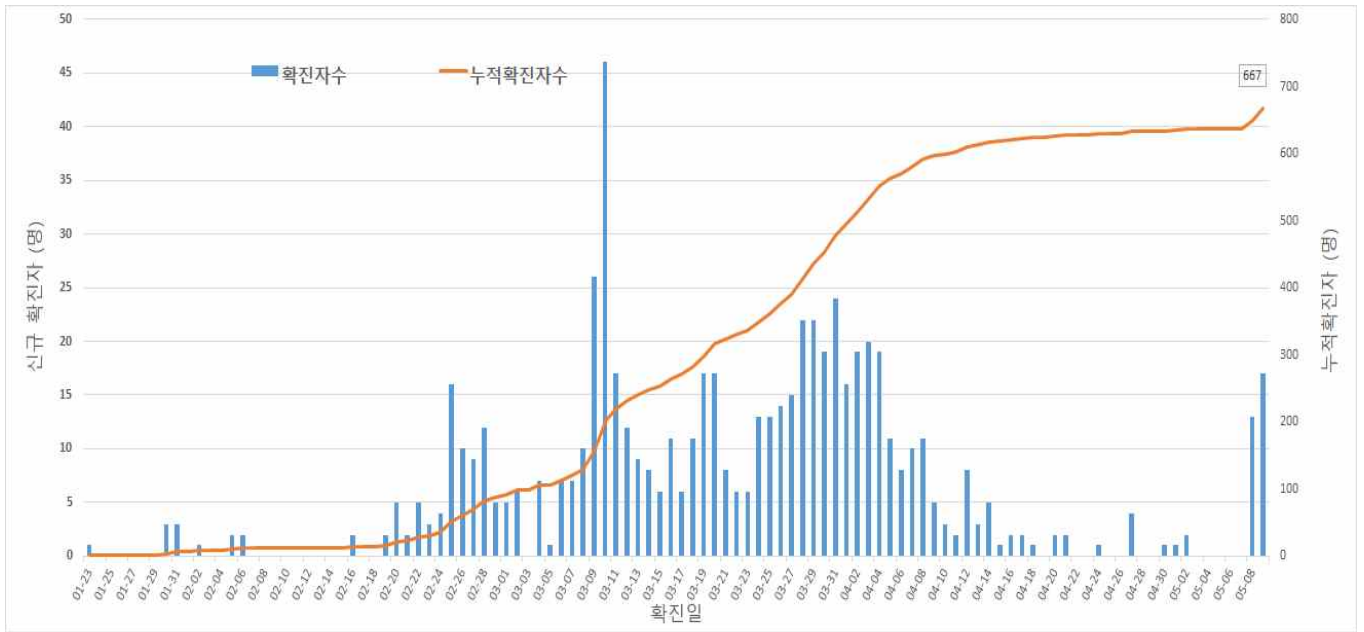
※ 서울시 누적 확진자 : 기타 45명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발생 현황(5.9. 18시 기준)

○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일별 발생 추이 및 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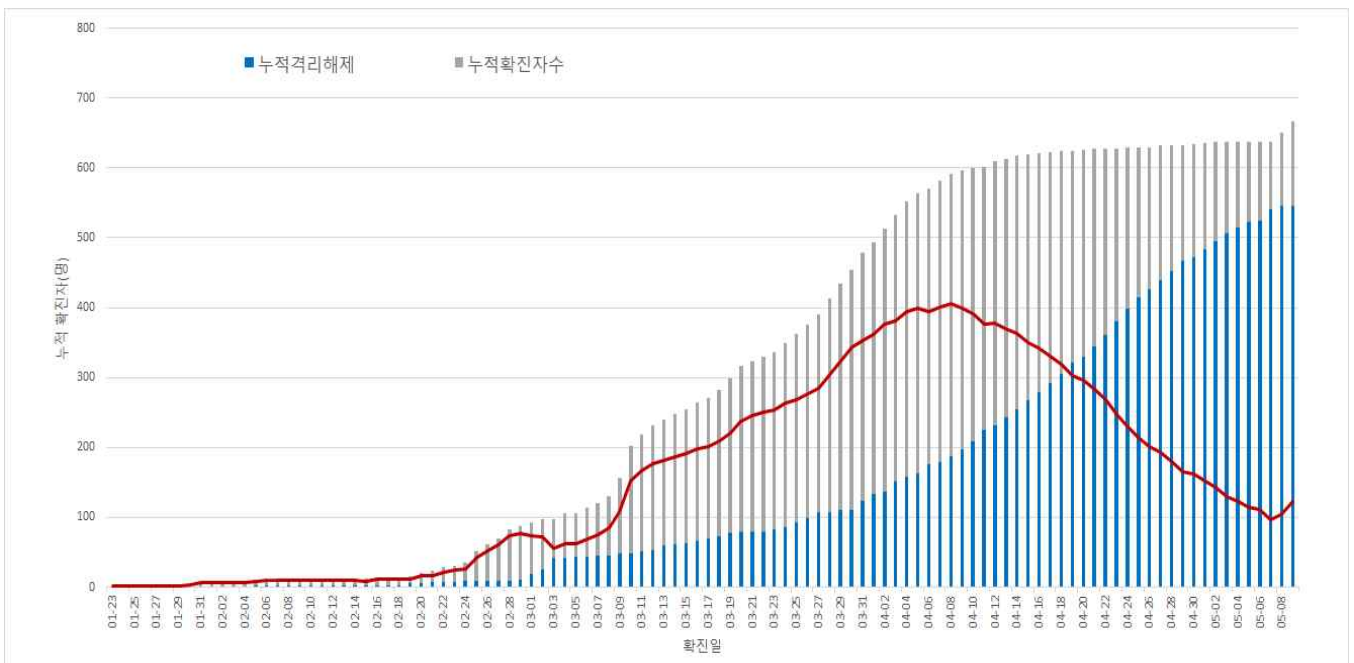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누적환자 총 667명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별 발생추이 및 누적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서울시 코로나19 누적격리중 및 격리해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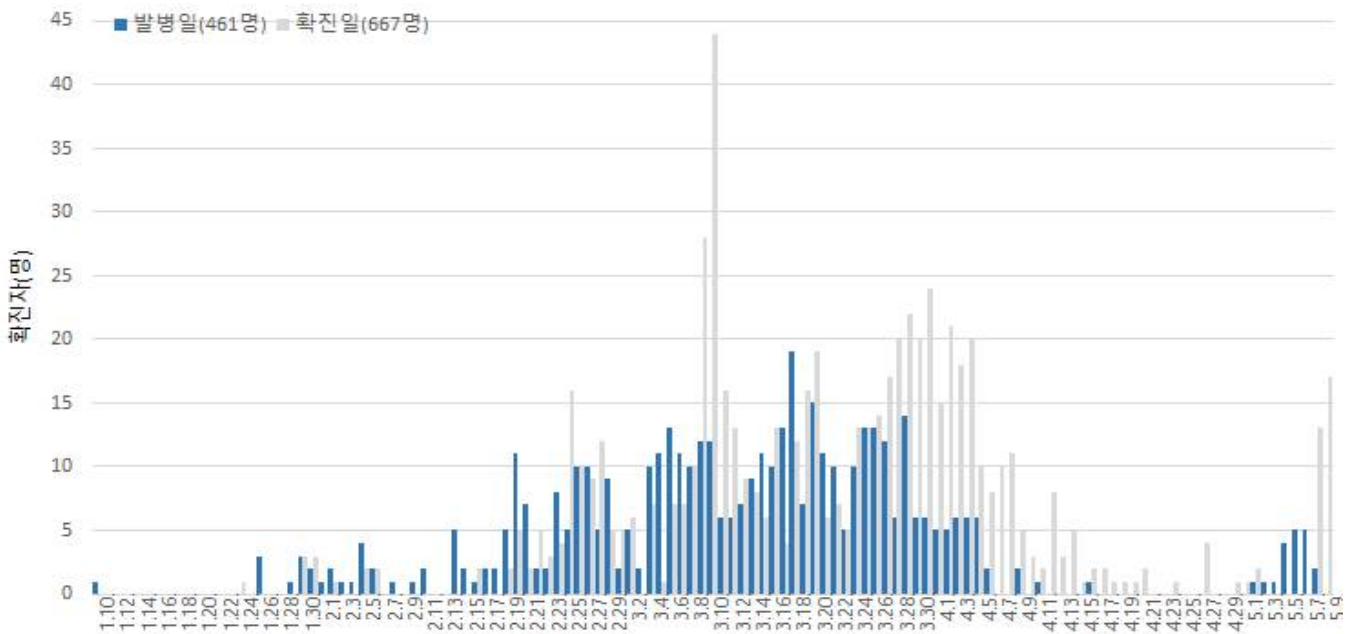
- 총 확진자 667명 중 격리해제 545명(82%)로 4.8일(410명) 이후 격리중인 환자 감소세(현재 122명)
- 격리해제 545명 : 퇴원자 540명, 사망 2명, 재입원 3명



서울시 코로나19 누적격리중 및 격리해제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확진자 증상발생일 및 확진일 기준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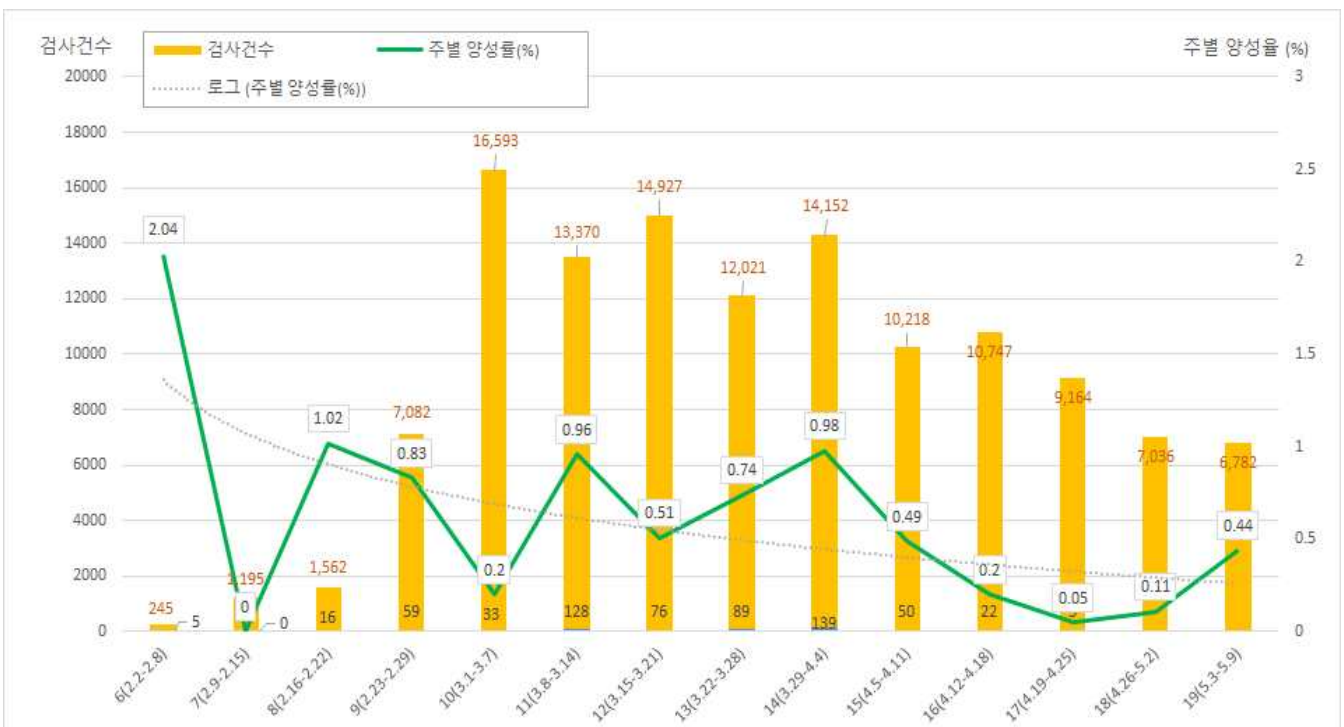
- 분석대상 발병일과 확진일이 모두 확인된 461명 (무증상, 증상발생일 알 수 없음 등 206명 제외)



서울시 코로나19 일별 분포 현황

○ 주별 검사건수 및 확진환자 양성률

- 총 검사건수 123,889건(금주 6,782건) 중 667명 확진 (검사 대비 양성률 0.53%)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주별 검사현황 및 양성률

□ 인적 특성별 발생현황(5.9. 18시 기준)

- (성별) 여성이 51.4%로 남성보다 많음
- (연령별) 확진자의 평균 연령은 39.5세(중위연령 37세, 범위 0-91세)로 20-50대가 80.8%이며, 사망 2명(44세 남성, 91세 남성)임
 - 치명률은 전체 0.3%이고,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6.3%임

서울시 성별, 연령별 확진환자 퇴원, 입원, 사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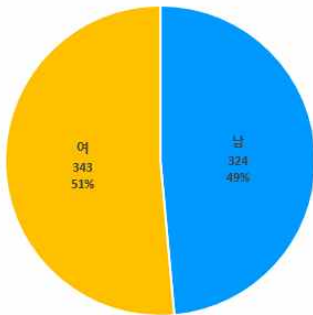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확진자 (%)	퇴원자 (%)	퇴원자 평균 입원일(일)	사망자	치명률(%)
계	667 (100.0)	545 (81.7)	25.3	2	0.3
성별	남성 324 (48.6)	262 (80.9)	25.8	2	0.6
	여성 343 (51.4)	283 (82.5)	24.8	0	0
연령	0-9 9 (1.3)	8 (88.9)	18.8	0	0
	10-19 31 (4.6)	26 (83.9)	26.7	0	0
	20-29 212 (31.8)	156 (73.6)	24.1	0	0
	30-39 113 (16.9)	97 (85.8)	24.8	0	0
	40-49 100 (15.0)	87 (87.0)	25.7	1	1
	50-59 114 (17.1)	100 (87.7)	27.0	0	0
	60-69 46 (6.9)	38 (82.6)	28.8	0	0
	70-79 26 (3.9)	21 (80.8)	23.0	0	0
	80이상 16 (2.4)	12 (75.0)	21.2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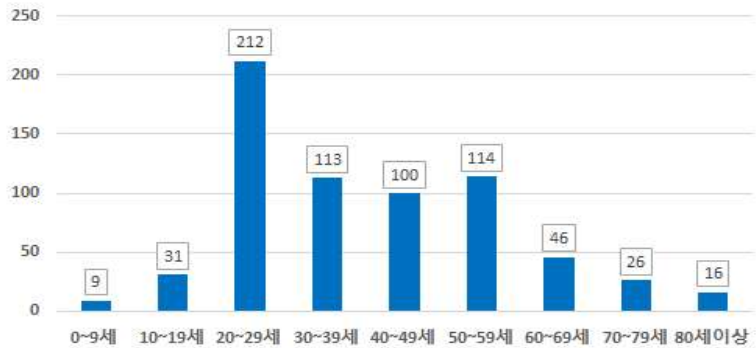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평균 입원일수(전체)= (퇴원자, 비퇴원자 입원일의 합계)/(전체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분포 현황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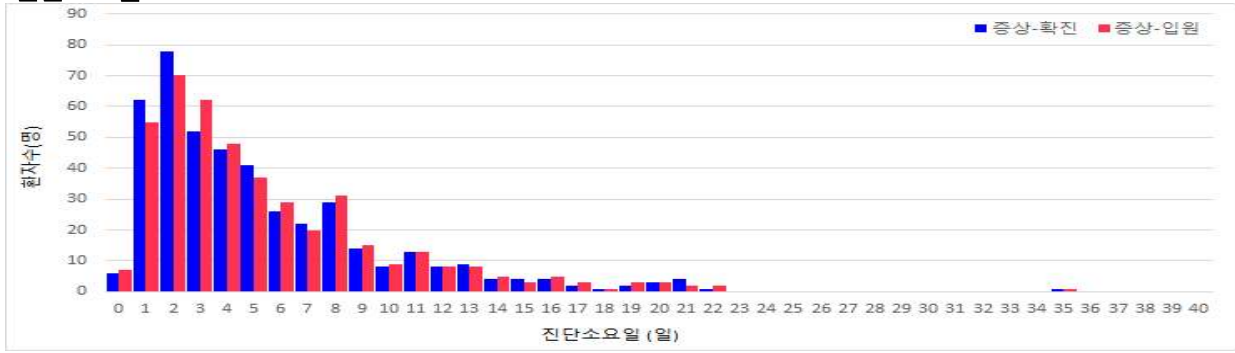
연령별

○ 연령별 확진자 치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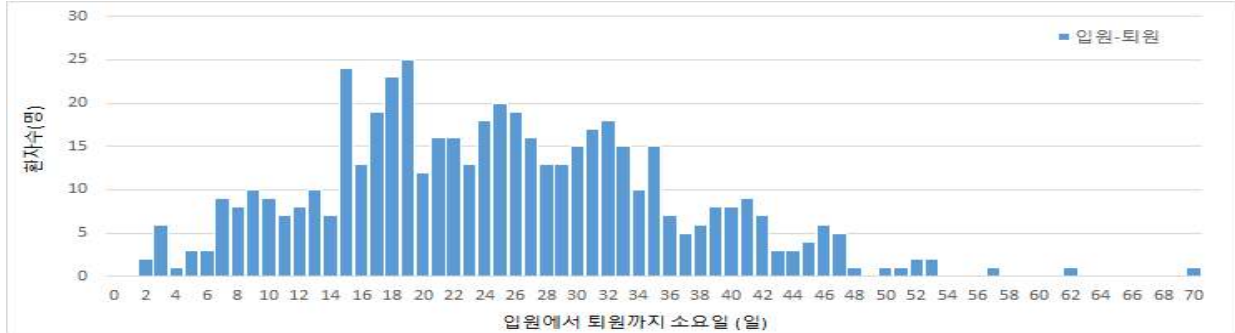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확진자 치료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진단소요일



서울시 코로나19 진단소요일

○ 입원-퇴원까지 소요일



서울시 코로나19 입원-퇴원까지 소요일

□ 자치구별 발생현황(신고 구 기준)(5.9. 18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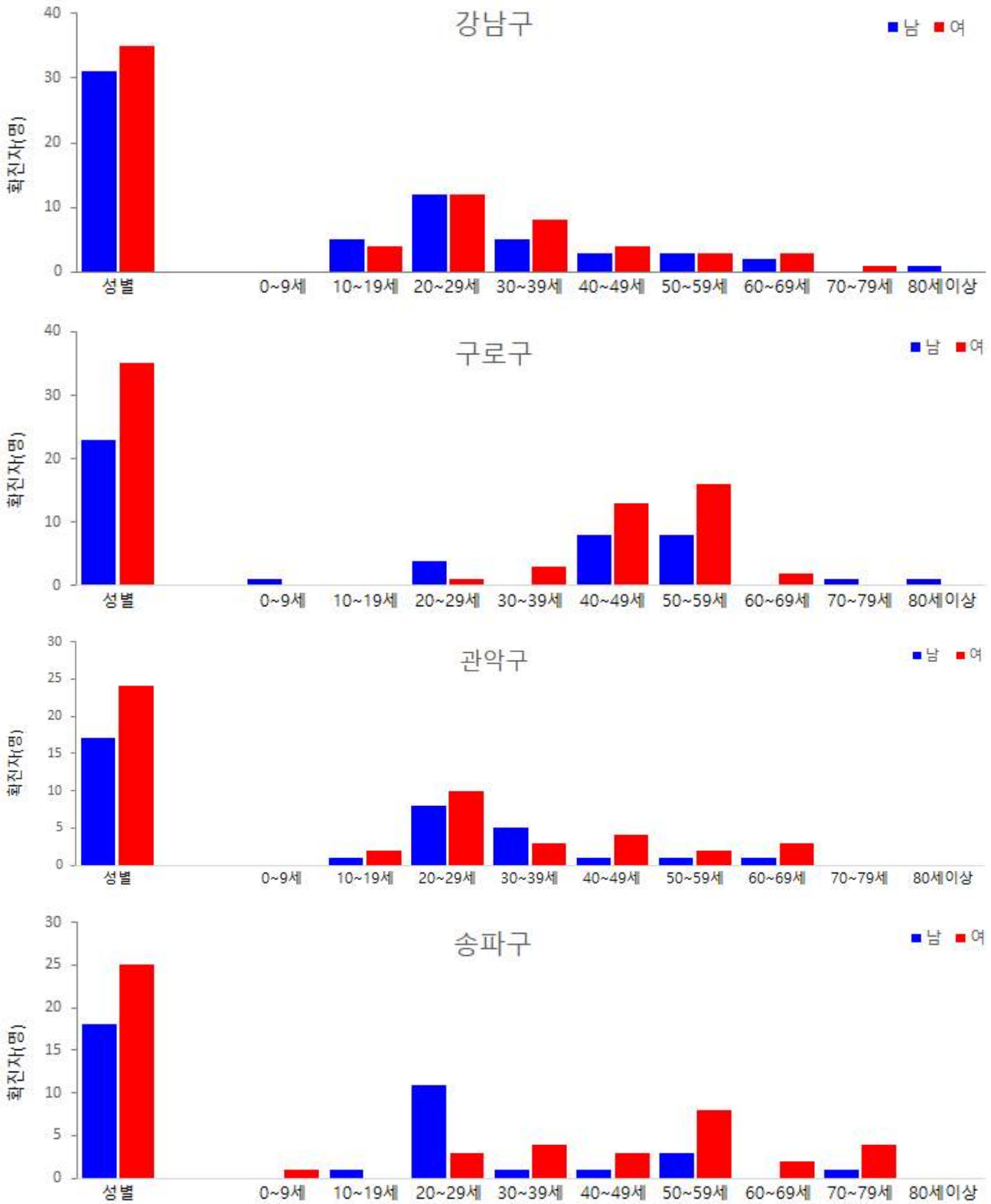
- 강남구 발생이 10.4%(66명)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구 9.1%(58명), 관악구 6.8%(43명), 송파구 6.4%(41명) 순이었음
- 10만명당 발생률은 중구가 1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구 14.3%, 종로구 13.9%, 용산구 13.1%, 강남구 12.2% 순이었음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누계		증가현황	발생률 (10만명당)
	(명)	(%)		
서울특별시	667	100	▲(+30)	6.9
중구	20	3.1	▲(+1)	15.9
구로구	58	9.1	-	14.3
종로구	21	3.3	▲(+1)	13.9
용산구	30	4.7	▲(+9)	13.1
강남구	66	10.4	▲(+1)	12.2
동대문구	34	5.3	-	9.8
동작구	37	5.8	▲(+1)	9.4
서초구	37	5.8	▲(+1)	8.6
서대문구	26	4.1	▲(+1)	8.3
관악구	43	6.8	▲(+4)	8.6
성동구	22	3.5	▲(+1)	7.4
은평구	31	4.9	-	6.5
영등포구	24	3.8	▲(+1)	6.5
송파구	41	6.4	▲(+1)	6.1
마포구	21	3.3	-	5.6
성북구	21	3.3	▲(+2)	4.8
양천구	21	3.3	▲(+1)	4.6
종랑구	18	2.8	-	4.6
노원구	22	3.5	-	4.2
강서구	25	3.9	▲(+1)	4.3
금천구	9	1.4	-	3.9
광진구	12	1.9	▲(+2)	3.4
도봉구	10	1.6	▲(+1)	3.0
강동구	13	2.0	▲(+1)	2.9
강북구	5	0.8	-	1.6

○ 다빈도 발생 자치구 성별/연령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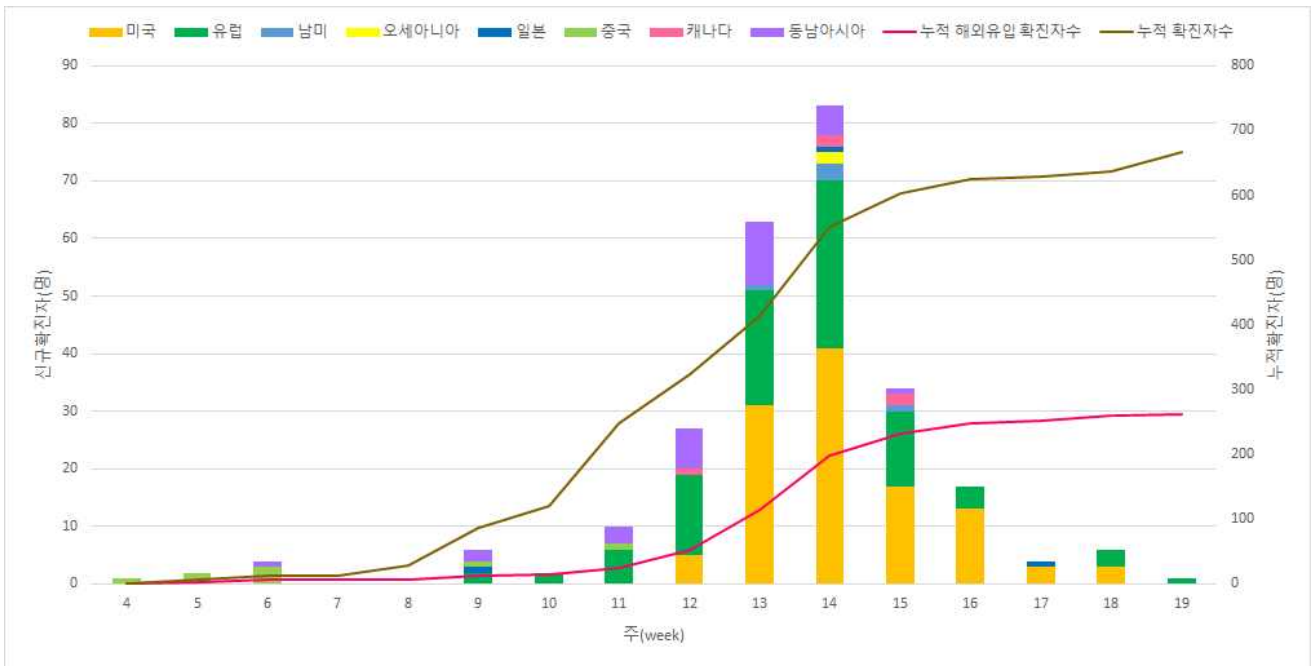
□ 국외 유입 현황(5.9. 18시 기준)

- 국외유입 사례 추정되는 누적 확진자 수는 261명임
- 주요 국외유입 국가는 미국 43.0%, 유럽 35.7%, 동남아시아 11.4% 순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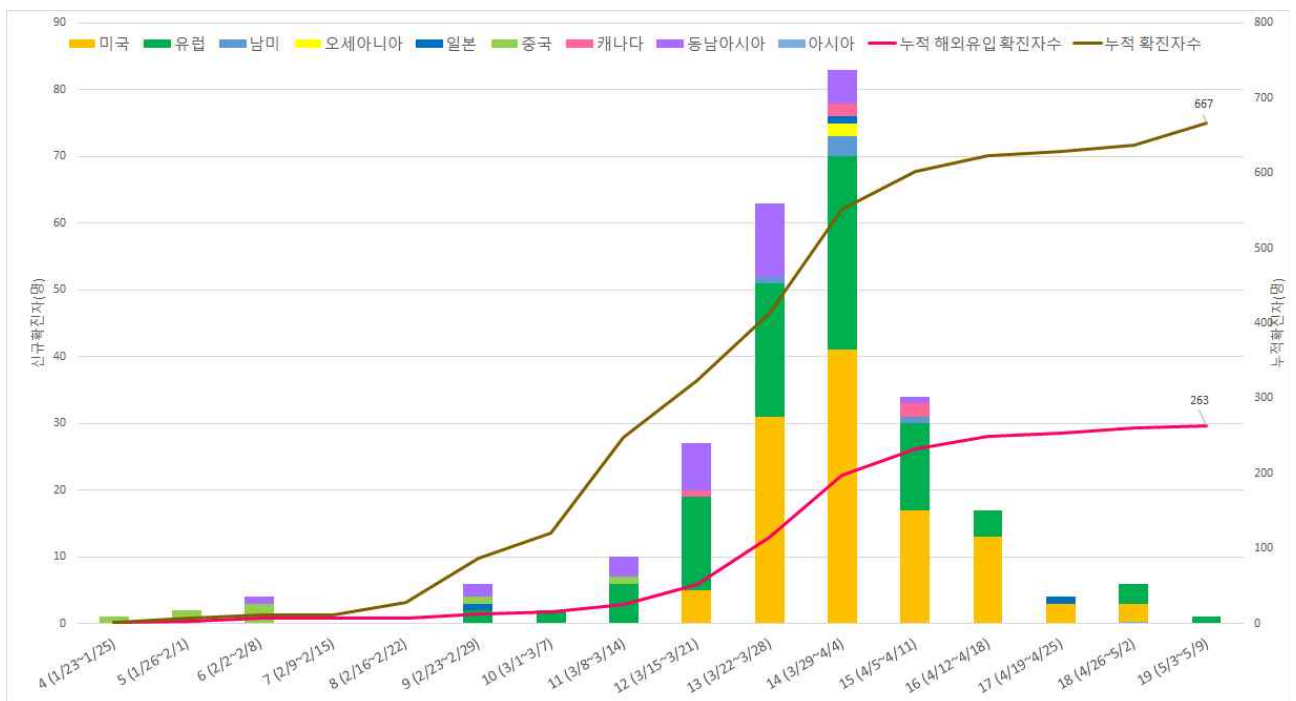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필리핀)	합계
누계	113	93	30	8	3	5	5	2	2	261
증가현황	-	-	-	-	-	-	-	-	-	-
백분율(%)	43.0	35.7	11.4	3.0	1.1	1.9	1.9	0.8	0.8	100.0



서울시 코로나19 신규·누적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연령별 해외유입 현황 분포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접촉자 관리 현황(5.9. 18시 기준)

○ 서울시 관리 누적 접촉자는 17,158명으로, 그중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0.9%(158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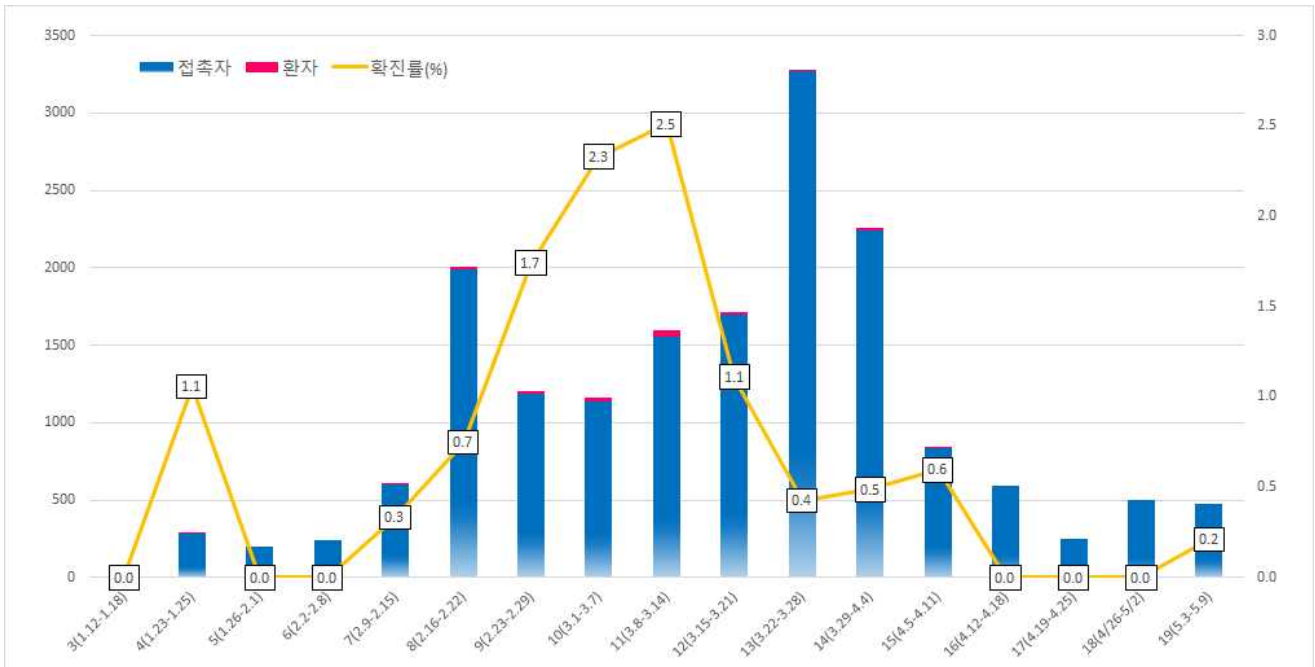
서울시 성별, 연령별 코로나19 접촉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성별		연령(세)										확인불가
		남	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누계	17,158	8,884	8,274	385	976	6,153	3,136	2,201	2,023	1,243	655	236	150	
(%)	(100.0)	(51.8)	(48.2)	(2.2)	(5.7)	(35.9)	(18.3)	(12.8)	(11.8)	(7.2)	(3.8)	(1.4)	(0.9)	
확진자	158	78	80	7	9	34	16	24	46	13	6	3	-	
(%)	(100.0)	(49.4)	(50.6)	(4.4)	(5.7)	(21.5)	(10.1)	(15.2)	(29.1)	(8.2)	(3.8)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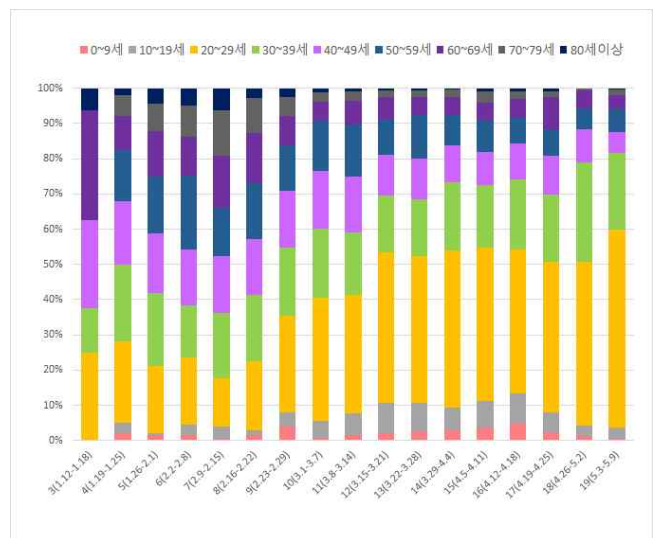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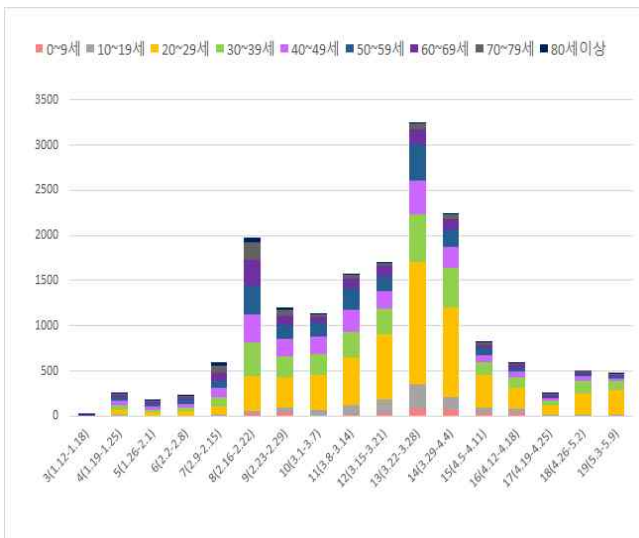
※ 접촉자 중 확진자수(명, %)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등록된 접촉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주별 접촉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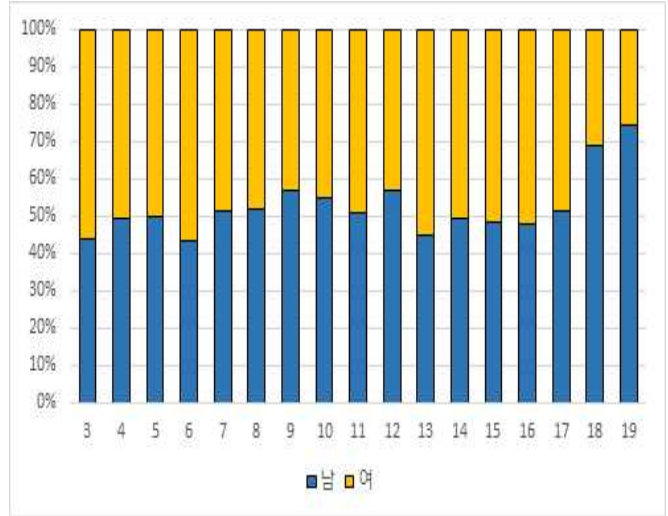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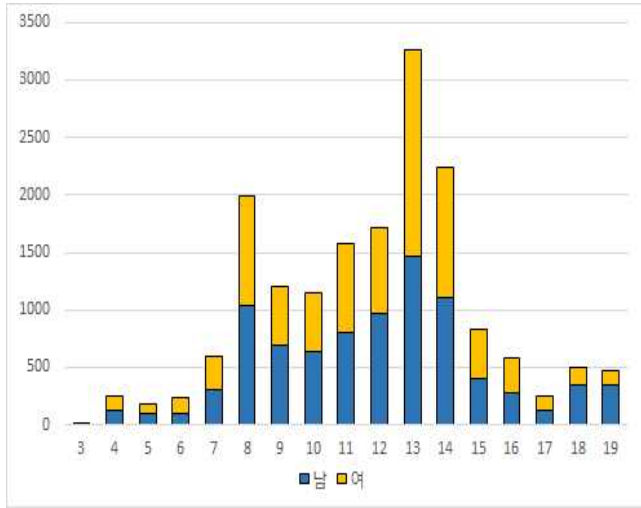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주별 접촉자 현황 및 확진율 (명, %, 최종접촉일 기준)

○ 연령별 접촉자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분포(명, %, 최종접촉일 기준)

○ 성별 접촉자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성별 분포(명, %, 최종접촉일 기준)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5.10.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차량 이동식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84	39	35	4	44	5	6	8	25	1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5.10.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현황		세부현황		
설치 (A+B+C)	검체채취 가능 (A+B)	보건소 내 (A)	보건소 외 (B)	상담소 (C)
39	36	35*	1	3

*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10개구(중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은평·양천·금천·강남·강동구)

(보건소 내 1개소 운영) 15개구(종로·용산·광진·도봉·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서초·송파구)

※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 1개소: 구로구 가리봉동

※ 상담소 3개소 :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자양보건지소)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5.10.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 건)

날 짜	진 료		검 체		X-ray	
	계	누 계	계	누 계	계	누 계
5. 8.(금)	2,034	122,214	1,907	93,555	2	1,222
5. 7.(목)	1,186	120,180	1,047	91,618	0	1,220
5. 6.(수)	1,094	118,994	1,009	90,571	0	1,220
5. 5.(화)	659	117,900	629	89,562	0	1,220
5. 4.(월)	1,123	117,241	995	88,933	1	1,220
5. 3.(일)	858	116,118	834	87,938	0	1,219
5. 2.(토)	1,095	115,260	1,064	87,104	0	1,219
전일대비 증감	848	2,034	860	1,937	2	2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5.10.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5.7.(목)	누계	57.(목)	누계	
계	928	106,134	918	66,724	
국가지정	67	15,057	61	7,659	
지역거점	150	17,065	150	13,629	
국공립병원	66	7,035	62	5,901	
민간병원	663	68,496	659	40,957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5.10.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5.9.(토)			누계			비고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계	0	0	-	6,841	5,452	6	
이대서울병원	0	0	-	1,889	1,880	3	3.3. 개소
구 소방학교	-	-	-	1,550	1,146	2	운영중단
은평병원	-	-	-	896	782	0	
잠실주경기장	-	-	-	2,506	1,644	1	

※ 은평병원, 잠실주경기장 4.27.(월)부터 운영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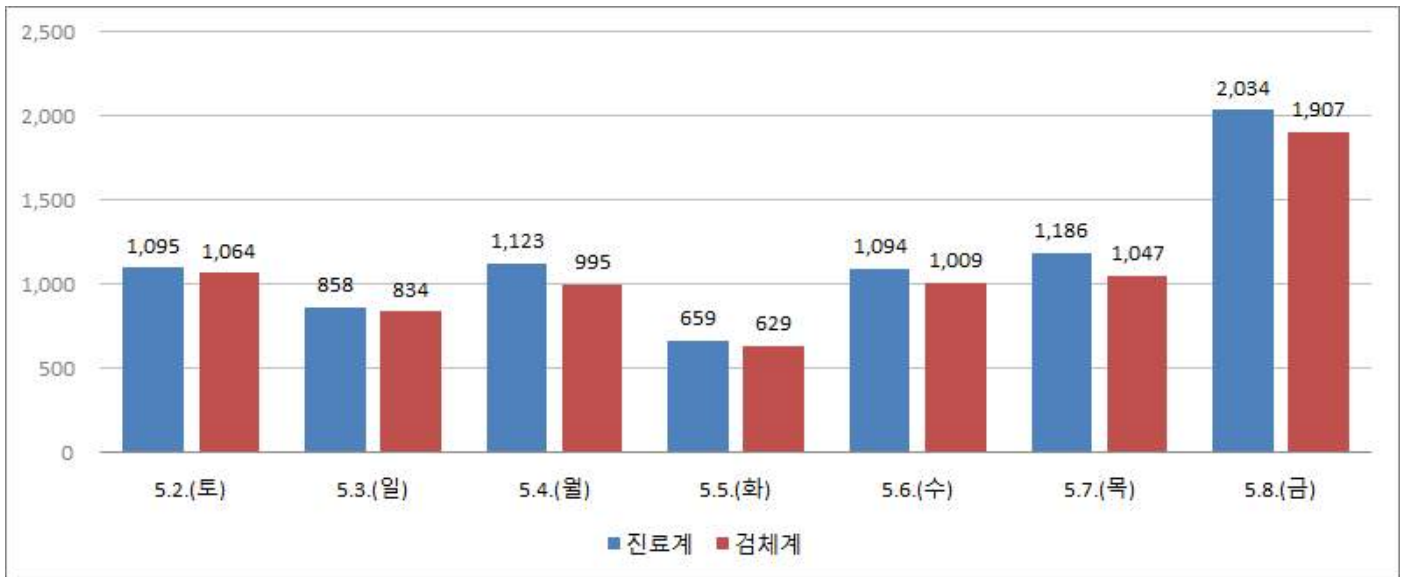
※ 구 소방학교 5.8.(금)부터 운영 중단

- 해외입국자 검사(4.3.~5.7.) : 누적 98명 / 5.7.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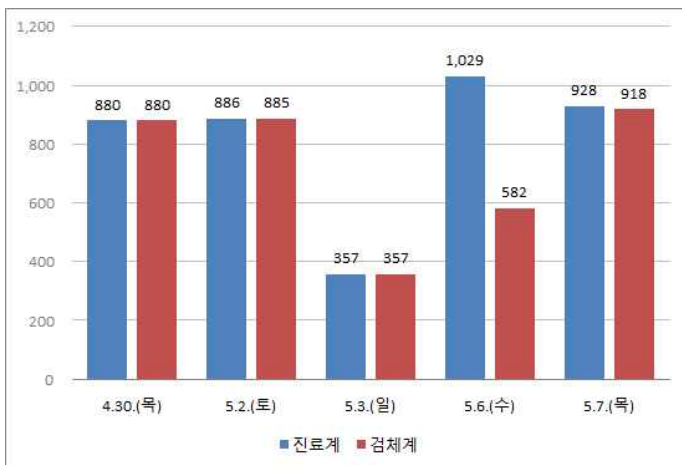
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98	1	2	2	1	2	1	1	1	2	1	18	17	49
서초(26)		2							2	1	13	7	1
송파(72)	1		2	1	2	1	1	1			5	10	48

● 일자별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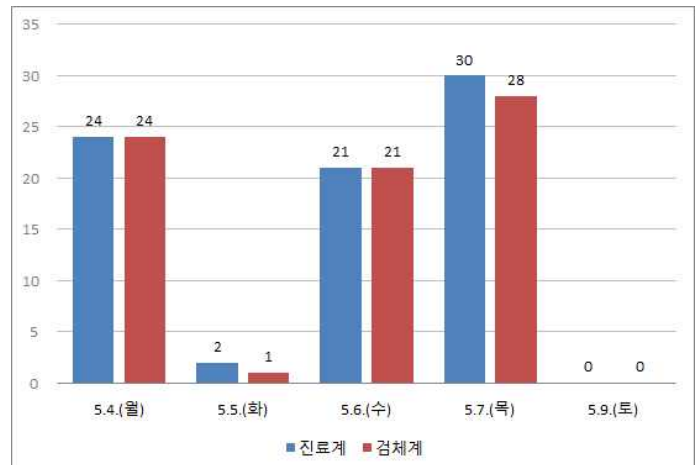
(단위: 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10,874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34명 추가)이며, 이 중 격리해제는 9,610명(전일 대비 42명 증가)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함
- 사망자는 256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0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2.35%로 확인됨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5.10.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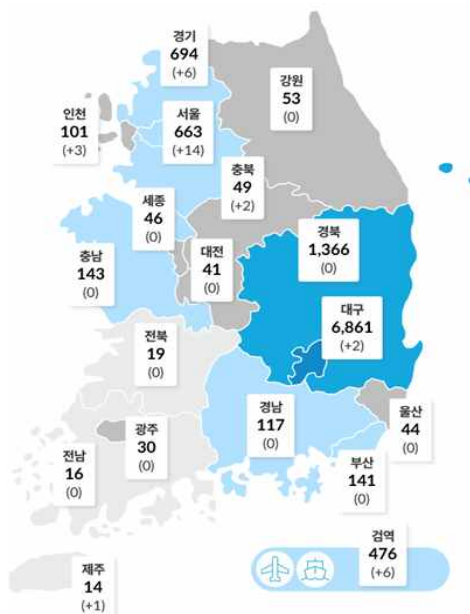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5.9.(토) 0시 기준	660,030	10,840	9,568	1,016	256	649,190	9,153	640,037
5.10.(일) 0시 기준	663,886	10,874	9,610	1,008	256	653,012	10,128	642,884
증감	3,856 (0.6%)	34 (0.3%)	42 (0.4%)	△8 (△0.8%)	0 (0.0%)	3,822 (0.6%)	975 (10.7%)	2,847 (0.4%)

- 새롭게 확진된 환자 34명의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1,008	120	13	365	21	-	2	5	1	122	10	7	10	5	4	93	9	1	220
격리 해제	9,610	541	125	6,318	80	30	38	38	45	556	41	42	133	14	12	1,220	108	13	256
사망	256	2	3	178	-	-	1	1	-	16	2	-	-	-	-	53	-	-	-
합계	10,874	663	141	6,861	101	30	41	44	46	694	53	49	143	19	16	1,366	117	14	476
증감	34	14	-	2	3	-	-	-	-	6	-	2	-	-	-	-	-	1	6
해외 유입	8	2	-	-	-	-	-	-	-	-	-	-	-	-	-	-	-	-	6
지역 발생	26	12	-	2	3	-	-	-	-	6	-	2	-	-	-	-	-	1	-

* 5월 9일 0시부터 5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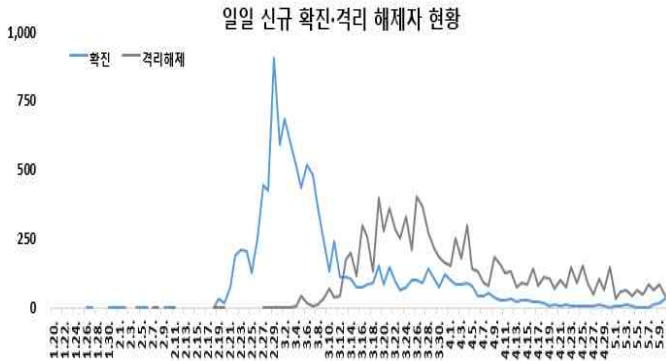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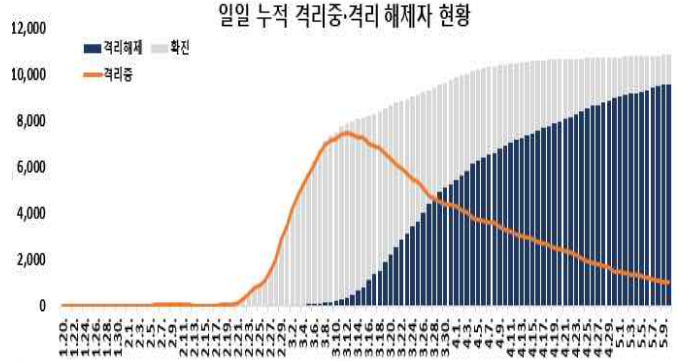
연령별 재양성자 현황

구분	계	(%)
계	382	(100.0)
80세 이상	31	(8.1)
70-79세	25	(6.5)
60-69세	40	(10.5)
50-59세	66	(17.3)
40-49세	51	(13.4)
30-39세	50	(13.1)
20-29세	91	(23.8)
10-19세	20	(5.2)
0-9세	8	(2.1)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5.10. 00:00 기준)



일일 신규 확진·격리 해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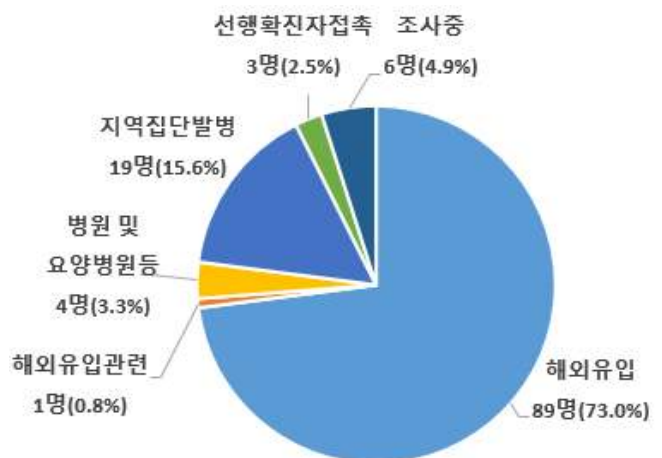
일일 누적 격리중·격리 해제자 현황

-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10,874명(전일 0시 기준 34명 추가)으로 보고되었고 이 중 9,610명이 격리해제 되어, 격리해제 환자 수는 증가하고,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임
(격리 중 : 5.8. 1,082명 → 5.9. 1,016명 → 5.10. 1,008명 / 격리해제 : 5.8. 9,484명 → 5.9. 9,568명 → 5.10. 9,610명)
- * 금일 신규 확진자 34명 중 검역과정에서 6명(17.6%)이 발생하였고, 서울 14명, 경기 6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7.6%를 차지함
- * 금일 신규 확진자 34명 중 지역사회 발생이 26명(76.5%)이며, 이 중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환자가 24명(70.6%), 대구 지역 개별 사례 2명임
 - 5.10. 12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54명이며, 관련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임
 - (지역별)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이태원 클럽 직접방문 관련 43명, 가족·지인·동료 등 기타 접촉자 11명
- * 또한, 신규 확진자 34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8건(23.5%)으로 유럽 등에서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프리카 3명, 미주 2명, 중국 외 아시아 2명, 유럽 1명 / 내국인 7명, 외국인 1명 / 검역 6명, 지역사회 2명
- * 누적 확진자 10,874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1,127명(10.4%)으로 확인됨
 - 미주 485명, 유럽 462명, 중국 외 아시아 154명, 중국 19명, 아프리카 6명, 호주 1명 / 내국인 1,018명, 외국인 109명 / 검역 476명, 지역사회 651명

-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2020.5.10. 00:00 기준)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감염경로 구분	신규환자	(%)
계	122	(100.0)
해외유입	89	(73.0)
해외유입 관련	1	(0.8)
병원 및 요양병원 등	4	(3.3)
지역집단발병	19	(15.6)
선행 확진자 접촉	3	(2.5)
조사중	6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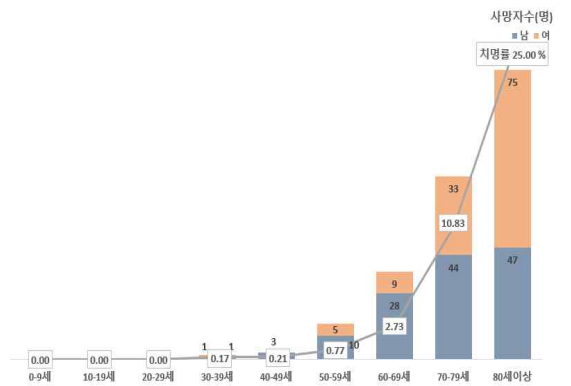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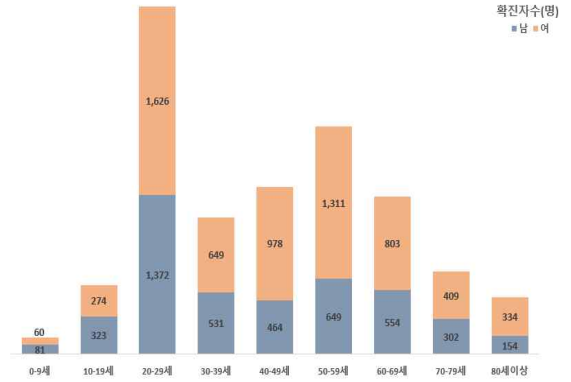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분포

- * 4월 25일 0시부터 5월 9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현황
- *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환자 122명 중 해외유입이 89명(73.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지역집단감염이 19명으로 15.6%의 비율을 차지함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5.10.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0,874	(100.0)	256	(100.0)	2.35	
성별	남성	4,430	(40.74)	133	(51.95)	3.00
	여성	6,444	(59.26)	123	(48.05)	1.91
연령	80세 이상	488	(4.49)	122	(47.66)	25.00
	70-79	711	(6.54)	77	(30.08)	10.83
	60-69	1,357	(12.48)	37	(14.45)	2.73
	50-59	1,960	(18.02)	15	(5.86)	0.77
	40-49	1,442	(13.26)	3	(1.17)	0.21
	30-39	1,180	(10.85)	2	(0.78)	0.17
	20-29	2,998	(27.57)	0	(0.00)	-
	10-19	597	(5.49)	0	(0.00)	-
	0-9	141	(1.30)	0	(0.00)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국내 확진자는 10,874명, 사망자는 256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2.35%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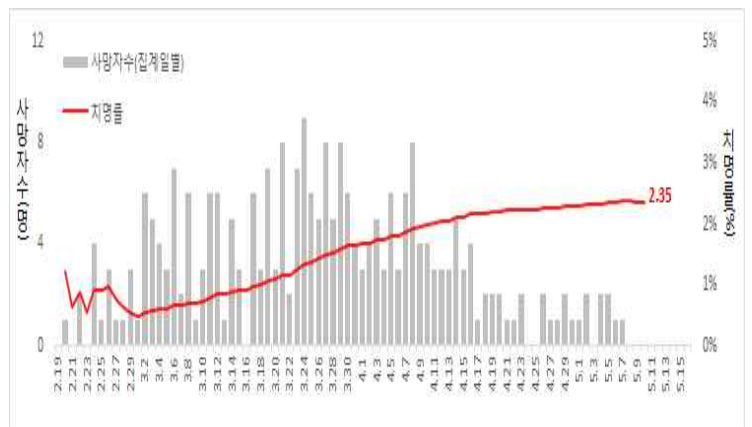
-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6,444명(59.26%)으로 남성 4,430명(40.74%)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133명(51.95%)으로 여성 123명(48.05%)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4,430명의 확진자 중 133명이 숨진 남성에서 3.00%로 여성 1.91%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연령별 분포 현황

-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2,998명(27.5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960명(18.02%), 40대 1,442명(13.26%), 60대 1,357명(12.48%) 순으로 나타남
-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36명(92.19%)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488명의 확진자 중 122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25.00%, 70대가 10.83%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위중·중증환자 현황

구분	계	중증 (%)	위중 (%)
계	23	5 (100.0)	18 (100.0)
80세 이상	9	2 (40.0)	7 (38.9)
70-79세	8	1 (20.0)	7 (38.9)
60-69세	3	1 (20.0)	2 (11.1)
50-59세	1	1 (20.0)	0 (0.0)
40-49세	2	0 (0.0)	2 (11.1)
30-39세	0	0 (0.0)	0 (0.0)
20-29세	0	0 (0.0)	0 (0.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일별 사망자 현황

● 국외 발생 현황

- 5.10.까지 보고된 국외 총 확진자수는 **3,959,364명으로** 5.3. 대비 **17.7% 증가(595,479명 신규환자)**
- 이 중 **277,845명(35,552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7.02%(5.3. 7.2%)**로 확인됨

국가 및 지역	확진자수(%)		사망자수(%)		치명률(%)	증가율(%) *5.3. 대비
아시아	469,954	11.87%	11,915	4.29%	2.54%	36.18%
중동	237,700	6.00%	8,688	3.13%	3.66%	21.58%
아메리카	1,727,309	43.63%	102,611	36.93%	5.94%	21.44%
유럽	1,471,906	37.18%	153,366	55.20%	10.42%	8.08%
오세아니아	8,082	0.20%	118	0.04%	1.46%	1.96%
아프리카	37,176	0.94%	933	0.34%	2.51%	47.66%
기타*(섬, 영토 등)	7,237	0.18%	214	0.08%	2.96%	19.90%
전세계	3,959,364	100.0%	277,845	100.0%	7.02%	1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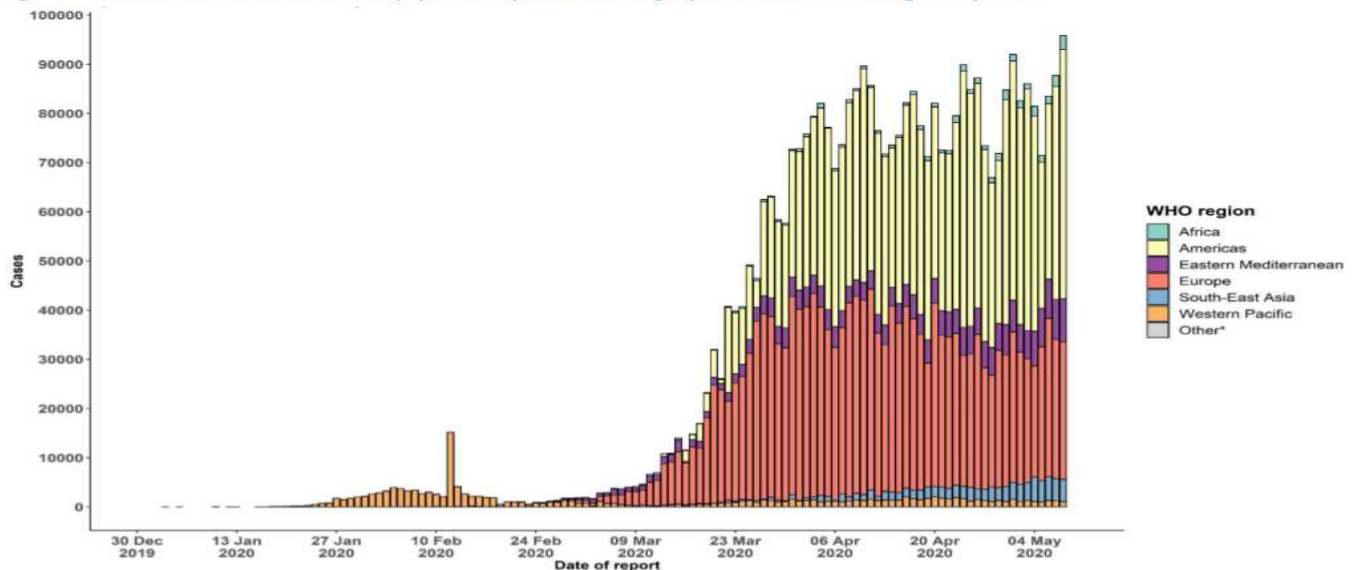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기타 영토는 WHO situation report 기준, *증가율=(5.10.확진자-5.3. 확진자)/5.3.확진자*100

국외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5. 10. 0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산 현황 (2020. 5. 10. 기준)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Figure 2.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by date of report and WHO region, 30 December 2019 through 9 May 2020**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5. 9.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주요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5. 10.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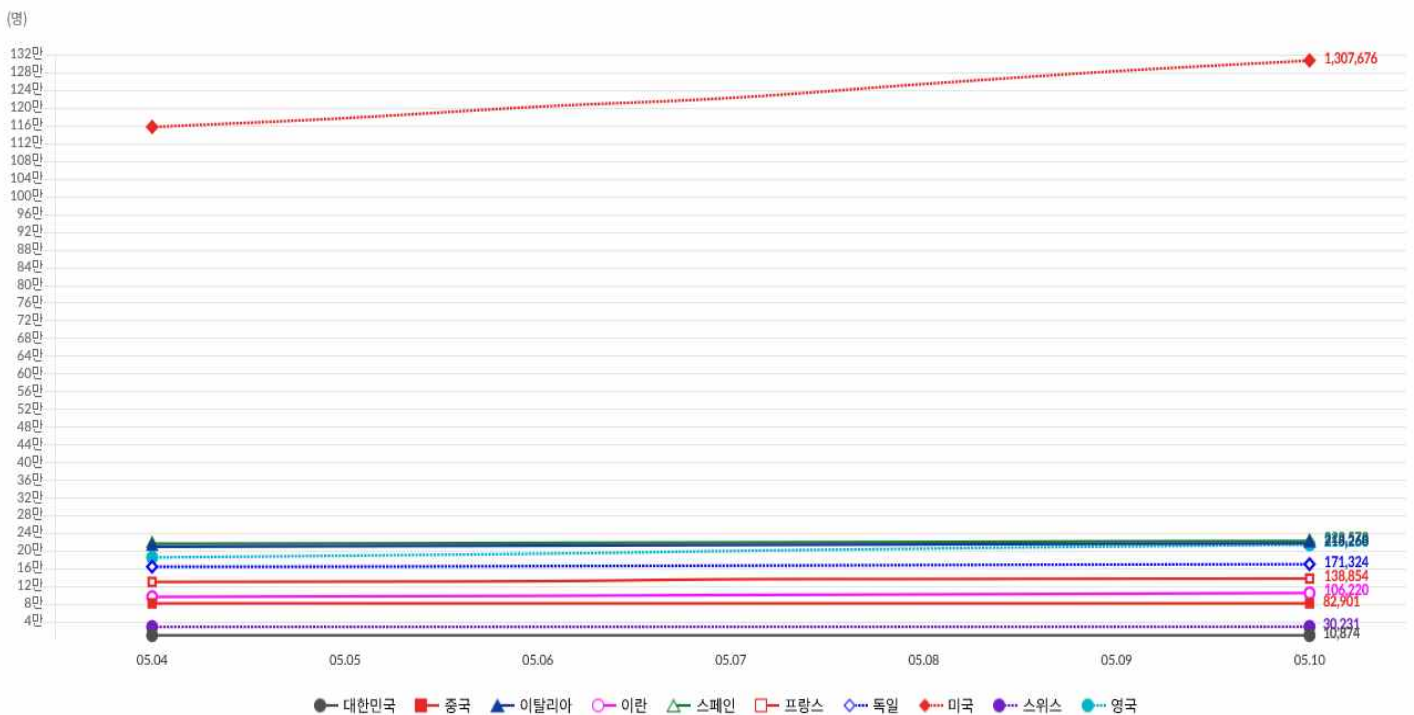
- 치명률은 프랑스 18.95%, 벨기에 16.31, 영국 14.67%, 이탈리아 13.93%, 네덜란드 12.79%, 스페인 11.84%, 인도네시아 7.19%, 캐나다 6.93%, 이란 6.2%, 미국 6.02%, 중국 5.59%, 스위스 5.07%, 독일 4.41%, 일본 3.89%, 터키 2.73%, 한국 2.35%순으로 높았음. 치명률은 유행기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증가할 전망

- 5.4.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인도네시아 20.93%, 영국15.36%, 미국 12.96%, 캐나다 12.28%, 이란 9.03%, 터키 8.78%, 프랑스 5.76%, 벨기에 5.39%, 일본 4.58%, 네덜란드 4.46%, 이탈리아 3.58%, 독일 3.42%, 스페인 2.81%, 스위스 1.09%, 한국 0.68%, 중국 0.03%순으로 높았음

국가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명)	5.4.대비 확진자 증가율(%)	치명률(%)
	5.4.	5.5	5.6.	5.7.	5.8.	5.9.	5.10.			
미국	1,157,687	1,177,784	1,203,502	1,223,468	1,254,740	1,283,829	1,307,676	78,693	12.96%	6.02%
스페인	217,466	218,011	219,329	220,325	221,447	222,857	223,578	26,478	2.81%	11.84%
이탈리아	210,717	211,938	213,013	214,457	215,858	217,185	218,268	30,395	3.58%	13.93%
영국	186,599	190,584	194,990	201,101	206,715	211,364	215,260	31,587	15.36%	14.67%
독일	165,664	165,914	167,007	168,162	169,430	170,588	171,324	7,549	3.42%	4.41%
프랑스	131,287	131,863	132,967	137,150	137,779	138,421	138,854	26,310	5.76%	18.95%
터키	126,045	127,659	129,491	131,744	133,721	135,569	137,115	3,739	8.78%	2.73%
이란	97,424	98,647	99,970	101,650	103,135	104,691	106,220	6,589	9.03%	6.20%
중국	82,880	82,881	82,883	82,885	82,886	82,887	82,901	4,633	0.03%	5.59%
캐나다	59,474	59,844	61,159	63,496	63,895	66,434	66,780	4,628	12.28%	6.93%
벨기에	49,906	50,267	50,509	50,781	51,420	52,011	52,596	8,581	5.39%	16.31%
네덜란드	40,571	40,770	41,087	41,319	41,774	42,093	42,382	5,422	4.46%	12.79%
스위스	29,905	29,981	30,009	30,060	30,126	30,207	30,231	1,532	1.09%	5.07%
일본	15,057	15,231	15,354	15,463	15,547	15,628	15,747	613	4.58%	3.89%
인도네시아	10,843	11,192	11,587	12,071	12,438	12,776	13,112	943	20.93%	7.19%
한국	10,801	10,804	10,806	10,810	10,822	10,840	10,874	256	0.68%	2.35%

총 국가수	184	184	184	184	184	186	185			
전세계 총환자수	3,444,917	3,512,891	3,600,732	3,687,012	3,779,329	3,874,575	3,959,364	-	14.93	7.02%
전세계 총사망자수	246,288	249,924	255,771	262,084	267,935	273,476	277,845			

주요 발생국가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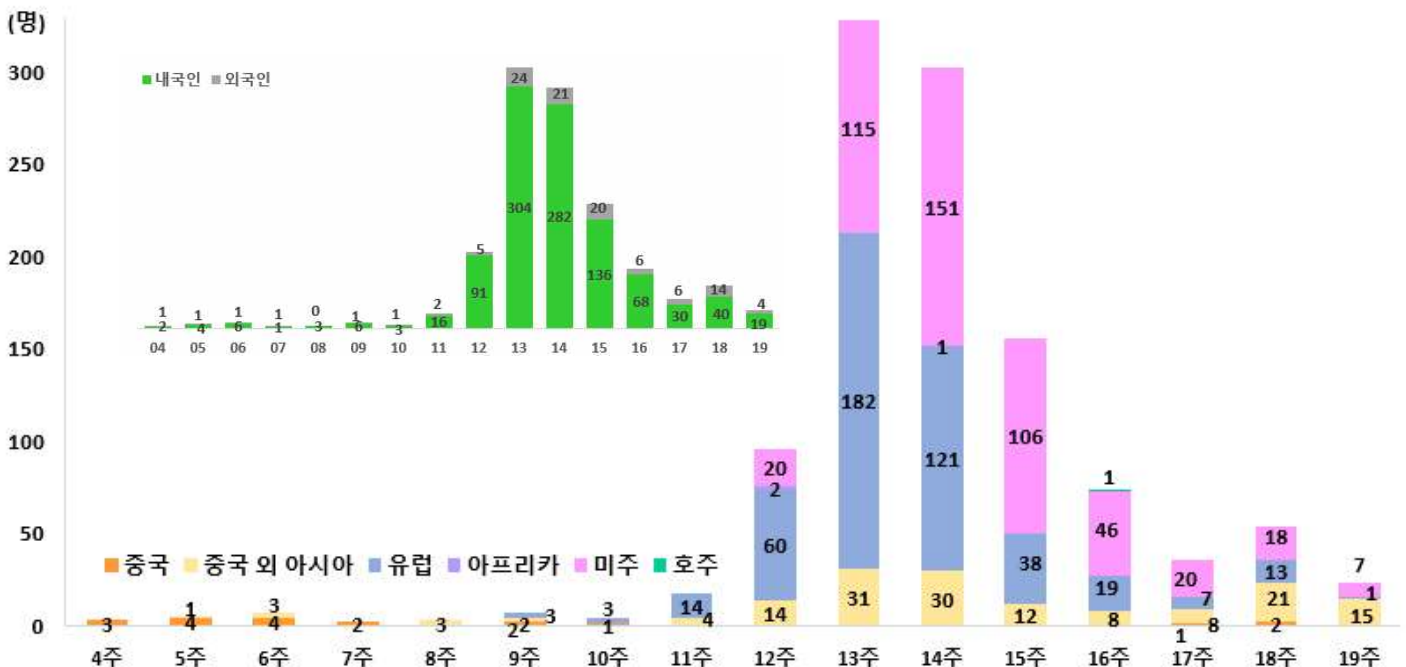
● 해외유입 현황 (2020. 5. 10. 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의 해외입국자 추정 유입국가는 유럽 1명, 미주 2명, 기타 5명 (필리핀 1명, 쿠웨이트 1명, 탄자니아 3명)
- 유럽, 미주지역 입국자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입국자 확인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 3일 내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미국, 유럽 외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까지 모두, 14일 자가격리 기간 내 1회 전수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강화, 지자체 단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해외유입 현황 5.10.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8	0	2	1	2	3	0	6	2	7
누계	1,127	19	154	462	485	6	1	476	651	1,018
		(1.7%)	(13.7%)	(41.0%)	(43.0%)	(0.5%)	(0.1%)	(42.2%)	(57.8%)	(90.3%)
확진자수(명)		여행국								
중국		-								
중국외아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등								
유럽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호주		호주								

해외유입 추정현황(5.10. 0시 기준)



한 주간 정책 동향

국내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해외공유 사이트 오픈...방문 2백만뷰 돌파(5.6.) 박원순 시장, 서울시 명예시민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공유(5.7.)
시민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원순 시장, 코로나19 방역협조 요청 천주교, 기독교계 대표와 만남(5.6.)
방역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생활 속 거리두기(5.6.)
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은평병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행동지침' 안내(5.7.)
경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코로나 피해 여행사에 전국 최초 현금 지원 시작... 5.15까지 2차 접수(5.8.)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5.6.) 서울시, 제2회 추경을 통해...총 2조 8,329억원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5.4) 서울시,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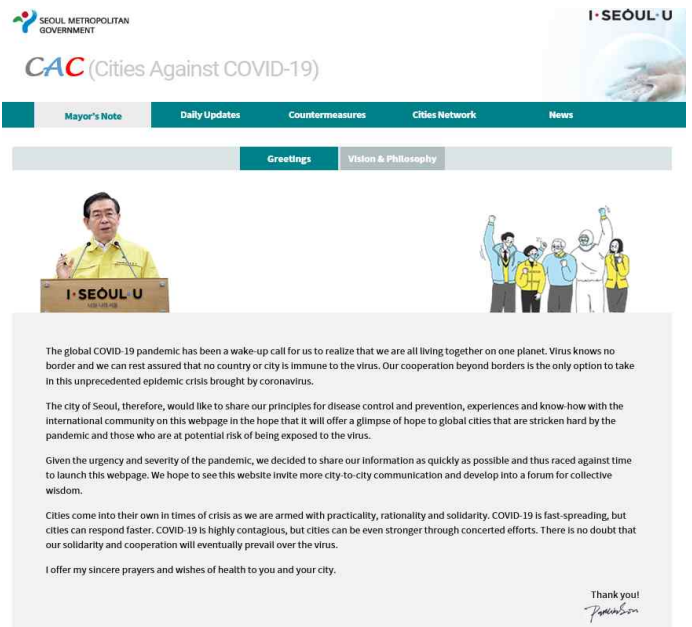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해외공유 사이트 오픈...방문 2백만뷰 돌파

- 서울시가 선도적인 코로나19 방역정책과 노하우를 세계도시와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CAC(Cities Against COVID-19, <http://english.seoul.go.kr/covid>)가 오픈 한 달여 만에 방문자 2백만뷰(20.5.5. 기준 2,349,782뷰)를 돌파함

- 서울시는 인구 1천만의 대도시임에도 도시기능 섣달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은 서울의 선도적인 정책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국제기구·해외도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9일(목) 'CAC'를 오픈함

* 모든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오픈 이후 하루 최대 약 23만뷰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 간 비대면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주요 제공 카테고리 ① Mayor's Note(비전과철학) ② Daily Updates(발생현황) ③ Countermeasure(대응정책) ④ Cities Network(도시간소통) ⑤ News(뉴스) 5개임



외국어(영어) 코로나19 공유플랫폼 메인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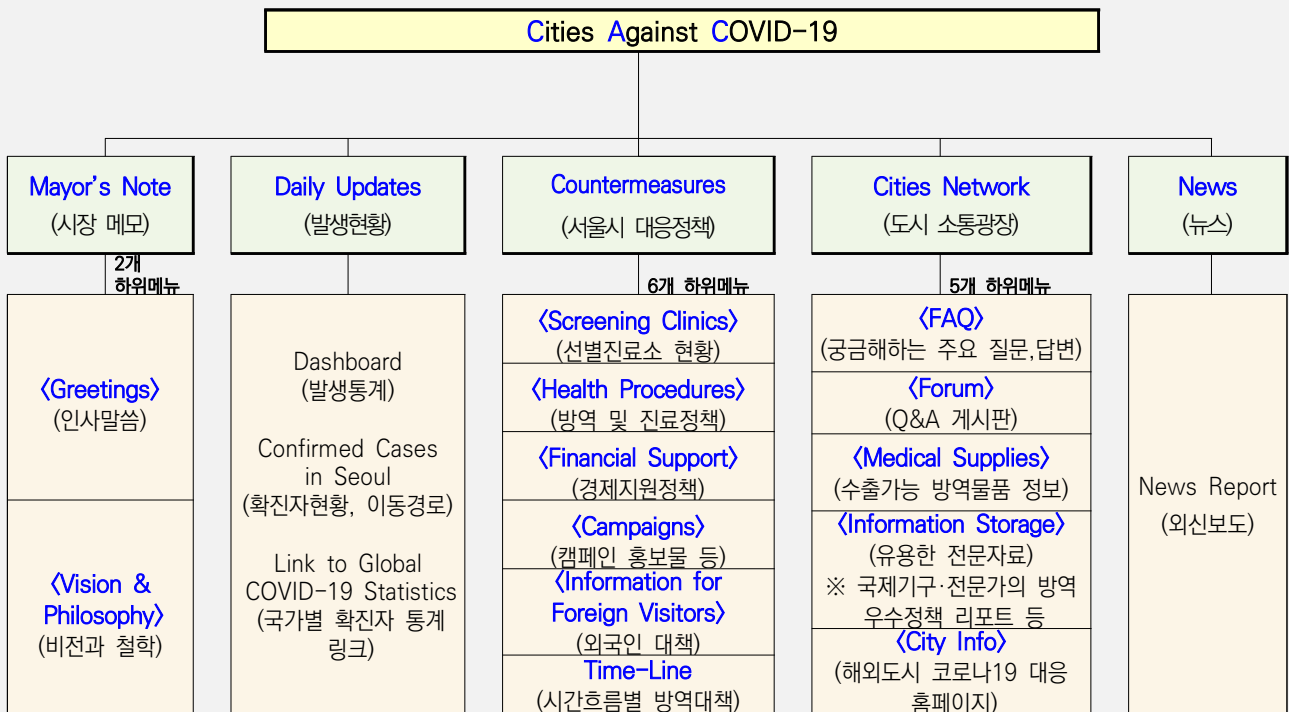
- 'CAC'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등 선별진료소 운영 같은 서울시 방역정책부터 소상공인·민생경제 지원정책 등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종합해서 제공하고 있음

- 국내외 외국인을 위해 국내 코로나19 방역정보, 특별입국절차, 외국유학생대책, 입국자 대응지침 등 필요한 정보도 제공함
* 시는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정책 노하우를 종합해 제작한 정책자료집(Seoul's Fight Against COVID-19)도 PDF 형태로 업로드해 국제기구·해외도시에 공유하고 있음

- 해외도시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방역물품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하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부터 제품인증, 수출허가를 받은 45개 업체의 진단키트, 시약 관련 제품들로, 구매에 관심 있는 해외 도시를 위한 업체 정보, 제품정보를 상세히 소개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임
 - * 향후 국내수급 상황 문제가 없는 제품정보(방호복, 마스크 등) 순차적 공개할 계획임
- 또, 세계 74개 도시, 12개 국제기구의 코로나 방역정책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쌍방향 소통과 정책공유를 유도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 도시별 주요 대응사례, 국제도시 간 방역경험 공유,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논의 하는 화상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 회의에는 해외 주요도시 시장, 국내·외 전문가, 민간기업이 참여함
 - * 5.12(화) 서울연구원 주관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방향」주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내 전문가 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됨
 - * 6.1(월)~6.5(금) 해외도시 시장회의, 민간기업의 감염병 대응 신기술 소개를 주제로 국제 화상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래 도시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서울시는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통해 ‘하나의 지구’ 속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깨닫고 있다. 초국가적 협력을 통해서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그동안 축적해온 감염병 대응 원칙과 경험, 노하우를 이 사이트에 담아 공유하고자 했다. 현재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잠재적 위협 속에 있는 세계 모든 도시들에게 희망의 백신이 되길 바란다.”고 전함

외국어(영어) 코로나19 공유플랫폼 구성 현황

- 명칭: CAC(Cities Against COVID-19) ※english.seoul.go.kr/covid
- 메뉴: 5개 메뉴 및 13개 탭 메뉴(하위메뉴)로 구성
 - 기존 외국어 코로나페이지(COVID19) + 해외도시간 소통기능(게시판 등) 추가



공유·소통기능 현황

- ❖ FAQ : 궁금해 하는 12개 주요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
- ❖ Forum : 각 도시의 요청사항과 답변(Q&A)을 게시판 형식으로 자유롭게 소통
- ❖ Medical Supplies: 공공기관 인증제품으로 물품(진단키트 등) 수출이 가능한 기업정보
- ❖ Information Storage : 방역 우수정책, 백신개발 관련 등 유용한 전문자료 게시
- ❖ City Info: 70여개 해외도시(자매우호도시 등)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 정보

● 박원순 시장, 서울시 명예시민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공유

- 박원순 시장은 7일(목) 오전 9시30분 시장집무실에서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MARTA-LUCÍA RAMÍREZ)와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방역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했음

- *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MARTA-LUCÍA RAMÍREZ) 콜롬비아 부통령은 콜롬비아 최초 여성 부통령에 오른 인물임
- * 2019년 7월 서울시 대표단 콜롬비아 방문시 박원순 시장은 라미레스 부통령의 초청으로 부통령관저에서 첫 만남을 가졌었고, 이후 2019년 12월 라미레스 부통령이 서울시를 방문하였을때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음



- 최근 무증상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콜롬비아는 이반두께 콜롬비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상간 통화 이후 서울의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방역 대책과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라미레스 부통령이 박원순 시장에게 화상회의를 요청하여 성사되었음
- 당초 30분간 진행 예정이었던 회의는 라미레스 부통령의 높은 관심으로 약 50분간 진행되었고 박원순 시장은 신속한 진단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서울시가 지난 4월 9일(목)에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CAC(Cities Against COVID-19, <http://english.seoul.go.kr/covid>)등을 통해 방역정책과 노하우 등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였음
-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은 과잉대응이 능력대응보다 낫다는 박원순시장의 감염병 대응 원칙에 큰 공감을 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의 우수한 방역대책에 찬사를 보낸다” 라고 말하며 “이번 방역에 있어 시장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신속한 진단을 통한 빠른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콜롬비아에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음
- 또한 라미레스 부통령은 의료용 장비에 대한 정보와 대중교통·병원 방역 정책 및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체적인 노하우 공유에 대해 서울시립 병원 등 맞춤형 실무시간 화상회의를 제안하였음
- 박원순 시장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처럼 남미유일의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를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서울 코로나19대응 정책 및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약속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새로운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더 강조 할 것이다”고 말했음

● 박원순 시장, 코로나19 방역협조 요청 천주교, 기독교계 대표와 만남

- 박원순 시장은 6일(수) 천주교, 기독교계 대표들과 연이어 만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7대 감염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 7대 수칙은 ▲발열 및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차사용 ▲신도간 1~2m 이상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식사 제공 금지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참석자 명단 작성임

- 박원순 시장은 10시 서울대교구 교구청 추기경 집무실에서 영수정 추기경, 허영엽 신부, 원종현 신부와 면담함



방역협조 위한 천주교·기독교계 대표와의 만남

- 이어 11시엔 종로구 대학로 소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 김태영·문수석 대표회장, 20분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와 각각 만났음

●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생활 속 거리두기

- 정부는 5월 6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화한데 이어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 서울시는 이미 방역의 일상화에 대비한 민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코로나19 초기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실시간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왔음
 - * 지난 4월 23일엔 김민기 연세대 대학원 교수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지속방역추진단'을 공식 발족해 운영 중임
 - * 또한, 문화, 체육, 복지 등 각 분야별 지속방역협의회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 관련 단체 및 협회, 이용자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 서울시의 온라인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선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고 전문가 등 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소통을 토대로 서울시는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사회·취약계층방역 등 3대 영역에서 시민과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첫째, 신속하고 신뢰받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구축]

- 서울시는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유사시 신속하게 유증상자를 찾아내 검사하고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료 받고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는 목표임
- ① 선별진료소 상시 대응체계 구축
 - * 현재 서울시 확진자 감소추세에 따라 지역의료방역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상시 운영시간은 축소하되, 지역의 민관의료기관과 협력해 야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할 예정
 - *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상시 대응 체계로, 시민 누구나 경미한 의심증상에도 즉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사례 정의'를 적극 활용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감염을 선제 차단해 나갈 것임

▶ 서울형 사례정의 : 코로나19 관련 불안 및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즉시 상담 및 진료에 따라 검사 가능

- ② 역학조사 역량강화로 집단발생 대응 민반의 준비
 - * 집단발생 비상시에 투입한 민간 역학조사관들을 확진자 감소 추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을 강화해 비상시 서울시 즉각 대응반으로 급파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
- ③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치료체계 구축
 - * 현재 1주일 간 확진자 300명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 가능한 의료·치료 체계를, 단계별로 최대 1주일 간 1,000명이 4주 간 연속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치료체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 또한, 현재 확진자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기존 음압병상수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일반 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음압병상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음

[둘째, 개인방역분야]

- 지금까지 천만 인구가 밀집한 메가시티인 서울에서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방역에 성공을 거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만든 성과임
-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특히,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프면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람
- 서울시에서는 '참 고마워요' 챌린지 등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해 서로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셋째, 사회방역분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파가능성과 접촉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 민간시설, 도심집회에 대해 위험성을 고려한 단계별 방역관리를 해나가겠음
- 공공시설: 공공시설 운영은 재개하되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정원의 50%만 개방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가겠음
 - * 이후 감염병 전개 양상, 시설별 이용자 현황,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음
- 민간시설: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원칙적으로 운영을 재개함
- 종교시설, 유흥시설, 노래방·PC방 등 밀폐, 밀집되는 환경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시간, 성명, 연락처 등 이용자 정보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할 것을 권고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할 예정임
 - * 또한 계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인 수칙 위반 시 이전과 같이 집합금지명령 및 명령위반에 따른 고발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도심집회와 시위는 야외환경이기는 하나 밀집·밀착되어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고,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전해질 때까지 당분간 금지해 나갈 예정임

구 분	시 기	방 법
문화종교시설	○ 5.6.(수) ※ 사전예약, 일부 공간만 개방 등 실제 방문가능 일정은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 문화시설 - 사전예약제 등을 활용하여 관람인원 및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 - 운영좌석, 서비스 등 단계적 확대 - 운영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종교시설 -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허용 -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속 점검
체육시설	○ 5.6.(수)	○ 실내 공공체육시설 - 소규모 프로그램부터 순차적 운영 재개 ▶ 소규모 강습(5인 내외) → 일반 강습 → 자유이용(인원제한) - 수영장은 5.6부터 급수(6일 소요) 등 운영준비 시작 후 재개 ○ 체육시설 전용 사용(행사, 경기 등 대관) - 5.6.부터 이용자 모집 공고 실시 ▶ 대관심사 후 실제 이용은 7월 이후 예상
	○ 5.5.(화) : 프로야구 ○ 5.8.(금) : 프로축구 ※ 서울 개막경기 : 5.17.(일)	○ 프로스포츠(프로야구·축구) - 무관중 경기 후 단계별 관중 입장 - 프로연맹(KBO,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관중입장 시점 및 규모에 대해 협의
복지시설	○ 1단계 : 5.11(월) ○ 2단계~3단계 : 감염병 위험경보 및 정부지침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1단계) 비접촉성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제외) ○ (2단계) 중규모 참여프로그램 확대 및 노인복지관 운영 - 사회체육프로그램(헬스장, 에어로빅, 수영장 등) 확대 운영 등 ○ (3단계) 제한적 정상 운영(경로당 개관) - 대규모 집합 프로그램 운영금지
아동·여성시설	○ 보육수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원 시기를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 어린이집 - 개원 결정시까지 긴급보육 유지하되, 반별 정원의 영아 50%, 유아 30% 이상 등원시 연령별 정규반 편성 - 개원후에도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특별활동은 당분간 제한, 개별놀이 중심 프로그램 진행
	○ 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정상 운영	○ 초등돌봄시설 - 등교 개학전(5.6~5.19) 긴급돌봄체계(휴원) 유지 및 온라인 학습 지원 - 초등 1~2학년 개학시기에 맞춰 정상운영 하되(5.20~), 전체학년 등교시(6.1)까지는 방학중 운영시간(9~18시) 적용하여 온라인학습 등 돌봄 지속 제공
	○ 5.6부터 단계적 정상 운영 - (1단계) 5.6~5.17 - (2단계) 5.18~ - (3단계) 위기경보 '심각' 해제시	○ 이용시설 - (1단계) 소규모(10인 이하) 집합프로그램 운영, 정원의 70% 이하로 제한 - (2단계) 중규모(30인 이하) 집합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특정된 행사 진행 - (3단계) 정상 운영 ○ 생활시설 - (1단계) 시설내 면회 허용, 제한적입소자 외출 허용(학업, 치료 등) - (2단계) 시설외 면회 허용(외박금지), 시간인원 제한하여 자원봉사 허용 - (3단계) 정상 운영 ※ 면역력 취약한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은 정상 운영시까지 현재 상황 유지

[넷째, 취약계층 방역]

-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병원 및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특별 관리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 앞으로도 외부인 출입금지, 면회 및 외출 제한, 방문객 명부 작성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일일 2회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 이밖에도 지역사회에 계신 취약계층 어르신 등에 대한 방문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울시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은 시민들의 의견으로 완성되며, 서울시 온라인플랫폼 '민주주의 서울'과 서울시 SNS 계정 등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받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방역추진단, 각 분야별 지속방역협의회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논의하며 한층 모범적인 일상 속 방역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 서울시 은평병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행동지침’안내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발달장애아동들의 지속적인 치료에 힘쓰고 있음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 낮병원에서는 15명의 발달장애아동이 입원하여 발달증진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 * 이는 자칫 치료의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과 부모님들의 요구였으며, 더불어 발달지연·심리정서 등 어려움을 보이는 환아들도 외래치료를 지속하여 치료의 단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 * 입원 환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은 가정에서 놀이감을 이용하여 놀이를 하거나 tv 등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았으며 부모들은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음
 - * 또한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영역별 가이드 제시와 놀이 및 중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위하여, 소아심리·언어·소아작업·인지학습·놀이·미술·음악 등 다양한 치료영역의 전문가들이 코로나극복을 위한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음
 - * 발달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행동 지침 “우리 아이와 건강하고 안전하게 코로나 극복하기”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특성에 맞게 코로나 19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과 활동목록 만들기, 구조화된 환경 만들기, 나와 가족을 위한 ‘나를 돌보는 날’ 만들기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음
 - * 언어치료 영역에서는 “우리 아이와 함께 의사소통해요”라는 주제로 집에서 하는 의사소통 촉진 전략 안내와, 소아심리 영역에서는 정서장애 아동들을 위한 가정에서 아이의 정서상태를 살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대응을 통해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등 각 치료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지침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어렵고 가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린이날병원 입원 환아들을 위한 가정연계 놀이활동 지침서 및 놀이키트 제공을 통하여 가정에서 아동 및 가족들이 질 높은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향후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아동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각 치료영역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임
- 각 치료 전문영역별 지침 및 가정연계 놀이활동에 대한 정보는 서울특별시은평병원 홈페이지(<https://ephosp.seoul.go.kr/>) 및 어린이발달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ephosp>)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은평병원은 “우리병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엄격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지속적인 치료에 힘쓰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병원 어린이발달센터를 찾는 발달장애 환아 및 보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슬기롭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음



● 서울시, 코로나 피해 여행사에 전국 최초 현금 지원 시작… 5.15까지 2차 접수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에 직접 사업비를 현금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가 1차 모집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사전 사업비 지원이 시작됐음
 - *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업체 935개 중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최종 685개사를 1차 지원업체로 선정하였음
 - *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계를 긴급 지원하고자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에 각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여행업체가 코로나19 진정 이후, 관광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기획하였음
- 처음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최한수 브이아이피트래블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회복을 대비해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광고 없는 서울지도를 제작하였고, 구미주 현지에서도 서울 관광상품 및 관광정보가 쉽게 노출되도록 온라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금이 여행업계의 활력을 회복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1·SEOUL U

서울관광재단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의 서울관광재단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여행업계의 회복을 위해
사업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1차 결과발표 및 2차 공고

- 이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매출액과 업력 등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2차 모집을 진행 5.6부터 5.15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5.27 최종 선정할 계획임
 - * 올해 2·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기존 1차는 75% 이상 감소 업체 대상), 업력기준 또한 2019. 1. 1 이전 여행업 등록 업체를 대상(기존 1차 :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업체 대상)으로 함
 - *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최종 선발업체를 선정함
- 2차 신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sto.or.kr>)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5. 15.(금), 12시까지 임
 - *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접수만 가능함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여행업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현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붕괴 위기에 처한 관광생태계를 보호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여행업을 시작으로 MICE업, 호텔업 등으로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음
-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 확대 지급을 결정함
 - *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무급휴직 지원 조건(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①무급휴직기간 : 90일 이상, ②무급휴직자 :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 ③사전 유급휴직(업) 의무 조치
-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확대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지원대상(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신청기간(월 2회 접수→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지급 방식(1일 2.5만원→50만원 정액) 모두 바뀜
- 먼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됨.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음
 - * 이는 ①4월 1일 시행한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② 4월 13일 1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에 이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내용임
-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이 달라짐.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5만원씩 계산하여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함
 - *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됨
 - * 2.23~3.30 중 5일 이상 휴직한 사람 중 일할 계산 금액에 따라 4월에 5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소급하여 지급됨
- 또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함.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음
-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도 바꾸기로 했음.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두어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음
 - * 다만, 지원금은 매주단위로 지급함.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지급됨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내용

구 분	당초	1차 확대(4.13)	2차 확대(5.1)	비 고
지원대상	5인 미만 소상공인	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시 자체 변경
사업체당 지원자 수	사업체당 1명 (관광업종은 2명)	제한없음 (최대 9명까지 지원)	제한없음 (최대 49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월 1회 (매월 1~10일)	월 2회 (매월 1~10일, 22~24일)	상시 신청	
지원금액 산정방식	무급휴직 일수 당 2.5만원씩 일할계산하여 지급 (월 최대 50만원)		5일 이상 무급휴직시 무조건 50만원씩 지급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이중수급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와 중복지급 불가(※단, 지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가능)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와 중복지급 허용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

- 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되어 지원 중임
 - *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 *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임
 - *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음.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함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함

● **서울시, 제2회 추경을 통해...총 2조 8,329억원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조 8,32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임
 -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8,329억원, 감액사업 1조 1,591억 원으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6,738억 원임
 - * '20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40조 7,402억원 대비 4.1% 증가한 42조 4,140억 원 규모임
 - * 지난 3월 의결(3.24.)된 '코로나19 1회 추경' 8,619억 원에 이은 것으로, 당시 지원 규모의 3배가 넘는 규모로,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상반기에만 2번 추경예산을 편성 한 것은 최초임
-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 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음
 - *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수건을 짜내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였음
 - * (1차)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재원 활용, '1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통해 세입 재원을 마련
 - * (2차)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지연된 사업비 조정',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 '사업 공정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액 수준 조정' 등 특단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음

세출사업 구조조정 관련 주요 사업 현황

- ◆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1,800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745억원 등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
- ◆ 동북선 경전철 건설 △73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39억원 등 공정 관련 사업비 조정
- ◆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 △6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28억원 등 사업 규모 축소
- ◆ 공무국외여비 등 △29억원, 출연금 △119억원, 행사 관련 사업비 등 △218억원 등 코로나19로 미추진된 사업비 조정

세출규모 : 2조 8,329억원		재원조달 : 2조 8,329억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	금2조 1,063억원	○ 국고보조금	1조 7,329억원
○ 자영업자 생존자금	3,256억원	○ 순세계잉여금 등	5,830억원
○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원	○ 기금 예수금	500억원
○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344억원	○ 지방채	△3,468억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91억원	○ 회계간전입금	△3,453억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원	○ 세출사업 구조조정	1조 1,591억원
○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1.8억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억원		

- 2회 코로나19 추경의 주요 분야는 3가지임
 - ①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435억원)
 - 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2조 6,671억 원) * 추경예산(안) 2조 1,063억원 / ※ 총사업비(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원, 구비 1,608억 원)
 -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5,756억 원)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포함
-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으로 우선, 5월 4일(월)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할 예정임
 - *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월 70만 원씩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 자금'도 5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됨
 - * 또,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신속집행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3천억 원도 선 교부하기로 했음

- 아울러,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절벽을 최대한 막는 데도 중점을 뒤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계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함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일(월)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고, 시의회 의결 즉시 모든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신속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임
 - * 지원 자금 총 2조 8,329억 원 가운데 2조 5,329억 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 포함 시 2조 7,829억 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함
 - * 나머지 3천억 원은 법정무경비(자치구 조정교부금) 선 지급 분을 반영한 것임
- 첫째, 소비 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35억원을 편성하였음
 - *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200억 원)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내수부진에 이어 수출 취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된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선정, 3개월간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 * 공연업 긴급 화생 지원(50억 원) : 관람객 감소 및 공연 중단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연예술단체와 기획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컬처 백신' 50개소를 선정. 대관료·제작진 인건비·출연료 등 단체당 9백만 원 내외의 공연제작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제작된 작품은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계획임
 - *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 원) :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개소를 선정하여,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 원을 지원함. 특히, 1차 여행업체 1,000개사 지원(업체당 500만원), 2차 마이스(MICE) 유관기업 500개소 지원(업체당 500만원)에 이은 3차 지원 대책으로 관광 시장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74억 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급격한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직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업체 255개소에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함. 운수종사자 고용유지를 통한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함께 도모, 긴급 경영 개선비는 법인 택시업체와 매칭 형태로 마련하여 법인에 고용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법인에 지원할 계획임
 -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91억 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20.3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 91억 원(17,800 가구분 : 89억원, 운영비 : 2억원)을 편성함. 공고일(5.4.) 기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금액에 비해 30% 이상 소득 감소가 확인된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함
-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총 2조 6,671억원*(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 원, 구비 1,608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 5월 4일(월)부터 지급하는 취약계층 긴급지원 예산 4,000억 원은 간주예산 제도를 통해 국비를 우선 반영 및 집행함에 따라 국비 2조 1,833억원 중 1조 7,833억원만 추경 편성
 - * 긴급재난지원금 총 사업비는 2조 6,671억 원 중 1,608억 원은 자치구에서 별도 편성계획
 - * 특히,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5월 4일(월)부터 '20년 3월 기준 지급된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일괄 현금 지급함
 -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5.4.(월)~6.18.(목)이고,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음
- 셋째,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을 투입,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생존의 징검다리를 놓아줌
 -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5,756억 원) : 추경예산(안) 3,2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함. 지원대상은 '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로,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함. 서울 소재 소상공인(약 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 10명 중 7명(72%)이 수해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 소상공인 채무 보증 여력 확대(500억 원) :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채무 보증여력을 확대하고자 500억 원을 추가 출연함
-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24. 12. 준공 예정)을 위해 설계 공모비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 원도 편성하였음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다.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함

● **서울시,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

-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함. 총 1만 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 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임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만 7,800명…선착순 아닌 하위소득 순 계좌입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 *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함
-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공고일(20.5.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됨
 - *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대상범위를 넓혔음
 - *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0,865원이나 서울시는 161,000원을 기준으로 함

서울시가 적용하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중위소득기준 (금융, 자동차 등 재산반영)	(서울시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57,000	101,000	86,000	101,000
2인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인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인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을 적용

-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①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②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임
-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임
 - *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지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신청~입금 4주내 완료, 앱화면 캡처·통장사본 등…자격·소득감소입증서류 다양하게 인정]

-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임
 - *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처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 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함
-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함
 - * 신청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금)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것도 주안점임

[6일부터 이메일/11일부터 구청 방문 접수시작,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 <이메일접수>는 5월 6일(수)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5월 11일(월)부터이고, 마감일은 동일하게 5월 22일(금) 17시임
 - *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됨
- 아울러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구청 내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구당 2명씩 총 50여명의 전담인력도 투입함
 - * 또한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 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등도 철저히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특고·프리랜서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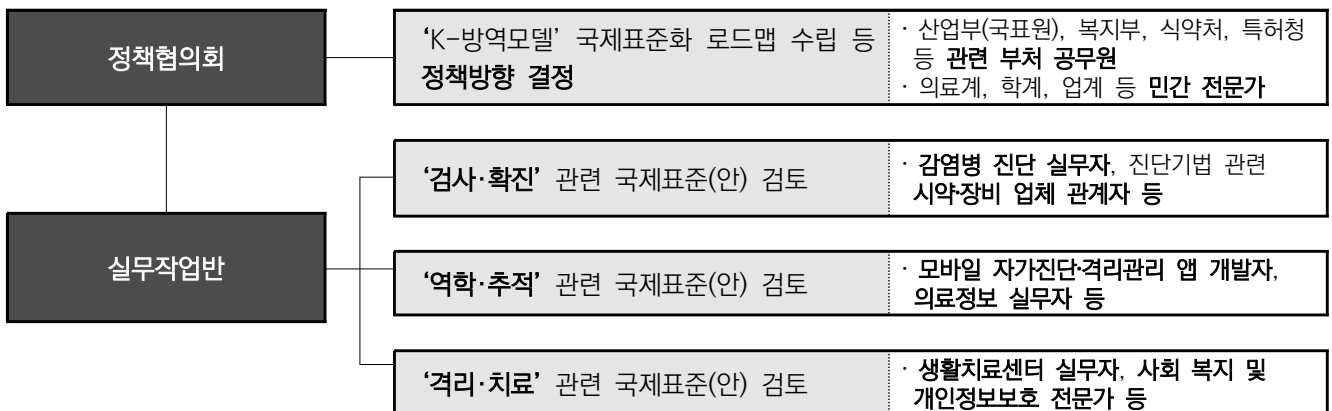
한 주간 정책 동향

국내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 본격 가동(5.8.) ■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 개최(5.7.)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거리두기 국민 참여 위한 홍보 적극 진행,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계획(5.7.) ■ 생활방역 대국민 의견수렴 주요 결과 “아프면 3~4일 쉬는 게 지키기 가장 어려워”(5.4.)
방역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3.~5.29. 권역별 대학 방역 관리 현황 현장 점검 실시 계획(5.10.) ■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5.9.) ■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5.8.) ■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 방역 추진계획_식품의약품안전처(5.8.) ■ 코로나19 계기 외식문화 개선 추진 계획_농림축산식품부(5.8.)
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 마련(5.9.) ■ 범정부 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5.8.)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5.6.) ■ 감염병 전담병원 감축 계획(5.5.)
경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선지급 당초 5월에서, 6월까지 1개월 연장 추가지원 시행(5.4.)
감염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일반 국민 대상 항체가(면역도) 조사 실시 계획(5.10.) ■ 코로나19 상시감시체계 강화위한 SARI, ARI 감시대상 의료기관 확대 운영(5.8.)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발표(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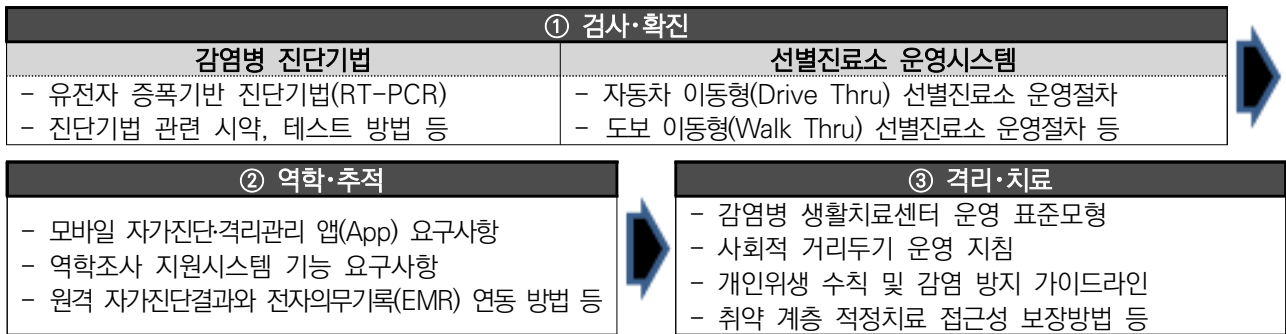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이 함께 노력(5.8.)

- 정부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5.8일 16시 서울 The-K호텔(거문고A홀)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협의회는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책협의회’와 국제표준안 검토 등을 위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됨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민·관 전문가 협의회 구성



- '정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의 료계,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했음
 - *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위원장이 맡고,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무조정실 공무원도 배석
 - * 민간 전문가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료 전문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제안·운영 자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선별진료소 관련 업체, 모바일 앱(App) 개발 등 정보통신 전문가, 표준특 허 전문가 등이 참여함
- '실무작업반'은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별 표준안을 검토할 현장 실무인 력 중심으로 구성하며, 관련 국제표준 기술위원회(TC) 동향 공유, 표준안 작성·검토 등을 수행함
-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 18종의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국제표준(안)을 구체화하여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할 계획임



- 향후 '정책협의회'는 부처별 표준정책 조율, 관련 예산안 협의 등 중요사항을 신속히 논의해 실무작업반 업무를 적극 지원함
 - * '실무작업반'은 K-방역모델 국제표준별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고,
 - * 특히,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이 맡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상회의, SNS 대화방, 서면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이 날 '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전세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우리 바이오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발맞추어 뛰겠다"고 뜻을 같이 했음
- 국가기술표준원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활용된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인류 공통의 지식자산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대한민국이 보건의료 분야의 변방에서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국제적 신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국제표준화의 적기인 만큼 K-방역모델이 세계표준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 개최(5.7.)**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5월 7일(목) 오후 5시 50분부터 한국정책 방송원(KTV)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MOHW-KCDC Online Briefing on COVID-19 for Foreign Media)」을 개최함
- 이번 온라인 외신 브리핑은 코로나19가 전 세계 유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와 작동 양상 등에 대한 각국 언론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음
 - * 아울러 우리나라에 상주 기자 등을 두지 못한 각국 현지 언론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한국어-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함
- 이날 브리핑에는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과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코 로나19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함
 - * 발표문을 읽는 기존 브리핑 방식과 달리, 내용 전반에 대해 전문 앵커와 대담(인터뷰)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하고, 이어서 외신 기자 들의 사전 영상 질의 등*에 답변을 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의답변함
 - * 이탈리아 RAI, 스페인 ABC, 미국 Forbes, 홍콩 Asia Times 등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15개국-30여 명 이상 외신기자 참여
- 90분간 진행되는 온라인 외신 브리핑은 KTV 국민방송에서 모두 촬영해 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아리랑TV와 코리아넷(www.korea.net)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 통역 방송을 송출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온라인 외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에 관하여 정책과 기술 이 어우러진 종합적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방역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화상회의·웹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

●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현황 및 향후 계획(5.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부터 일상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방역 활동을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일상 속 개인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궁극적인 국민 의식 및 사회 문화적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핵심 수칙 등의 메시지를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음
 - * 핵심 5대 수칙 등을 잘 이해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기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기로 함
 - * (개인방역)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집단방역) ▲공동체 원칙,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방역지침 마련·준수, ▲방역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수행,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 우선 직관적으로 핵심 수칙을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영상(문화체육관광부 제작)과 대상·상황별 실생활 사례로 구성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온라인·옥외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할 계획임



- * 대상별 : 가족 세대별(조부모·부부·자녀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변화를 낳는 변화” 영상(4편) 제작 및 유·무료 매체 광고 송출 예정
- * 상황별 : 야외 공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 국민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영상 제작·송출

- 또한 핵심 기본 수칙(5개)을 일상 속 이미지로 표현, 전국적으로 지속반복 노출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포스터(3종)를 제작하고, 핵심 기본 수칙을 구체화하는 보조 수칙 등을 풀어서 설명하는 리플렛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임
- 아울러 온라인 유명 인플루언서·캐릭터 등과 연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노래·춤 등을 통해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임
 - * 유명 인플루언서 '어썸하은(구독자 439만 명)' 협업(5.4), 도티TV(구독자 254만 명) 협업(5.6) 영상 제작·송출, 어린이 대상 인기 캐릭터 '핑크퐁' 협업, 시리즈 영상 제작 예정
 - * 청년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대학생 4대 연합동아리(광고 분야, 약 100명 참여) 협업,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콘텐츠(웹툰·포스터 등) 발굴 및 확산 예정
- 이와 같은 홍보물은 코로나19 공식 누리집(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생활방역 대국민 의견수렴 주요 결과(5.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자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8,747명의 국민이 참여하였고,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 조사개요

- (조사기간 및 채널) 4.12(일)~4.26(일), 2주간,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 (조사내용) 개인방역 5대 행동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
- (참여자수) 총 8,447건 수집(4.27 14시 기준, 무응답, 중복 댓글 300건 제외)
- (응답자 주요특성)
 - (연령) 30대(46.3%), 40대(25.4%), 20대(18.1%), 50대(6.5%), 60대 이상(3.0%), 10대(0.7%) 순
 - (지역) 서울(29.7%), 경기(24.2%), 경상(24.1%), 충청(7.7%) 순 등으로 참여
 - (코로나19 경험유형) 비경험자 92.6%, 경험자 7.4% (확진자 0.4%(33명), 자기격리 직접경험 2.2%(189명), 진단검사 경험 4.8%(403명))

-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수칙별 국민 의견 수렴결과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에 대한 국민 의견 개진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50.9%)와 실천 용이성 인식(실천이 가장 쉽다고 느끼는 수칙)(70.1%, 개인 차원) 모두 3수칙(손 씻기,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실천 난이성(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수칙)은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이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코로나19 경험자(확진자, 자가격리, 진단검사)·비경험자, 연령대별로 구분해 궁금증과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이 제시한 5대 핵심수칙별 궁금증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비경험자 92.6%, 경험자 7.4%(확진자 0.4%, 자가격리 2.2%, 진단검사 4.8%)

[제1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 (궁금증) ‘실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휴가 성격,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보호 여부, 수칙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제기하였음
 - * (국민 최다 궁금증) △현실적 실천 가능성, △감기와 코로나 구별 방법(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최다 응답비율), △사업주 출근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순
- (제안사항) 휴가 보장 및 불이익 차단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 연령대에 걸쳐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경험자 집단에 비해 비경험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음
 - * (국민 최다 제안사항) △결근을 위한 강제성 있는 제도구축 필요(불이익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포함), △사회인식 개선 및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업의 적극적 협조(병가 인정, 대체인력 마련 등) 순

[제2 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 (궁금증) ‘대중교통 이용 시 2m 거리 실천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험자의 경우 구체적 상황(출퇴근 시 등)에서의 실천 방법에 관한 질문과 개인 노력만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였음
 - * (국민 최다 궁금증) △대중교통 이용 시 2m 실천 방법, △자기통제성 부재 측면에서의 2미터 간격 유지의 실효성, △1~2미터가 보장해주는 감염예방 수준(50대 이상 비경험자 집단에서 최다 응답 비율)
- (제안사항)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상시 마스크 착용’을 제안하였음. 비경험자는 거리 두기 중요성에 대한 홍보 제안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험자의 경우 공공장소 내 거리 두기를 가시화하는 홍보물 부착 등 구체적 실천(유도) 방법 제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 (국민 제안) △거리 두기 중요성 홍보, △무증상 시에도 마스크 착용(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 두기 실천 순

[제3 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 (궁금증)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공용 사용 비누의 안전성과 구체적인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이 다수 나타났음
 - * (국민 최다 궁금증) △(비누 사용 없는) 소독제만으로는 감염예방 여부(40대 미만의 코로나 19 비경험자&여성 집단에서 최다 응답 비율), △공동사용 비누의 안전성(감염여부), △실내외 등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순
- (제안사항) ‘집단 간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가 많이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후 기침’,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침 예절을 넘어 보다 강력한 마스크 착용을 제안하였음
 - * (국민 최다 제안) △공공장소 손 소독제 비치,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 순

[제4 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궁금증) 환기 기준에 대한 질문(환기 시간, 간격, 횟수 등)이 다수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소독 횟수와 양, 제품, 희석비율 등 구체적인 소독 방법이 주요 궁금증으로 나타났음
 - * (국민 궁금증) △환기 시간/간격/횟수, △미세먼지 고려 환기 방법, △환기 시 공기 중 전파 위험성
- (제안사항) 제4 수칙에 대한 홍보 강화가 주요 제안사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가격리 경험자는 소독 영상, 방송·라디오 안내, 포스터, 캠페인 등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제안하였음
 - * (국민 제안) △환기의 의무화, △홍보 강화/직접 교육 순

[제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합니다”]

- (궁금증) 취약계층(아동, 어르신 등)에 대한 지원관리가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음.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상대적 관여도가 낮은 30대 미만의 경우 지역 단위 홍보 강화가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음
 - * (국민 궁금증) △취약계층 지원관리, △부적절 정보 제공(언론, 방송) 처벌, △올바른 정보 판별 방법
- (제안사항) ‘취약계층에 수시로 전화 연락’을 제안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전화 연락, 단체 카톡방이나 메신저 등을 활용한 연락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 더 높은 비율로 제안하였음
 - * (국민 최다 제안) △전화로 수시 연락, △가짜뉴스 공유 시 처벌, △SNS, 메신저 프로그램 활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핵심수칙별 주요 제안사항은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나갈 계획임

● 대학 방역 관리 현황 및 계획(5.1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이후 대학이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대학의 방역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음
- 그간 정부는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지속 권고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이후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에 대비하여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4.23)하였음
- 또한 지침 배포 이전인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교육부 본부 직원 및 지역 국립대 직원을 2인 1조로 총 30개조의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296개 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관리 체계 및 보건소, 지방자치단체와의 핫라인 구축 등 비상시 대응 체계를 확인하였음
 - * (1차) 10개반 113개교 점검, (2차) 9개반 79개교(77개교 및 1차 점검 결과 미흡 2개교) 점검, (3차) 3개반 74개교 점검, (4차) 8개반 30개교 점검
- 아울러 대학 및 전문대학 교무처장 협의회 회장교 등 48개 대학의 방역 관리 현황을 조사(5.8)하여, 사전 발열 검사, 강의실 좌석 간격 조정, 방역 소독실시 등 조사 대학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 * (4년제 대학) 고려대, 부경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17개교, (전문대학) 부천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인덕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31개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학이 실험·실습과목 등을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대학가에 지역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5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권역별 대학 방역 관리현황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 점검 대상은 대학 60개교, 전문대학 40개교이며, 대면 수업 실시 시기 및 규모, 대학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 특히 이번 점검은 점검대상 대학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사전 발열 검사 실시 여부,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임

●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5.9.)

-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인천시·강원도·경기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경기도는, 최초 확진자가 용인에 거주하고, 추가 확진자 중 지인 1인(안양)과 직장동료 1인(용인), 성남의료원 소속 간호사 1인, 군인1인 등 총 5명이 경기도에 거주함
 - * 현재까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 또한, 도내 5,500여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임
- 서울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5개 업소(클럽) 대상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명부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을 5월6일 저녁 완료하였음
 - * 또한,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확진환자 동선을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업소별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된 1,500여명 대상으로 유선으로 출입여부 및 동선을 확인하고 있음
 - *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하여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하였음(5월7일, 5월8일)
 - * 관내 2,150여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임
 - * 한편, 5월 8일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실시하였음
- 인천시의 경우 현재 방문자와 접촉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독려하고 있음
 - * 관내 유흥주점 1,050여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영업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고, 미 준수 시에는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벌금을 부과함
- 강원도는 최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 춘천남이섬 등을 방문함에 따라 남이섬 내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고, 남이섬 및 주변과 내부시설에 대해 1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음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5월8일 20시부터 6월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임
 - *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는 밀집, 밀폐, 밀접접촉하는 실내공간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함
- 우리가 가진 코로나19 극복 경험과 방역 체계를 활용하여 이번 사태가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확진자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감염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비난과 차별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밝혔음

●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5.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8일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함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 (적용 대상) 전국 유흥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 단란주점은 제외
- (적용 기간) '20.5.8.(금) 20:00 ~ '20.6.7.(일) (1달간,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임
-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 *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임
 - * 아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음

준수사항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 방역 추진계획_식품의약품안전처(5.8.)**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82년부터 운영해 온 음식문화개선사업* 체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영업자와 함께 생활방역 실천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 정부·지자체·음식점 영업자 및 협회가 참여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8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 그간 사업을 통해 개인별 소형찬기 제공, 개방형 주방,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간소한 상차림, 영양을 고려한 좋은 식단체 등 건전한 음식문화정착 또한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침방울로 전파되므로, 특히 일상 속 음식문화에서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
 - * 개인 용기 사용, 덜어 먹기 등 개인위생 실천 사항에 더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외식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 지침에 생활방역 지침을 포함하여 공무원·영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고, “생활방역수칙-음식점편” 동영상 제작하여 영업자 교육 시 사용하며, 외식·급식 시설 내 홍보물 게시 등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할 계획임
 - * 위생관리 매뉴얼 : 식품접객업소, 급식소, 어린이집·유치원 등

● **코로나19 계기 외식문화 개선 추진 계획_농림축산식품부(5.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된 이후 외식소비 회복에 발맞춰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외식 문화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 *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외식 소비는 점차 회복 중이지만,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식사하는 외식업소의 특성상 방역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외식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 캠페인 「슬기로운 외식생활」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우선 관련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외식단체 등이 협력하여 외식업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침 준수를 적극 홍보함
-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외식단체는 외식업소 위생교육에 지침 내용을 포함시키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 덧붙여 언론매체(신문, TV 등)와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외식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 할 예정임
 - * 외식업계와 소비자가 준수할 내용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여 알리는 한편, 5월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함
- 외식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외식문화 개선 우수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위생과 방역,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배치, 식기 제작 및 소비자 준수 사항 등도 함께 검토함
- 정부는 외식문화 개선에 외식업소가 자발적으로 외식문화 개선에 나서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노쇼, 갑질 등 외식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까지 캠페인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임

●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5.9.)**

- 5월 9일(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내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음
-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는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경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 그간 복지부, 3개 지자체 및 지자체별 전문가(의료진)가 모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임

단계별 공동대응방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황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	일일 확진자 50명 이상 발생	일일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	일일 확진자 1,000명 이상
공동대응 방식	시범운영 방식으로 1~3개 병원·센터 교류·협력		본격적인 공동대응체계 가동	

※ 일일 확진자 수는 수도권 3개 지자체 합산 기준

-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미만(1·2단계)인 경우에는, 각 지자체가 기본적인 수요에 따라 거점전담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역별로 1~3개소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각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진자를 배정함

- * (거점전담병원) 중증·중등증 환자를 이송·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 지자체가 지정 (공동생활치료센터) 경증·무증상 환자의 격리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중 지자체가 지정
-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3·4단계)인 경우에는 병상의 공동활용이 시급하므로 ▲통합 환자분류와 ▲협력병원 및 공동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협력수준을 상향함
-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의료인), 방역당국으로 구성된 통합 환자분류반을 설치함
 - * 통합 환자분류반은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간의 병상 교류·배정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 실시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가 초과하면 타지역으로 병원을 배정하게 됨
- 또한, 기존의 지역별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 협력병원으로 지정함
 - * 수도권 협력병원에는 인근 환자들을 행정경계에 관계없이 배정하고, 의료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환자 폭증 상황에도 신속한 병상 배정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중 1·2단계에 해당하는 거점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4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 협력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의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체가 5월11일부터 구성·운영됨
 - * 아울러 5월 말부터는 이러한 수도권 모형을 토대로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제주권 등 전국 권역별 협력체계를 추가 마련할 계획임

● 범정부 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5.8.)

- 정부는 5월 8일(금)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동향 및 전략을 점검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단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함
- 정부는 지난 4.17(금)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음
 - *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기업에 대한 밀착상담 및 애로사항 발굴·신속 해소를 지원하고 있음
 - * 특히, 치료제·백신 분야 21개사에 대한 심층상담(5.6~5.7)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의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현황에 따르면, 치료제분야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말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 백신분야에서는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는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시급한 제도 개선사항 2건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먼저, 혈장치료제 개발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
 - * 혈장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이 다량 필요하나, 채혈행위는 의료기관만이 가능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연구용 혈장 채혈에 어려움이 있었음
 - *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혈장채혈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성분채혈기 임대를 통해 혈장채혈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 추가적으로, 치료제 개발용 혈장 채취에 관한 세부 절차를 담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취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혈장 채취 표준을 제시할 예정임
- 또한, 민간(기업)의 치료제·백신개발 촉진을 위해 생물안전시설의 민간 지원방안을 마련함
 -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는 생물안전3등급시설(BL3)을 필요로 하나, 민간에서는 자체시설 구축이 어려워 공공기관 BL3 시설의 개방·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
 - * 이에 따라, 그간 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시설이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에 BL3 운영기관 목록을 게시하고, 민간(산·학·연)의 연구시설 이용 수요를 검토 후 BL3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공기관 BL3 시설의 활용도를 높임
 - * 질병관리본부 내에 생물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하여, 수요 접수·우선순위 검토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정책에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백신을 국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산·학·연·병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와 함께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강조함
 - * 아울러 “관계부처가 함께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며, 각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다양한 만큼, 규제개선부터 R&D 자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5.6.)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5월 6일(수)과 7일(목) 보건 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 중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심층 상담을 진행함
-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리는 심층 상담에는 노홍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위원회 담당 국과장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이 참여할 예정임
 - * 1일차(5.6.) 8개사, 2일차(5.7.) 8개사 등
- 이번 심층 상담은 지난 4월 24일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 논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음
- 현재 치료제 분야 14개사(社)와 백신 분야 7개사를 중점 지원 후보군으로 설정하여 개발 현황, 기업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여 관리 중임
- 이번 심층 상담은 연구개발(R&D), 규제, 금융 등 개별 기업별 애로 사항을 한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업별 상담 일정에 따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상담에 나섬
- 정부는 심층 상담에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임
- 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애로사항은 ①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시설(BL3, GMP) 이용, ②기존에 신청한 임상 시험계획에 대한 신속심사 및 예정된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 상담요건 완화, ③개발 컨설팅 요청, ④치료목적 사용승인 요청, ⑤완치자 혈장 채혈 규제 완화 요청, ⑥임상시험개발생산 등을 위한 R&D 및 금융자금 지원 확대 요청 등임
- 한편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의 확대·개편도 추진함
-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치료제·백신 등 개발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위공무원을 책임자로 한 유관기관 합동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센터에 파견 근무함으로써 기업 지원이 더욱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감염병 전담병원 감축 계획(5.5.)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운영 조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4월23일 9개 병원의 500여개 병상, 4월28일 8개 병원의 1,200여 개 병상을 감축하였음
- 또한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병상 감축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다소 안정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집중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상황과 병상 가동율을 고려한 조치임
- 5월4일 기준, 확보된 병상은 5,533개이며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총 4,649개임
 - * 병상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5월6일에 7개 전담병원에 대한 지정해제 등을 거쳐 총 1,725개 병상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번 감축 이후 확보병상은 3,808개이며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2,924개가 됨
 - * 한편, 5월 중순에는 서울·대구 지역도 확진 환자 추이 등을 살펴본 후 감축을 검토할 예정임
- 이러한 감축작업을 통해 일일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는 추세에서는 감염병 병상 수를 전국적으로 1,500여 개에서 2,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임
-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을 유지하고, 병상관리 및 재가동 계획을 수립하여, 위기 시에는 신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함

●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 시행(5.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음
-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

선지급 개요

-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 *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 지급
- ◆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코로나19 일반 국민 대상 항체가(면역도) 조사 실시 계획(5.1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을 보고받았음
 - * 항체가(면역도):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체의 양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시점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여 집단 내 면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잔여 혈청과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주민 혈청을 이용하여 항체가(면역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 매년 192개 지역별로 각각 25가구를 확률표본으로 추출해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영양상태 조사
 - * 항체가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0세 이상 7,000여 건, 대구·경북지역은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1,000여 건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에 필요한 항체 검사법이 결정되는 대로, 빠르면 5월 말부터 검사를 진행할 예정임
- 항체가 조사가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집단면역 정도, 무증상감염 규모 파악을 통해 방역 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다만 항체를 보유한 것은 과거에 감염된 이력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질병 방어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 해석 시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칠 예정임

● 코로나19 상시감시체계 강화(5.8.)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상시감시체계를 강화를 위해,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감시체계에 감시대상 의료기관을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13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5.9~)
 - * 2.18일 부터 코로나19 검사 기 운영 중
- 병원급 의료기관(214개소)의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ARI) 감시에 코로나19를 추가하여 5.3일 부터 운영 중임
 - * 감시대상병원체 : 바이러스 및 세균 12종 →코로나19 포함 13종
-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병원체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 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험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5월 중으로 시행 예정임
 - * 민간 수탁기관 2개소, 지역별 병원·종합병원 중심 20개 기관 이상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체계 개요

1.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Seve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감시

- (사업내용) SARI 환자 발생·사망 양상 및 원인병원체* 파악 등을 위해 입원환자 대상 감시체계 운영
 - * 호흡기바이러스(8종): 인플루엔자, 코로나, 리노, 아데노, 보카,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 파라인플루엔자
 - 세균(4종): 폐렴구균, 마이코플라스마, 레지오넬라, 클라미디아균
- 코로나19 감시 강화를 위해 SARI 참여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검사 추가(2.18~)
 - * 4.16.현재, 신규 SARI환자 중 426명에 대해 코로나19검사 실시하여 29명(6.8%) 양성 확인(기 확진자)
- (참여기관)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 현재 운영 중인 중증급성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를 13개소에서 전국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42개소 확대(5.9~)
 - * '20.5.월~12월('19년 사업기간 '20.5.8일 종료)

※ WHO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SARI) 정의

- ① 발열 경험 또는 38도 이상의 고열과 ② 기침이 있으며 ③ 10일 이내 발생
- ④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코로나19 중증환자 임상정보 및 검체 수집
 - SARI 감시체계 참여기관의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임상정보 및 검체 수집
 - 주별 폐렴 및 코로나19 환자수, 코로나19 환자의 호흡기치료 수준별 현황 등
 - * (임상정보) 초기 중증도, 치료내용, 영상소견 등 주요검사 결과, 일자별 임상기록 등
 - * (검체수집) 감염병연구센터에서 별도 안내 및 검체 수집 학술연구용역 진행 예정

2. 급성호흡기감염증(ARI;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감시

- (사업내용) 급성호흡기감염증의 발생 현황 및 원인병원체* 파악을 위해 입원 및 외래환자 대상 감시체계 운영
 - * 호흡기바이러스(8종): 인플루엔자, 코로나, 리노, 아데노, 보카,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 파라인플루엔자
 - 세균(2종): 마이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균
- 코로나19 발생경향의 변동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시 추가(5.3~)
- (참여기관) 상급종합병원 포함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병원 214개소
- (감시방법) 전주의 환자수를 매주 화요일까지 신고
 - 신고범위 : 환자(확진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급성호흡기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별 임상증상 및 검사기준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신고내용: 해당표본감시기간의 코로나19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종류별 연령군별 환자수를 총환자수와 외래환자수로 구별하여 신고
- 신고방법: 전주(일요일~토요일) 환자수 매주 화요일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5.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함

①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함
-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임
 - *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음
-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임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임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 ◆ (목적) 호흡기·발열 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 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호흡기증상 환자 진료공백 보강 및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
- ◆ (방식) 호흡기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모형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 ①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별도공간 등을 제공, 지역 의사 참여(attending, 당번제 등)
 - *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 (도서관 활용) 등
 - ② (의료기관 클리닉) 독립된 건물의 의료기관(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 *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단과병원, 외래형 안심병원(A형) 등
- ◆ (대상)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
 - 지속적인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중증환자 및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내원병원 이용 권장
- ◆ (기능) ▲ 진단·처방, ▲ 코로나19 검사 필요 판단 시 검체채취·진단 검사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의뢰, ▲ 확진 시 보건당국에 연락하여 조치

② 전화 상담·처방 운영 개선

-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에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함
-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임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5.7.(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 개요(5.7일 0시 기준, 256명)

- 2.19일 첫 사망 사례 이후 5.7일 0시까지 총 256명의 사망자 발생
 - 전국 확진환자 총 10,810명 대비 치명률 2.37%

□ 사망자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성별) 남자 133명, 여자 123명
- (연령별) 평균 77.4세(35세~98세)로 65세 이상 86.3%(221명)
- (지역별) 대구 178명(69.5%), 경북 53명(20.7%), 경기 16명(6.3%), 부산 3명, 서울 2명, 강원 2명, 울산 1명, 대전 1명
- (치명률) (성별) 남자 3.03%, 여자 1.91%; (연령별) 30대 0.17%, 40대 0.21%, 50대 0.77%, 60대 2.73%, 70대 10.85%, 80대 이상 25.00%
- (기저질환) 있음 253명, 없음 3명

· 기저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 77.0%,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8.8%, 치매 등 정신질환 44.1%,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24.2% 등(중복 가능)

· 기저질환 없음: 60대/여성, 70대/남성, 80대/남성으로 감염병신고서와 의무기록 등 현재 가용한 자료 상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 (추정감염경로) 시설 및 병원 141명(55.1%), 신천지 관련 27명(10.5%), 확진자 접촉 22명(8.6%), 조사중 66명(25.8%)

- (사망 장소) 입원실 236명(92.2%), 응급실 17명(6.6%), 자택 3명(1.2%)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5.7. 0시 기준)		256	100.0%	치명률(확진자 10,810명 중) 2.37%
성별	남	133	51.9%	치명률(확진자 4,382명 중) 3.03%
	여	123	48.1%	치명률(확진자 6,428명 중) 1.91%
평균 77.4세(최소 35세~ 최대 98세), 65세 이상 221명(86.3%)				
연령별	30대 (30-39세)	2	0.8%	치명률(확진자 1,167명 중) 0.17%
	40대 (40-49세)	3	1.2%	치명률(확진자 1,436명 중) 0.21%
	50대 (50-59세)	15	5.8%	치명률(확진자 1,957명 중) 0.77%
	60대 (60-69세)	37	14.5%	치명률(확진자 1,354명 중) 2.73%
	70대 (70-79세)	77	30.0%	치명률(확진자 710명 중) 10.85%
	80대 이상 (80세 이상)	122	47.7%	치명률(확진자 488명 중) 25.00%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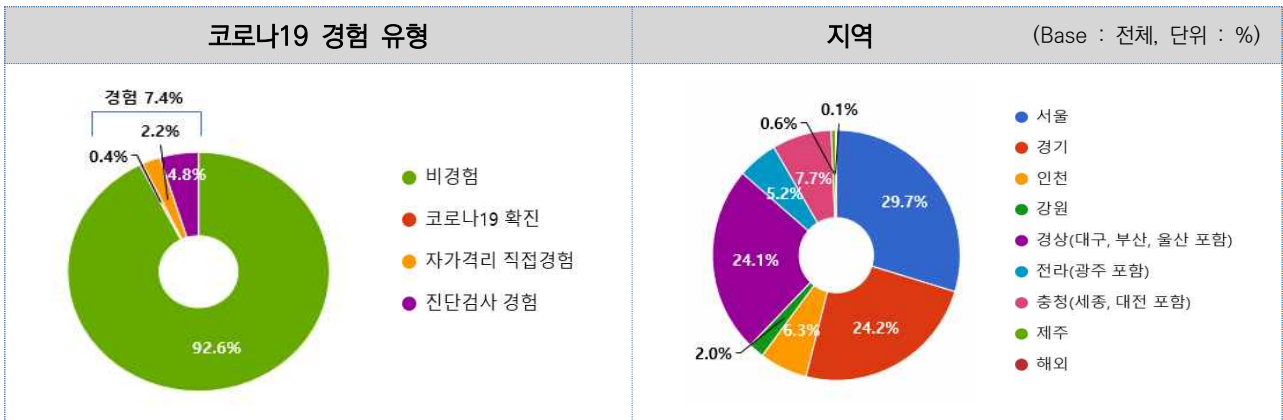
구분	명	비율(%)	비고	
총 사망자수 (5.7. 0시 기준)	256	100.0%	치명률(확진자 10,810명 중) 2.37%	
기저질환 (중복 가능)	기저질환 있음 253명(98.8%), 없음 3명(1.2%)			
	순환기계 질환	197	77.0%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내분비계·대사성 질환	125	48.8%	당뇨병, 통풍, 쿠싱증후군 등
	정신 질환	113	44.1%	치매, 조현병 등
	호흡기계 질환	62	24.2%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	45	17.6%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악성신생물(암)	36	14.1%	폐암, 간암, 위암 등
	신경계 질환	16	6.3%	파킨슨병 등
	소화기계 질환	10	3.9%	간경변증 등
	근골격계 질환	6	2.3%	골다공증, 관절염 등
	혈액 및 조혈계 질환	5	2.0%	원발성 혈소판증가증, 빈혈
	추정 감염경로	시설 및 병원	141	55.1%
- 청도대남병원		9	3.5%	
- 요양병원		70	27.3%	
- 기타 의료기관		31	12.1%	
- 요양원		20	7.8%	
- 기타 사회복지시설*		11	4.3%	
신천지 관련		27	10.5%	
확진자 접촉		22	8.6%	
조사 중	66	25.8%		
사망장소	입원실	236	92.2%	
	응급실	17	6.6%	
	자택	3	1.2%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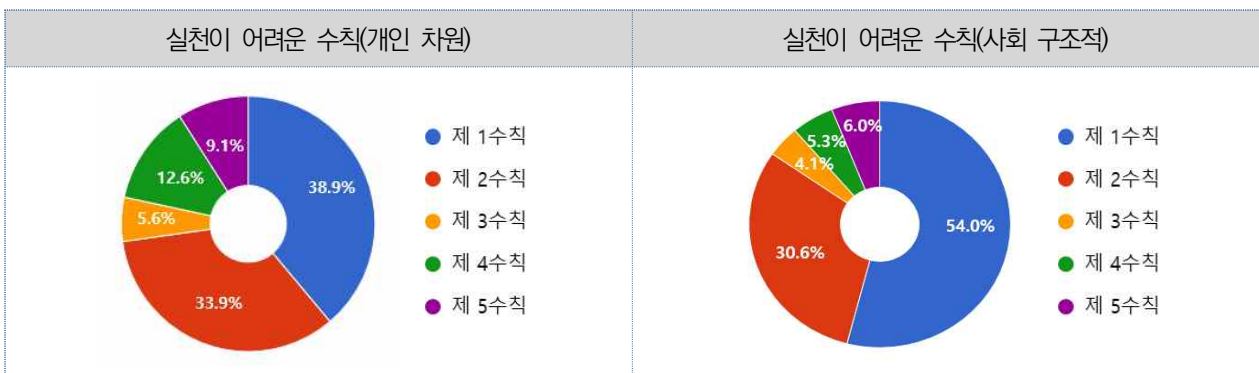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생활방역' 국민 제안·의견수렴 최종 결과

□ 개요

- (수렴기간·채널) 4.12(일)~4.26(일), 2주간, 복지부 페이스북
- (조사내용) 개인방역 5대 행동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
- (참여자수) 총 8,447건 수집(4.27 14시 기준, 무응답, 중복 댓글 300건 제외)
- (응답자 주요특성)
 - (연령) 30대(46.3%), 40대(25.4%), 20대(18.1%), 50대(6.5%), 60대 이상(3.0%), 10대(0.7%) 순
 - (지역) 서울(29.7%), 경기(24.2%), 경상(24.1%), 충청(7.7%) 순 등으로 참여
 - (코로나19 경험유형) 비경험자 92.6%, 경험자 7.4% (확진자 0.4%(33명), 자가격리 직접경험 2.2%(189명), 진단검사 경험 4.8%(403명))



- (수칙별 의견개진 비율) 1수칙(28.6%), 3수칙(23.4%), 2수칙(20.8%) 순
 -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에 대한 응답률이 제일 높았으며, 경험자, 특히 확진자의 경우 51.5%로 가장 높은 응답률 차지
- (중요도 인식) 모든 연령대에서 3수칙(50.9%), 1수칙(23.2%), 2수칙(14.6%) 순
 - 다만, 경험자 중 확진자 경우만 1수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36.4%)
- (실천용이성 인식) 3수칙(손 씻기, 기침 옷소매)이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 차원(70.1%) 및 사회 구조적(46.3%)으로 가장 쉽다고 응답
- (실천난이성 인식)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실천이 개인, 사회 구조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응답
 - 확진자는 타 경험자(자가격리, 진단검사) 및 비경험자 대비 상대적으로 1수칙의 실천 어려움 비율이 낮은 반면 3수칙과 4수칙 비율은 높게 나타남



□ 수칙별 국민 공금증 주요 결과(전체 vs. 코로나19 유경험자)

구분	전체 참여자 그래프 (최다 키워드 TOP3)	전체 참여자 (최다 키워드 TOP3)	코로나19 유경험자 (확진, 진단, 자가격리)
1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적 실천 가능성/쓸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3.3%) 감기와 코로나 구별 방법(2.7%) 사업주 출근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2.2%) <p><주요 확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적인 실천 가능성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율: 비경험자 집단 내 비율(3.3%) vs. 경험자 집단 내 비율(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경험자 집단의 경우, 구체적 실행 방법과 관련된 질문 제기 '감기와 코로나 구별 방법' 등은 50대 이상의 코로나19 비경험자 중심으로 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적 실천 가능성/쓸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2.5%) 2~5. 구체적 실행 방법(각 2%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가 혹은 연차 사용 결근이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수칙 위반 시 제재 규정 유무
2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이용 시 2m 실천방법(6.9%) 자기통제성 부재 측면에서의 2미터 간격 유지의 실효성(4.1%) 1~2미터가 보장해주는 감염예방 수준(3.4%) <p><주요 확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경험 여부 및 연령과 상관없이, 대중교통 이용 시 2m 실천 방법 및 유사 질문이 최다 공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경험자 집단에서 구체적 상황(예. 출퇴근시 등) 내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해 다수 질문 50대 이상 연령층 중심으로 1~2미터(거리)가 보장해주는 감염예방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이용 시 2m 실천방법(3.4%)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시 2m 실천 방법(6.1%) 자기통제성 부재 측면에서의 2미터 간격 유지의 실효성(4.8%)
3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제의 감염 예방 기능(3.1%) 공동사용 비누의 안전성(2.5%) 실내외 등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2.4%) <p><주요 확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간 공통적으로, 공용 사용 비누의 안전성 및 구체적인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 공금증이 많았음. 소독제 감염 예방 수준은 비경험자, 40대 미만 연령 중심으로 질문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사용 비누의 안전성(3.1%)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및 올바른 손씻기 방법(각 2.4%)
4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기 시간/간격/횟수(6.9%) 미세먼지 고려 환기 방법(5.1%) 환기 시 공기 중 전파 위험성(4.1%) <p><주요 확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경험집단은 구체적 환기 방법과 구체적 소독 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금증이 더 많았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고려 환기 방법(9.5%) 환기 시간/간격/횟수(6.0%) 소독 횟수와 양/소독 제품(4.8%)
5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지원관리(3.1%) 부적절 정보 제공 처벌(2.8%) 올바른 정보 판별 방법(2.6%) <p><주요 확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아동/어르신 등)에 대한 지원관리가 최다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취약계층(아동/어르신)에 대한 상대적 관여도가 낮은 30대 미만의 경우에만 지역단위 홍보강화가 최다 질문으로 나타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지원관리(3.2%) 지역단위 홍보 강화(3.2%) 모임의 기준 및 범위(3.2%)

□ 수칙별 국민 제안사항 주요 결과(전체 vs. 코로나19 유경험자)

구분	전체 참여자 그래프 (최다 키워드 TOP3)	전체 참여자 (최다 키워드 TOP3)	코로나19 유경험자 (확진, 진단, 자가격리)
1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성 있는 제도 구축 필요(불이익 예방장치 포함)(5.7%) 사회인식 개선 및 정부 지원(4.3%) 기업의 적극적 협조(3.4%) 	전체 참여자 순위와 동일
2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 두기 중요성 홍보(5.0%) 무증상 시에도 마스크 착용(4.6%) 거리 두기 실천(30%)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증상 시에도 마스크 착용(4.8%) 공공장소 거리 두기 표시(3.4%) 거리 두기 중요성 홍보(2.7%)
3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장소 손 소독제 비치(5.1%)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4.8%)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4.3%)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5.5%) 마스크 착용 후 기침 독려(3.9%) 기침 예절 홍보(3.1%)
4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기의 의무화(2.9%) 홍보 강화(2.8%) 직접 교육(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매체, 직접적 안내(표 등) 홍보, 캠페인 실행(각 2.4%)
5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로 수시 연락(4.0%) 가짜뉴스 공유 시 처벌(3.2%) SNS, 메신저 프로그램 활용(2.8%)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로 수시 연락(4.8%) 2-4. SNS, 메신저 활용(3.2%) - 취약계층 적극 지원(3.2%) - 다중이용시설 제도적 강력 금지 제도화(각 3.2%) 등

일자	국내 발생(명)	정부	서울시
'20.01.03.	-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 우한시 발 항공편 입국자 검역 강화 - 중국 보건당국,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우한 방문 또는 체류자 발열, 호흡기증상 시 1339 신고 당부	
'20.01.08.	-	· 국내 조사대상 첫 유증상자 발생 - 중국 국적 36세 여성 1명, 유증상자 분류되어 격리, 치료, 검사 실시 - 접촉자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시작(29명)	
'20.01.11.	-	· 첫 유증상자 PCR 검사 결과 음성 - 유증상자 및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
'20.01.13.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석·검사법 개발 착수	
'20.01.16.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대응 강화 -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 유증상자 신속한 사례분류,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절차(3판)' 배포('20.1.17.) - 각 시·도 대책반 구성,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 가동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PCR 검사 이관, 지역별 신속검사 가능하도록 계획	
stage 1 중국 유입,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20.01.20.	확진:1(+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 35세 여성(중국국적) 인천공항 검역과정 발열 등 유증상	· 서울시 확진자 최초발생 ※ 공식자료 기반 후향적 확진일자 재추정
'20.01.23.	확진:1(-) 확진:1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주의' 단계로 상향	
'20.01.24.	확진:2(+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두 번째 확진자 확인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근무자(55세, 한국인 남성), 김포공항 검역과정 유증상 확인 · WHO 긴급위원회 "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아니야"	· 서울시 '신종 코로나 방역대책 반 가동' 선언후 24시간 대응
'20.01.26.	확진:3(+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한국인(54세 남성), 1.20. 귀국 · 질병관리본부, 중국 전역 검역대상 오염지역 지정, 사례정의 확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사례정의 확대로 격리 및 감시대상자 큰 폭 증가	-
'20.01.27.	확진:4(+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후 귀국, 55세 남자 한국인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 보건복지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기능 전환	-
'20.01.28.	확진:4(-) ※미발표	·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대응체계 강화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추가 확대(1.28. 현재 288개 운영) - 1339 상담센터 상담 인력(27명→170명) 추가 확보 - 감염병관리병상 추가 확보 계획 수립(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 병원, 161 병실) - 민간의료기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가능 하도록 기술과 자료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수위 '보통→높음'으로 조정	· 보건소(25개), 시립병원(4개) 선별진료소 운영 · 격리병상 7개 상시 가동 준비 · 중국동포 밀집지역 임시 신고·지정 센터 지정 · 예방 등 시민 집중 홍보 안내 강화
'20.01.30.	확진:6(+2) 확진: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환자 2명 확인, 첫 2차 감염 사례 발생 - 우한 방문 후 귀국(32세 남자 한국인), 세 번째 확진자 접촉자(56세 남자 한국인)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 개최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등 범부처 총력 대응 · 민간 협력으로 진단 빠른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 구축·검증·평가 완료 - real time RT-PCR, 1회 검사로 확진, 6시간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1.31.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실시 · 의료기관 DUR, ITS를 통한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 중국 우한시 입국자 208명 전수 조사 진행 · 관광 위기관리TF 체계 구성 · 서울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매일 유튜브 생방송 실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이송지원반 확대 운영
'20.01.31.	확진:11(+5) ※미발표	· 우한교민 368명 1차 입국 , 유증상 18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역학조사 경과발표, 접촉자 자기격리 및 심층조사 시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기준" 안내 · 보건소 선별진료서 이동형 X-ray 장비 구매 188억원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자의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확산 사건 수사 의뢰 · WHO 현지시각 1.30. " 국제보건위기상황 " 선포	· 선별진료소 58개소 확대 - 시립병원 4개소 추가 - 서울의료원 응급실 유증상 전용응급실로 전환 - 이동 선별진료소 7개 설치 지원 · 역학조사단 4→11명 확대 · 검사가능 강화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1.	확진: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관계부처 합동 확대 개편 - 중국 유학생, 여행자, 근로자 등 관련 방역 관리방안 범부처적 안건 논의 · 우한교민 333명 2차 입국, 유증상자 7명, 국립의료원 이송 ·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하는 고시가 법제처 검토 완료 	
	※미발표		
'20.02.02.	확진: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선별진료소 288개→532개로 대폭 확대 · 1339 상담인력 (1.31.)38명→126명(2.1.)→188(2.4.) 계획 · 우한입국 교민 총 701명 검체 채취 검사, 1차 입국자 1명 확진 -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56명 입소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종료 후 한 차례 더 진단검사 시행 	
	※미발표		
'20.02.03.	확진: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차관→장관)주재로 격상 ·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2.4.0시부터) ·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일시 중단 · 중국 전용 입국장 별도 설치, 특별입국절차 진행 - 특별입국절차: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거주지, 실연력처 확인 후 입국 허용 ·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 폐지,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 · 중국 유입 추정 9명, 일본 확진자 접촉 1명, 국내 2차 감염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 기금 자금 5,000억원 지원 - 금리 0.5%p인하 등 - 관광객 집중지역 방역소독 · 대외협력기금 2억원 지원 - 우한교민 격리 주변 지역 의약품 지원
	※미발표		
'20.02.04.	확진: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조기 진단위해 2.7.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1339, 129, 공단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포함 총 596명 상담 배치 · 우한지역 입국자 명단 서울시 송부, 소재 및 위치 파악 전수조사 협업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배포 - 중국 전 지역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 14일간 업무 배제, 등원 중단 권고 -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 16번째 환자, 태국 여행 후 확진(태국 정부 확진자 관련 자료 공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버스, 택시 감염 예방 본격 돌입 - 대중교통 대대적 방역 · DDP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 방역 매주 실시 - 열화상 카메라, 세정제 등 배치
	※미발표		
'20.02.05.	확진:19(+3) 완치: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번째 환자, 확진자 중 처음 퇴원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바이러스 분리 성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 BetaCoV/Korea/KCDC03/2020 - 유전정보 공개,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 · 국립보건연구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착수 · 중앙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와 마스크 수급 대책 마련 · 국민 정보 제공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홈페이지 개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ncov.mohw.go.kr - 일일 브리핑,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팩트 체크, 대응지침, 홍보자료 등 신속 제공 ·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일본 직원 사칭에 대한 수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업소 802곳 집중점검, 확산 차단 - 3개 시장 75명 투입, 선제적 점검 - 야생동물 등 취급여부 점검 - 1개 시장 방역·소독 실시
	확진:7		
'20.02.06.	확진:23(+4) 완치: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코로나 대응 논의 · 마스크·손소독제 등 수급안정화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 - 마스크·손소독제 생산, 도매업자 출하·판매시 정부 신고 의무 부여 · 정부, 민간후원 연계, 마스크 15만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후원 ·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유증상자 4단계 고강도 검역체계 가동 - 검역조사→선별진료→시설격리→진단검사, 확장형 검역 시스템 최초 가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대응절차 5번 개정), 검사기관 확대 · 첫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131개 대학로 소극장, 71개 문화시설 특별방역 · 확진자 다중이용시설 이동 동선 지도 서비스 제공 준비 · 확산 방지 위한 개선방안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 7개 건의 5개 반영, 2개 추진중
	확진:10		
'20.02.07.	확진:24(+1) 완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 검사 대상 확대, 의사환자 검사비 지원 -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의사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되는자 - 확진자·의사환자로서 진단받은 경우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 · 선별진료소 556개소로 확대, 1일 검사 가능 건수 3천여건 정도 · 위험성 큰 집단 대상 우선순위 평가하여 검사대상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격무시설 2.8부터 운영 - 자가격리자 중 독립생활 어려운자 대상 - 서울시 인재개발원 활용
	※미발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8.	확진:24(-) 완치: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17개 시도와 확산 방지 대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시설·병상·인력 등 운영계획 논의 ·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 위해 법률 근거 관계부처 협의·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0,000원 지급 - 유급휴가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 지급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표준 소독 수행 지침, 각 부처와 지자체 배포 · 국내 초기 방역 신속 조치로 다수 경증, 전파 속도 메르스 비해 빠른 편 	
'20.02.09.	확진:27(+3) 완치:3(+1)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입국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가진단 앱' 사용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11. 시범운영, 2.12. 이후 시행 · 지자체 총력 동원 태세, 보건소 방역활동 집중 체계 구축 · 환자 조기발견 위한 진단검사 물량 대폭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말까지, 1일 만 건의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확충 · 다수 환자 발생 대비 병상·인력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압)1차 국가지정 198 병상 활용→2차 공공병원 및 군병원, 일반 종합병원 활용 - (인력)10개 즉각대응팀→30개,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 개선 - (치료)국립중앙의료원 주관 "중앙임상TF", 표준적 치료방법 권고안 수립 	
'20.02.10.	확진:27(-) 완치:4(+1)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국내 크루즈선 입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336명 중 70명 양성(2.9. 기준) · 11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 2회 연속 음성 확인, 퇴원 	· 자가격리자 8명, 서울시 인쇄 개발원 입소
'20.02.11.	확진:28(+1) 완치:4(-)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 홍콩·마카오 오염지역 지정, 검역 강화 밝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국 외 환자 발생 6세 지역, 여행 최소화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중국 후베이성 철수 권고(3단계), 그 외 중국 지역 여행자제(2단계) · 중국 외 감염 확인 국가 여행이력 정보 의료기관, 약국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 DUR 통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신종코로나 8개 언어로 상담 안내 · 서울시, 공행버스 김화은행 승인
'20.02.12.	확진:28(-) 완치:7(+3) 확진:10 완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한교민 147명 3차 입국, 유증상자 5명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간 임시 생활시설 국방어학원에 입소 ·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 권고 지침 마련·시행 ·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 확대(홍콩, 마카오), 자가진단 앱 설치 · WH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 "COVID-19" 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 코로나, VI:바이러스, D: 질환, 19: 2019 의미 · 3번째, 8번째, 17번째 환자 증상 호전 및 2회 검사 음성, 퇴원 · 국내 분리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양, 진단·치료·백신 개발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대처(검체) 조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동선 6개소 긴급점검 - 향후, 확진자 동선 내 다중 이용시설 조사 확대
'20.02.13.	확진:28(-) 완치:7(-)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지자체 중심의 자가격리 관리 강화, 격리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일 15개 시·도 17개소 766실 → 2.12일 16개 시·도 19개소 864실 · 진단 시약 생산 확대, 검사기관 확충, 1일 5천명 수준 검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민간기관 46개 · 중앙임상TF, 코로나19 임상연구 기반 진료권고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에 생필품, 주거비, 생계비(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피해 회복능가 지원 캠페인
'20.02.15.	확진:28(-) 완치:9(+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한교민 1차 입국자 366명(확진자 2명 제외) 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전 증상 발생 대처요령, 건강관리, 단기숙소 및 일자 등 교육 - 희망 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 분산하여 이동 예정 · 2.17.부터 입원·격리자들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접수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1.29.부터 심리지원 실시 - 국가·영남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유선 상담, 고위험군 선별 치료 연계 · 7번째, 22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결과 2회 연속 음성,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 관광시장 조기 회복 중 합대책 발표 · 2.14. 코로나19 극복 위한 관광업계 간담회 개최
'20.02.16.	확진:30(+2) 완치:9(-)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확진자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입사례(57.1%), 국내 감염사례(35.7%), 전파 경로 조사중(7.1%) - 임상 증상 경미 또는 비특이적, 발열, 인후통 호소가 각 32.1%로 가장 많음 - 입원 후 영상검사상 폐렴을 보인 환자는 64.3%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16.	확진:30(+2) 완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소견에 따른 진단검사 확대, 환자 조기발견, 사회 감시체계 구축 ·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보호 조치 강화 · 지자체 자가격리자 업무 전담관리, 접촉자 격리 시설 23개소, 872실 확대 ·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 · 중국 입국 유학생 7만여 명 14일 자가격리 등 보호·관리 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 사업장 방역 및 어려움 겪는 사업장 고용안정 적극 지원 	
	※미발표		
'20.02.17.	확진:30(-) 완치: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대상 중국 등 여행력 있는 종사자·간병인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2.17.~2.18.) 여행이력, 업무배제, 폐렴환자 여부 등 점검 ·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증 병원체 감시체계 코로나19 검사 추가 실시, 참여 기관 확대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긴급 연구과제 공모 시작 ·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등, 대학 체계적 관리 지침 배포 · 한·일 보건부 장관, 코로나19 상호협력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환지원, 이송방안 협의 - 코로나19 양국 현황 및 방역대책 정보 공유, 향후 협력방안 논의 · 28번째 환자 완치하여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에 긴급혈액 나서 ·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러스 총 3,208명 확산예방 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업소 1,403개 전수조사 - 취약계층 수시 모니터링 - 취약계층 마스크, 세정제 전달, 감염예방 교육 실시 · 방역조사 안전 '클린존 마크'
	확진:12 완치:3		
stage 2_대구·경북 중심 지역사회 전파 확인			
'20.02.18.	확진:31(+1) 완치: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번째 환자 발생(59년생, 대구), 외국 방문 이력 없음 · 12번째, 14번째 환자 증상 호전으로 격리해제, 퇴원 ·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구입비 65억 62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클린시장 운영, 피해 기업 지원 등
	※미발표		
'20.02.19.	확진:51(+20) 완치: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20명, 18명 대구·경북, 15명 31번째 확진자(신천지) 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진료소 거침없이 3차 의료시설 직행, 대구·경북 지역 내 다수 응급시설 폐쇄 - 당일 기점으로 국내 확진자 수 폭증 시작 ·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어려움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메르스때도 시행한바 있으며, 청구확인만 거쳐 10일 이내 90% 조기 지급 · 일본 크루즈선 7명 이송, 14일간 임시생활시설 격리 생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국민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 총 7명 - 김포공항 검역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격리 생활 시작 ·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의료계 협조 요청 · 6번째, 10번째, 16번째, 18번째 환자 완치되어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확진자 첫 발생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공영차고지 방역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관리 29개 공영차고지 내 주차장 주1회 소독 - 천만 시민과 운전자 감염 예방
	확진:13 완치:5		
'20.02.20.	확진:104(+53) 완치:16(-) 사망: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사망자(청도 대남병원 관련) 발생, 신규 확진자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 · 정부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9명, 중앙사고수습본부 6명 등 현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선별진료소 8개 추가(14→22개소),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 예정 · 지역사회 전파 확인, 진단기관 46개→77개 추가 확대 · 서울지역 확진자, 선별진료소 세차례 방문했으나 검사 거부 · 제주 지역 대구 휴가다녀온 군인 확진 판정 ·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6판), 0시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 환자 의사·해외여행 경력 관계없이 의심될 경우 적극 검사 시행 ·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예방법에 따라 손실 보상 구체적 기준 등 심의·의결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 설명회
	※미발표		
'20.02.21.	확진:204(+100) 완치:17(+1) 사망: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최초 확진자 발생 · 대구·경북 지역 병상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음압 9개 병원 50병실 확보, 향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병상 확보 ·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코로나19 전수 검사 실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수행 민간 의료기관 4개소 추가 지정,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 · 청도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 실시 · 정부,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 ·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준비 · 대구지역 전체 학교, 3월 1주 개학연기 협의 완료 ·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성모병원 관련 서울시 확진자 최초 발생 ·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코로나19 격리자 8명, 21일 퇴소 · 서울시, 의심증상 시민까지 확대하여 지역감염 차단 노력 · 간강추위계층 복지시설 방역관리 총력 · 중국입국 유학생 픽업·임시거주공간·모니터링 전방위 지원
	확진:19 완치:6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2.	확진:433(+229) 완치:18(+1) 사망: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약 9,336명) 모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36명 중 1,261명(13.5%) 유증상 응답 - 2.7. 1차, 2.14. 2차 발병 추정, 종교 모임 내 지속 전파 시사 · 청도 대남병원 종사자 및 환자 전수조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256명 중 111명 확진(사망자 2명 포함, 의료진 9명, 환자 102명) 확인 	
'20.02.23.	확진:602(+169) 완치:18(-) 사망:6(+4)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 대비,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발령 통해 적용 - 해외 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정책,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 전략 추진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로 격상 ·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 최소 2주간 자율 외출 자제, 이동 제한, 증상자 신속 검사 - 빠른 치료 위한 전담병원 병상·인력 확보 계획 · 지역별 코로나19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환자 음압병상, 경증환자 전담병원 등 병상·인력 확보 계획 · 경주시 40대 남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일상 감염자 중 최초 사망 발생 · 서울 은평성모병원 사례 중심 조사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병원 내 2명의 확진자 발생 · 복지부 장관, 대구·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긴급 간담회 개최 	
'20.02.24.	확진:833(+231) 완치:22(+4) 사망:8(+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 한층 전원 확진판정(113명) · 서울 은평성모병원 간병인 근무자 확진 판정 · 대구, 경북지역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 적극 실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4.09시 기준, 대구 지역 환자 446명, 경북지역 환자 186명 -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의료인 봉사자 모집 ·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개학 연기(3.1.→3.9.) · 개인정보 유출·확산 엄중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7대 선제적 대응책 기동 ·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관리비 감면 ·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총 1,700개 참여자 모집 · 코로나19관련 서울시 안전판리위원회 ·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20.02.25.	확진:977(+144) 완치:22(-) 사망:11(+3)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지역 병상·인력,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물량 지속 확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 협조 받기로 합의 ·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조기 지급 특례, 인력·시설 신고 유예,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 대상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여행 이력, 업무 배제, 입원 환자 폐렴 증상 여부 등 · 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코로나19 유행지역 관련 대국민 행동 수칙 배포 · 코로나19 총력 위한 공공 2부제 일시 중단 · 1회용품 규제 제외 적용, 지자체별 탄력적 운용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성모병원대책본부' 구성(총 40명, 전원 검사 및 병원 내 집중구역 등 감염 차단 조치 · 코로나19 관련 종교계 지도자 긴급회의 · 신천지예수교 267개소 점검 188개 폐쇄방역 집회금지 명령 · 확인불가 66개소 합동점검 · 재보 등을 통한 주·적 한동점점 폐쇄시설 집회·종교활동 적발 시 법적 조치 · 집회금지 위반 범투본 고발조치
'20.02.26.	확진:1,261(+284) 완치:24(+2) 사망:12(+1)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3.1.까지 전담병원 외 인근 지역병상 포함 총 1,600개 병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대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 논의 · 대구 의료인 봉사자 현 205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 · 신천지 약 21만 2000명 전체 신도 명단 확보, 지자체와 전달 ·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및 시행 · 1차 '국민안심병원' 91개 의료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환자 병원 방문·입원 모든 진료 과정, 다른 환자와 분리 진료 병원 -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 신청 · 코로나19 밀접접촉 방지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2.27.~3.8.) ·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 · 경기도 고양시, 최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에 탄 채로 검사 받는 것으로, 10분 만에 검체 채취 완료 ·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검사·입원 거부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성모병원에 이어 서울지하철 병원 상계백병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도심내 집회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장소 서울역, 효자동삼거리까지 확대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7.	확진:1,766(+505) 완치:26(+2) 사망: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의미있는 변이 발견 못해” · 중앙임상위원회,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 의료자원 운영 필요 · 경북지역 음압병상 26개, 전남 총 811병상 확보 계획 · 대남병원 치료중인 정신질환자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송 ·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 시행 · 2.27. 기준 총 127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 코로나 19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 국방부,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동참 · 외교부, 우리 국민 입국 제한 또는 여행 제한 조치 외교력 적극 투입 대응 ·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및 돌봄 공백 대응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대비 광화문세종대로 집회차막 철거 · 서울시, 종교시설 방역강화 위한 예산 긴급지원
	확진:59 완치:9		
'20.02.28.	확진:2,337(+571) 완치:27(+1) 사망: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관 협력 백신·치료 개발 추진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 모범사례 표준운영모형 마련 · 신천지 전체 국내 신도 194,781명 중 53.7% 확인, 유증상 1.4% ·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 19 확진자 60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 · 코로나19 긴급 대응 위한 재난 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 2.28. 기준 총 174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집단발생 확진 증가 · 서울시 신천지 28,317명 전수 조사, 유증상 217명, 고위험군 3,545명 ·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 · 서울시와 일부 민간병원 음압 병상 부족사태 대응 · 코로나19 피해자원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 서울 지하철 총력다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 · SNS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확진:65 완치:9		
'20.02.29.	확진:3,150(+813) 완치:30(+3) 사망: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893개 병상 사용중, 3.5.까지 1,000여개 병상 확보 예정 - 검사 인력: 공중보건의 165명, 간호인력 10명 지원/군 운전인력 61명 지원 - 전담병원 인력: 의사 50명, 간호인력 68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 · 경북지역 전담병원 지정, 환자 소개로 950병상 확보 - 검사 인력 의사 9명, 청도 대남병원에 간호인력 46명 지원 · 신천지 전수 조사 88.1% 완료, 1.9%(3,381명) 유증상 	-
	※미발표		
'20.03.01.	확진:3,736(+586) 완치:30(-) 사망: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중 대구 2,569명, 경북 514명, 경기 84명, 서울 82명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 건강취약계층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히 -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 국민안심병원 214개 지정 	-
	※미발표		
'20.03.02.	확진:4,212(+476) 완치:31(+1) 사망: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등 밝힘 -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강화, ▲신속대응위한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 ▲주요 감염병 예방·상시 관리 강화, ▲코로나19 사후 평가 및 과제 지속 발굴 등 · 대구·경북 경증환자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작(대구1 센터 개소) · 대구·경북 등 진료·방역 종사 의료인의 보호장구 지속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 진료소’ 4개소 운영 · ‘보건소 선별진료소’ 50개로 확대 · 박원순 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제안 · 은평성모병원, 서울제할 병원 지속 조치
	확진:92 완치:13		
'20.03.03.	확진:4,812(+600) 완치:34(+3) 사망: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신천지 전수조사 49.6% 완료, 양성판정률 62% · 코로나19 대구 진단검사 우선순위 변경 ‘신천지신도→일반시민’ · 대구1 생활치료소 경증 확진자(138명) 입소 시작 · 환자 중증도 따라 분류하여 병상 배정, 입원치료 병상 지속 확보 · 중대본 1차 손실보상위원회 회의 개최(2.17.구성) · 대구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발생,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모집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036명, 사망자 52명 증가, 이란 총 확진자 2,336명, 사망자 77명 등 해외 확진자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공백, 긴급돌봄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20만 개 지원
	확진:98 완치:15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04.	확진:5,328(+516) 완치:41(+7) 사망: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 ·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 102명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중자 33명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전원, 29명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원, 33명 대남병원에 남아 코로나19 치료 ·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 첫코로나19 완치, 정신질환자 진료지침 확정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254개 지정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502명(+446명) 3월 15일까지 학교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구 교회·PC방 관련 확진자 첫 발생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발족 · 코로나19 2차 격리시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추가 지정 · 대구 장애인 시설 확진자 5명 시립병원 입원 지원
	확진:99 완치:26		
'20.03.05.	확진:5,766(+438) 완치:88(+47) 사망: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의료복지시설 푸른요양원 47명 집단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2명 확진 포함 총 49명 확진자 발생 · 경기도 분당제생병원 관련 확진자 첫 발생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경북 경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신천지 신도 확진자 중 절반가량 거주(135명), 지역 내 2차 감염 및 집단감염 사례 나타나고 있음 · 대구·경북 3개 생활치료센터 584명 경증환자 입소 · 공중보건의 742명 조기입용, 대구·경북 470명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스트레스·불안' 심리상담
	확진:105 완치:26		
'20.03.06.	확진:6,284(+518) 완치:108(+20) 사망: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한마음아파트 46명 확진자 발생, 코호트 격리 · 치료역량 높은 상급종합병원 등 100여개 기관 중심 음압병상 확충 추진 · 대구·경북 6개 생활치료센터 756명 경증환자 입소 ·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등과 함께 격리자, 가족, 의료인 등 전방위 심리지원 · 국민안심병원 290개 지정 · (해외)전 세계 감염자 10만명 돌파, 중국(80.6%), 한국(6.5%), 이란(4.7%), 이탈리아(3.8%) 순 · (해외)이탈리아 일 확진자 796명, 이란 1,234명 증가. 유럽 및 미국, 일본 등지에서 지속 증가 추세 	-
	확진:106 완치:26		
'20.03.07.	확진:6,767(+438) 완치:118(+10) 사망:4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생활시설 예방적 보호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3.1.) 경북(3.5.) 생활 시설 코호트 격리조치 시행 - 전국 요양병원 추가 전수조사 시행(3.12.까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감염병 예방지침 시행 · 대구·경북·천안 8개 생활치료센터 1,110명 경증 환자 입소 · 국민안심병원 303개 지정 · 대구시 사회복지서비스원 격리 등 돌봄 필요한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실시 	-
	확진:112 완치:26		
'20.03.08.	확진:7,134(+367) 완치:130(+12) 사망:50(+6)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충남·충북 지역 10개 생활치료센터 개소, 1,180 입소 · (해외)이탈리아 총 확진자 5,883명(사망자 233명), 롬바르디아 및 북부 14개 주 4월 3일까지 봉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운동 '잠시멈춤' 확대
stage 3_국내 수도권 중심 취약집단 집단감염 증가 / 해외 확진자 급증, 중국 외 국가 유입 확산세			
'20.03.09.	확진:7,382(+248) 완치:166(+36) 사망: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 증가(서울 35.1%, 경북 28.1%, 대구 17.9%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 방문 속임, 격리 상태이나 외부 활동 하는 등의 사례 지속 발생 영향 · 대구·경북 지역 확산세 둔화, 천안시 운동시설, 경로당, 노래방, 병원 등 집단발생 증가 · 대구·경북지역 치료 병상 확보, 생활치료센터 개소 등 조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치료센터 총10개소, 1,663명 경증환자 입소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작 · 이탈리아, 이란, 일본 급증세로 이란 교민 귀국 지원 결정 · 일본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운영 시작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7,375명, 사망자 366명으로 높은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 · 자차구 역학조사 강화, 시 차원 '즉각대응반' 지원 강화 · 신천지 법인 현장 실태조사 · 시청 등 재택근무(SVPN 확대) 기반 구축
	확진:130 완치:29		
'20.03.10.	확진:7,513(+131) 완치:247(+81) 사망: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 본격화 ·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 2,071명 경증환자 입소 · 개학 연기로 인한 긴급돌봄 조치, 요양병원 지속 현장 점검 · (해외)전 세계 109개국 확진자 11만4천여명, 치명률 3.52%(4,029명)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9천명대, 한국보다 확진자 많아짐. 스페인 확진자 급증으로 1,650명, 사망자 35명 · (해외)WHO 전세계 국가 4가지 유형화(미발생국/발생국/집단감염 발생국/지역사회감염 발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콜센터 긴급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 구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직원 및 가족 등 집단 확진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 · 「재난 긴급생활지원」 정부 건의 · 약국 마스크 판매 일손 지원
	확진:156 완치:30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11.	확진:7,755(+242) 완치:288(+41) 사망:60(+6) 확진:205 완치: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구로 콜센터, 대구 콜센터 등 확진자 지속 발생 ·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마련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운영 · 국민안심병원 312개소 지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생활치료센터 13곳, 2,358명 경증환자 입소 · 코로나19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 · (해외)미국(1,075명) 및 스페인(2,115명) 확진자 대량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콜센터관련 65명, 해외접촉 17명, 은평성모관련 14명 등 · 취약계층 마스크 1만장 지원
'20.03.12.	확진:7,869(+114) 완치:333(+45) 사망:66(+6) 확진:219 완치: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질병 경계 수위 최고단계인 팬데믹 선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 · 특별입국절차 대상 5개 국가 확대, 총 11개 국가 실시 - (현)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추가)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 14개 생활치료센터 2,470명 경증환자 입소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12,462명, 사망자 827명, 전국 봉쇄령 · (해외)미국 영국 제외 전 유럽 여행 30일간 금지, 유럽 각국의 방역 대응방식 급변, 국가별 확진자수 폭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긴급지원 사업 추진 - 알바 끊긴 청년 월50만원 청년수당 제공 등 · 시민에 온라인 무료 공연 제공
'20.03.13.	확진:7,979(+110) 완치:510(+177) 사망:67(+1) 확진:231 완치: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약20여명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 · 신천지 신도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전수 진단 검사 계획 발표 ·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 보조금 290억 원 지급 · 금융당국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구 교회·PC방 집단감염 확인 ·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자원로봇 도입 ·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 서울시 쪽방촌 전 세대에 긴급 구호품 지원 · 25개 자치구 모든 임산부에 마스크 총29만매 지급 ·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
'20.03.14.	확진:8,086(+107) 완치:714(+204) 사망:72(+5) 확진:244 완치: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청사 방역관리 강화 ·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 시행 · 대구·경북지역 등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 추진현황 점검 - 대구·경북의 생활비지원, 유급휴가비 지원 현황 등 · (해외)프랑스 16일부터 프랑스 내 모든 교육기관 휴교령 · (해외)미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감염질환 인해 '09년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 	
'20.03.15.	확진:8,162(+76) 완치:834(+120) 사망:75(+3) 확진:248 완치: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 이후 23일만에 확진자 수 100명 이하로 내려감 	
'20.03.16.	확진:8,236(+74) 완치:1,137(+303) 사망:75(-) 확진:254 완치: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일일 확진자 40명 이상 집단감염 발생 보고 · 격리해제율 8.8%, 치명률 0.91%, 약 80.7% 집단발생과 연관 ·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발표 - 건강보험지원 강화, 코로나 치료 필수비용 신속지원, 의료기관 응자 지원 등 · 생활치료센터 16개, 2,620명 경증환자 입소 · 특별입국절차 유럽발(發) 모든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 (현)11개 국가→(확대)아시아5개국+유럽발 항공노선 전체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만4천여명, 스페인 8,744명, 전세계 치명률 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 시민 71.4% 찬성 · 돌봄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 제공 · '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
'20.03.17.	확진:8,320(+84) 완치:1,401(+264) 사망:81(+6) 확진:267 완치: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43명' vs '대구·경북 37명' 확진자 발생 역전, 수도권 방역 강화 · 전국 유·초·중·고 4월 5일까지 2주 개학 연장 ·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 - (현)아시아5개국+유럽발 항공노선 → (확대)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취약계층 마스크 1만5천여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치료시설 1,800병상 확보 · 서울시, 복지예산 요양보호사에 마스크 6만8천매 지원 · 집단감염 높은 사업장 시민제보, 불이익 노동자 구제 등 · 신천지교 서울내 2개 지파 본부 종합행정조사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18.	확진:8,413(+93) 완치:1,540(+139) 사망:8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 확진, 집단감염 발생 · 코로나19 추경, 대구·경북 지원 1조394억원, 감염병 대응 대폭 증액 · 보건복지부 추경 3조6675억 원 확정,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민생경제 지원 등에 투입 · 한국-WHO 코로나19 임상연구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개최 · 정부 코로나19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 (해외)세계 총 감염자 20만명 돌파, 중국 40.4%, 이탈리아 15.7%, 이란 8%, 독일 5.1%, 대한민국 4.2% 순 · (해외)이탈리아 25일만에 누적 확진자 3만 넘어, 2,503명 사망 · (해외)국가별 경기부양책, 국민 지원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접촉자 중심 확진 증가 · 서울시 전국 최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
	확진:270 완치:55		
'20.03.19.	확진:8,565(+152) 완치:1,947(+407) 사망: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만에 확진자 100명대 진입, 대구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에 의한 증가 · 총 확진자 8,565명, 격리해제 1,947명, 사망자 91명, 치명률 1.06% ·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 · 이란 재외국민 귀국 지원, 방역 및 의료지원 대책 논의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3만5천여명, 이란 1만8천여명, 프랑스·미국 9천여명 · (해외)보건의료체계별(공공vs민간주도) 감염병위기 대응 역량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안) 8,619억원 편성, 117.7만 가구 재난 긴급 지원 · 다산콜센터 공공콜센터 최초 원격 재택근무시스템
	확진:282 완치:58		
'20.03.20.	확진:8,652(+87) 완치:2,233(+286) 사망: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대실요양병원(64명), 경북 서요양병원 관련(30명) 등 다수 집단감염 발생 · 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유럽발(發)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 (해외)총 사망자수 10,000명 이상, 이탈리아 34%, 중국 32.5%, 이란 12.8%, 스페인 8.3%, 프랑스 3.7%...잠정 치명률 4.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중증응급 진료센터' 9개소 지정, 유증상 중증환자 즉각 진료
	확진:300 완치:64		
'20.03.21.	확진:8,799(+147) 완치:2,612(+379) 사망: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교민 귀국(80명), 유증상자 2명, KOICA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시작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15일간 운영 중단 권고 	
	확진:324 완치:64		
'20.03.22.	확진:8,897(+98) 완치:2,909(+297) 사망:1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발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재유입 막기 위한 조치 강화 - 음성이어도 14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통해 사후관리 진행 · 복지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 · (해외)총 확진자 4일만에 20만→30만 돌파, 중국(27%), 이탈리아(17.8%), 스페인(8.4%), 독일(7.8%), 미국(7.5%) 순, 한국(2.9%)은 8번째 · (해외)이탈리아 총 확진자 53,578명, 사망자 4,825명, 잠정 치명률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강행 의사 밝힌 2,209개 교회 현장 점검, 예배 중지 요청 및 7대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 점검
	확진:324 완치:64		
'20.03.23.	확진:8,961(+64) 완치:3,166(+257) 사망: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확진자 64명 중 해외유입 14건(21.9%), 유럽·미주 유입 사례 지속 발생 · 중대본 정례브리핑 비대면 방식 전환,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 유럽발 입국자 유증상 152명 격리시설, 무증상 1,290명 임시생활시설 입소 · (해외)전 세계 확진자 전일대비 10.66% 증가, 치명률 4.49% · (해외)이란 중남미 등 코로나19 진단 키트 요청 및 한국 대응법 공유 요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종교집회 및 감염병 고위험사업장(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점검 및 중단 권고
	확진:330 완치:64		
'20.03.24.	확진:9,037(+76) 완치:3,507(+341) 사망:1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확진자 76명 중 해외유입 22건(28.9%), 유럽 18건, 미주 4건 등 · 중대본, 지자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지속 실시 · (해외)중국 신규확진자 78명 중 74명 해외 역유입, 역유입 대책마련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입 지속 증가, 미국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검토 · 서울시,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지원
	확진:336 완치:72		
'20.03.25.	확진:9,137(+100) 완치:3,730(+223) 사망:1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확진자 100명 중 해외유입 51건(51.0%), 유럽 29건, 미주 18건, 아시아 4건 등 · 3.27.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방안 발표 · 저소득층 230만 명 이동 263만 명 노인발자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쿠폰 지원 · 전국 835만명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지정, 월 건강보험료 50% 3개월 간 지원 · 코로나19로 운영 어려운 의료기관 위해 총 4,000억원 규모 융자 추진 · (해외)미국 27일만에 확진자 5만명 넘어 새로운 전진지 오명 10대 사망자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교회) 확진자 발생 · 서울시 8619억원 추경 사업회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긴급 수혈 '열혈의 약속' - 신용공급확대 및 절차 혁신
	확진:348 완치:72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26.	확진:9,241(+104) 완치:4,144(+414) 사망: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확진자 104명중 해외유입관련 39건(유럽25, 미주11, 아시아 3) · 검역강화 위해 인천공항 옥외 위생소 설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강화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실용화 연구 가속화 · 개학연장 지속적인 논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생활방역 전환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활안정 지원 대책 속속 발표 · (해외)이탈리아 일 사망 743명, 총 7,503명 사망, 치명률 1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구로콜센터 확진자 160명(콜센터 건물 97명, 접촉자 63명), 수도권 내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 신청, 총117만7천가구에 온라인 5부제, 찾아가는 접수 등으로 신속 지원 계획 · 서울시, 산천지 법안허가 취소
	확진:361 완치:81		
'20.03.27.	확진:9,332(+91) 완치:4,528(+384) 사망:1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제이미주병원 62명 집단감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대실요양병원과 동일 건물, 26일 1명 확진 후 직원 72명, 환자 286명 전수조사 결과 61명 추가 확진 판정 받음 · 미국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 87명 공항내 진단검사 후 임시대기시설 대기, 무증상 1,207명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생시 즉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장부, 만 7세 미만 자를 둔 200만 가구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 학원, 종교시설 등 휴원 지속 권고 및 사회적거리두기 이행 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 WHO에 한국 방역 대응 현황과 경험 공유 · 장부, 코로나19 연구 자료·심평원 청구료 및 연구 성과 등 국제 공개 방안 마련 · (해외)총 확진자 50만명 돌파, 중국 16.2%, 이탈리아 14.88%, 미국 14.8% 등 	
	확진:376 완치:88		
'20.03.28.	확진:9,478(+146) 완치:4,811(+283) 사망:1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 완치자가 확진 격리자 넘어서는 2차 골든 크로스 나타남 · 대구소재 6개 병원 총85명(제이미주 74, 기타 11)확진됨, 대구시 요양병원 두차례 재검, 대구소재 정신병원 전수조사 결정 ·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 · 방호복 및 방역물품 국내 생산 기반 확대 계획 · (해외)총 확진자 60만명 돌파, 미국 17.4%, 이탈리아 14.4%, 중국 13.5% 등 · (해외)미국 확진자 총 104,463명, 사망자 1,702명, 확진자 10만명 돌파한 첫 번째 나라, 뉴욕 주 44,876명으로 절반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교회) 3월 25일부터 현 재까지 7명 확진자 확인, 접촉자 조사중(교회 4명, 가족 등 접촉자 3명)
	확진:391 완치:93		
'20.03.29.	확진:9,583(+105) 완치:5,033(+222) 사망:1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41건(39%), 누적 412건(유럽 235, 미주109 등) · 보건복지부, 전국 약 200만 가구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 (해외)이탈리아 총확진자 92,472명 사망자 10,023명 최초 사망자 1만명 넘음 · (해외)미국 확진자 12만명 넘음, 사망자 이탈리아에 두배 증가, 2천명 돌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세계 45개 주요도시 시장들과 '코로나19 공동대응 화상회의' 서울의 노하우 공유
	확진:413 완치:93		
'20.03.30.	확진:9,661(+78) 완치:5,228(+195) 사망:1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전원 14일 원칙적 격리 실시 · 심평원 세계 확산 대응 돕기위해 국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공개 · (해외)전 세계 확진자 60만 넘은지 이틀만에 70만명 넘어, 미국(18.7%)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5인 미만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관광업 100억원 지원 등
	확진:434 완치:92		
'20.03.31.	확진:9,786(+125) 완치:5,408(+180) 사망:1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최초 초중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4.9.이후 순차적 온라인 개학)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 연장, 긴급보육 이용률 증가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 이탈리아 교민(530명)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 도착 예정(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로 매 출금감·임대료 이종고 겪는 임차인지원 위한, '착한 임대인' 선정등 다양한 지원 발표
	확진:454 완치:107		
'20.04.01.	확진:9,887(+101) 완치:5,567(+159) 사망:16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0시부터 모든입국자 14일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휴원연장, 아동 긴급보육 이용률 등 점검 ·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3차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 외출 자제, 모임종교행사 불참 92.3% · (해외)유럽 코로나19 이탈리아 주춤, 프랑스·스페인서 기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2일만에 첫 지급 완료 · 치매돌봄 등 비대면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속 제공 · 청년 상인이 만든 도시락 취약계층 전달 ·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확진:478 완치:117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02.	확진:9,976(+89) 완치:5,828(+261) 사망:16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발생 약 83.3%는 집단발생 연관성 확인, 기타 조사·분류 중 사례 10.7%, 해외유입 사례가 6.0% · 국내 코로나19 사망 대구 117명, 경북 41명, 경기 6명, 부산 3명, 울산 1명, 강원 1명으로 대구·경북에 집중(93.5%) · 경기도 전체 확진자 중 약 50%는 교회, 콜센터,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최근 의정부성모병원의 환자 발생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임시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그 직계 가족 총 309명 4월 1일 1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등 국내 자체 백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 투자, 10년간 2천151억원 지원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현장 적용을 위한 임상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10명 중 9명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인식, 서울시 대처 긍정평가 80.5% · 종합운동장 대규모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해외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14만2369명, 25명 지급 완료 · 서울시, 교육청·자치구 협력하여 노트북 5만2천여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총150억원 규모 '코로나19 특별응답' 지원
	확진:494 완치:127		
'20.04.03.	확진:10,062(+86) 완치:6,021(+193) 사망: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확진자수 1만명 초과, 첫확진자 발생(1.20.) 이후 74일만 · 대구 지역사회전파 시작 이래로(2.18.) 45일만에 일일 확진자 10명 미만 · 경북 경산시 60대 개원 내과 의사 사망, 국내 첫 의료진 사망자 발생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원칙 마련, 건보료 합산 소득하위 70%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준비완료, 4.13.부터 지급 ·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의도 윤중로 버스노선 임시 우회, '벚꽃축제 보다 잠시 멈춤' ·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 서울시, 코로나19 'AI 모니터링 콜시스템' 도입
	확진:513 완치:131		
'20.04.04.	확진:10,156(+94) 완치:6,325(+304) 사망:17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잠정 완치율 62.27%(50% 돌파 일주일 만), 잠정 치사율 1.72% · 중대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4.19.까지) - 목표: 일 확진자 수 50명 수준, 감염경로 알 수 없는 사례 5% 이하로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증상 해외입국자 검사 강화, 자가격리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외국인관광택시' 투입해 특별수송
	확진:533 완치:144		
'20.04.05.	확진:10,237(+81) 완치:6,463(+138) 사망:1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 코로나19 상황가운데 의료인력 안전한 환경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 마련·시행 · 해외입국자 GIS 통합상황판 통해 다중 감시체계 구축,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 감염병예방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4.5 시행) 부과 	
	확진:558 완치:145		
'20.04.06.	확진:10,284(+47) 완치:6,598(+135) 사망:1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치 후 재확진 사례 51건, 현재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판단 ·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호소, 국민 피로도 급증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 (해외)일 확진자 10만명 초과, 전세계 확진자 130만명, 미국 확진자 33만명, 사망 9,5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타격' 문화예술계에 총50억 긴급지원
	확진:563 완치:151		
'20.04.07.	확진:10,331(+47) 완치:6,694(+96) 사망:1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강행하던 서울시 유흥업소 확진자 발생 · 자가격리자 4만6천명, 75명 관련법 위반 사법처리 진행 중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제작 · WHO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코로나19 대응 경험 기조 발제 요청 · WHO 국가별 치명률 격차, 전염 확산 수준, 국가 내 주요 감염군, 의료 인프라, 검사 진행 수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첫 사망자 발생, 폐암 투병 구로 콜센터 가족 ·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확진:571 완치:164 사망:2		
'20.04.08.	확진:10,384(+53) 완치:6,776(+82) 사망: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술집(J바), 서래마을 술집(L바) 각각 1명, 3명 확진자 발생 · 일본, 동선 거짓진술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보건복지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방역 대응 경험 공유 · 고위험집단 방역강화, 학원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 ·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 (해외)미국, 코로나 확진자 40만542명(치명률 약 3.2%)...최대 발생지 뉴욕 사망자수 9.11 테러 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도 '잠시 멈춤' 지속 당부 · 서울시장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생업소 118명 전원 자기격리, 전수조사
	확진:581 완치:169 사망:2		
'20.04.09.	확진:10,423(+39) 완치:6,973(+197) 사망:2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사태 이후 신규확진자 51일만에 최저 수준, 그러나 재확진 사례 증가 · 국내 사망 204명(4.9.0시 기준)평균연령 77.4세, 203명이 기저질환자 · 국내 최초 온라인 개학(고3, 중3) · 일본, 유전자 변이 추적 지속, 의미있는 유전자 변이 발견되지 않아 · 단기 대량 검사 위한 "취합검사법" 프로토콜 제작, 집단 감염 선별 유용 · 코로나19 대응 손실입은 146개 의료기관 1,020억 원 개산급 지급 · (해외)전세계 확진자수 150만명 돌파,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한미미달무허가 영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 소형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10만여개 비치
	확진:592 완치:174 사망:2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10.	확진:10,450(+27) 완치:7,117(+144) 사망:208(+4) 확진:597 완치:18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 스페인 교민 4월 11일, 13일 두 차례 특별 항공편으로 인천 도착 예정 · 보건복지부, 3~5월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 외 지역 하위 40% 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30~50%) · 매칭서비스 통해 코로나19 진단도구 수출용 허가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의도 윤중로 버스 노선 우회...주말 한번 더 · 서울시, 시내버스 100% 방역...“에어컨 세척으로 코로나19 안심”
'20.04.11.	확진:10,480(+30) 완치:7,243(+126) 사망:211(+3) 확진:600 완치:19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격리 지침 위반자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하여 관리 방안 논의 ·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 개선방안 마련 · 단거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의무적 14일 격리(4.1.0시 이후), 현재 81.7% 입소 	
'20.04.12.	확진:10,512(+32) 완치:7,368(+125) 사망:214(+3) 확진:602 완치:202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확진자 나흘째 30명 안팎, 완치율 70% 넘어. 그러나 해외 유입, 재확진(111명) 사례 늘어나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 원칙 · 4.13.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4월 신규확진자 중 57%가 20~30대, 나와 추약자들 위해 '잠시 멈춤' 당부
'20.04.13.	확진:10,537(+25) 완치:7,447(+79) 사망:217(+3) 확진:610 완치:214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확진 현재 116명(4.13.0시), 누적 확진 중 약 1.1%(대구경북 다수) · SNS '사회적 거리두기' 키워드 정보량 최근 5일 사이 약 60% 감소 · 금주 후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 평가,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여부 논의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2차례 위반 60대, 구속영장 첫사례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약 230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돌봄포인트 지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알바 잃은 892명 청년수당(2개월 1인당 50만원) 조기지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규모 인력 투입 보증처리속도↑ · 서울시 코로나 블루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04.14.	확진:10,564(+27) 완치:7,534(+87) 사망:222(+5) 확진:613 완치:228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확진 124명(4.14.0시), 방역당국 바이러스 변이 관계 조사 · 美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 마련 · 일본 4.14.(화)부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참여희망기관 공모 · WHO 코로나19 특사, 마스크 착용 보편적 일상 될 것...1850년 콜레라 후 적응했던 혁명과 같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3월 감소했던 통행량 4월 증가추세,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 서울시, 주민참여형 마스크 생산단체에 MB필터 74만장 지원 · 집에서 박물관 체험...서울역사박물관 전시 온라인 VR서비스
'20.04.15.	확진:10,591(+27) 완치:7,616(+82) 사망:225(+3)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확진자 27명 중 11명 수도권, 재확진 지속 증가(133명)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발열체크, 손세정제 사용, 투표 대기 1m 거리두기, 투표 시 비닐장갑 착용 등 방역 철저 · WHO 기준 한국 코로나 위험 '3단계'로 내려와...‘총선 휴일’ 생활방역 전환 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서울시장, 이란 테헤란 시장 코로나19 대처·협력 방안 화상통화 · 서울시, 긴급경영안정자금·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상권살리기 노력
'20.04.16.	확진:10,613(+22) 완치:7,757(+141) 사망:229(+7) 확진:619 완치:250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확진 141명, 검사 오류, 죽은 바이러스 '조각' 가능성 두고 조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고액자산가 제외, '20.3월 기준 건보료 소득하위 70% 해당자 ·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생활방역 전환 가능성, 준비사항 등 논의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물질 국내 임상1·2상 진행 예정 · 질병, 코로나19 환자 혈액 및 배설물(노, 분변)을 통한 전파가능성 희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55만 돌파, 1인가구(36.2%), 40대(22.6%) 신청률 가장 높아 · 코로나19 마음 돌보는 온라인 캠페인 및 의료진 헌신 감사와 존경 블루라이트 캠페인 전개
'20.04.17.	확진:10,635(+22) 완치:7,829(+72) 사망:230(+1) 확진:621 완치:268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소 신규 확진자 11명(신규 확진자 중 50% 이상), 입국자들의 2주간 자가격리 수칙 철저한 준수 필요 ·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제 개발「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 · 국민연금, 위기대응 TF가동 등 코로나19 대응 · 생활방역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아프면 쉬다', '손씻기', '2회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 지침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97% 생활방역 전환 필요, 그러나 63.6% 아직 이르다, 통제 가능 대응체계 갖춰야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18.	확진:10,653(+18) 완치:7,937(+108) 사망:232(+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확진자 163명, 대구 41.1%, 재발까지 13.5일 소요, 무증상 52.6% 등, 2차 전파 여부 단정 못해 · 논산 훈련소 2명 확진자 발생(전날 포함 3명, 모두 신천지 신도), 집단감염 우려 · 4.1.~12. 해외입국자 일평균 3,611명, 20~30대 40%, 해외유학생 등 입국 지속 · 4.11. 1차 입국한 스페인 귀국 국민 39명 중 12명 유증상, 1명 양성 판정 	
'20.04.19.	확진:10,661(+8) 완치:8,042(+105) 사망:234(+2) 확진:624 완치:288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즉시 완화 국민 36.7% 동의, 63.3% 반대 · 중대본, 5월 5일 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불확실한 감염경로, 세계적 대유행 등 위험요인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 분산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등 - 일상 복귀 아닌,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등 · 보건복지부,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남미 국가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지하철 '코로나19' 제로 비결 알려달라, 남미 45개국 지하철 운영 협회 요청으로 화상회의 진행
'20.04.20.	확진:10,674(+13) 완치:8,114(+72) 사망:236(+2) 확진:624 완치:304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입 확진자 1,006명(4.20.0시), 20~30대 비율 높고, 지역 사회 감염 유도 확진자 6.1% 157명 확진자 발생 · 보건복지부 G20 화상 보건장관회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보건복지 분야 국제 공조 강조 · 코로나19 예방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 마련,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좌석 간격은 1.5m 이상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들 온라인 개학 · 교육부 5월 고3부터 단계적 등교 개학여부 다음 주 확정, 오늘 초1~3 온라인 개학, 접속장애 최대 고비 · 전 세계 확진자수 2,335,433명(치명률 7.02%), 전일대비 3.24% 증가(영국 5.12%, 미국 3.19%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글로벌 리더들과 '코로나19 화상 세미나' 서울시의 방역 경험과 노하우 소개 · 서울시, '코로나19 운영난' 어린이집 고용유지 위한 인건비 75억, 방역물품 63억 긴급지원 · 서울시 모든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근로자 2개월 최대 100만원까지
'20.04.21.	확진:10,683(+9) 완치:8,213(+99) 사망:237(+1) 확진:626 완치:31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발표, 후속 조치 원활한 추진위한 추진 체계 구축, 법령 개정 등 추진 · 공공 실외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제한적 개방 계획 · 교육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논의, 초·중·고 등교 시기·방법 5월 초 생활방역 전환 여부 연계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 원 ·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2,834개 임대시설로 6개월간 50% 감면 · 코로나19 기간 동안 3만여 노인에 맞춤형봉사서비스 제공
'20.04.22.	확진:10,694(+11) 완치:8,277(+64) 사망:238(+1) 확진:628 완치:322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경보 두달째 '심각', 정부 '하향 검토 안해' · 중화항체 형성 된 완치자 중 48% 코로나19 양성 반응, 바이러스 체내 잔류 기간 차이 등 추가 연구 진행 예정 ·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2회 정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 국제사회 협력 요청 체계적 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감염취약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비접촉식 체온계 6만5천개 지원 · 의료진 헌신에 감사하는 블루라이트 캠페인 참여 잇따라
'20.04.23.	확진:10,702(+8) 완치:8,411(+134) 사망:240(+2) 확진:628 완치:342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망자 240명(4.23.0시), 치명률 2.24%, 대구경북 90.9%, 65세 이상 85.8% · 김영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 6개 병원(7,500병상) 수도권위 최소 유지, 김충조정 · 의료인 응원캠페인(#덕분에잘못지) 4.16시작, 8일째 진행 중 각처 감사존경 이어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강화, 감염병방역체계 관리 안전성 확보, 백신 수급관리 강화 등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70만원×2개월 현금지급
'20.04.24.	확진:10,708(+6) 완치:8,501(+90) 사망:240(-) 확진:628 완치:362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제·백신개발 동향 점검,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초안) 공개 ·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상황 점검 ·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안심밴드 4.27.부터 착용 관리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15%이상 고리 대출→1.5% 저금리 전환 · 서울교통공사, 사랑의 헌혈 · 농산물 기부로 코로나19 극복 동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25.	확진:10,718(+10) 완치:8,635(+134) 사망:240(-) ※미발표	· 중대본,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 예술 통한 '치유(힐링)' 프로그램 제공 계획 · 4.11. 1차 귀국한 스페인 귀국 국민 39명, 4.26. 임시생활시설 퇴소 - 4.13. 2차 입국 스페인 귀국 국민 43명, 4.28. 자가격리 조치 해제 예정	
'20.04.26.	확진:10,728(+10) 완치:8,717(+82) 사망:242(+2) ※미발표	· 중대본, 코로나19 정부 대책 실효성 향상 위해 ' 코로나19 정책 대응 패키지 ' 홍보 강화 계획 마련 논의 · 사회복지시설 방역관리 이행 사항 점검 - 1단계 시설 전체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2단계 지자체 중 10% 선점 현장점검 실시, 3단계 보건복지부 일부 시설 지자체와 합동점검 5.1.까지 완료	
'20.04.27.	확진:10,738(+10) 완치:8,764(+47) 사망:243(+1) 확진:629 완치:393 사망:2	·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관련 부처별 방역지침 마련, 공공 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계획 마련 · 요양병원, 생활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중 확진자 발생 기관 대상 주2회 주기적 재검 실시 계획	· 박원순 시장, 「제1회 WEA 컨퍼런스:팬데믹과 동아시아」 주제 발표 · 서울시민, 감염병 대유행 직후 '실업보다 감염병이 더 위험' 인식(서울서베이)
'20.04.28.	확진:10,752(+14) 완치:8,854(+90) 사망:244(+1) 확진:633 완치:427 사망:2	· 코로나19 발생 100일 , 중국 유입→신천지, 대구·경북 중심 지역 사회 전파→수도권 집단감염→해외유입 확산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1차 회의 개최 -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계획안 및 「K-방역」주제별 웨세미나(webinar) 시행계획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 안심밴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등 활용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 국민안심병원 시행(2.24.)이후 현재 상급종합병원 29개 포함, 총347개 운영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8 월말까지 사용 연장(4.26. 현재 144만 가구 신청)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 15억 추가 투입 · 장애인활동지원사 3만명 방역물품지원
'20.04.29.	확진:10,761(+9) 완치:8,922(+68) 사망:246(+2) 확진:633 완치:437 사망:2	· 재확진 277명(4.28.기준) 바이러스 재활성화 불가능 , 완치 후 민감도 높은 PCR 검사시 잔재 검출 확률 높아 · 확진자 5% 소아·청소년, 신천지 관련 41.6%, 성인보다 증상 경미, 사망하거나 중증 진행한 환자 없었음 · 연휴기간(4.30.~5.5.) 지자체별 코로나19 대비 특별방역대책 마련 · 대구·경북 16개 생활치료센터 4.30. 운영 종료(총3,037명 환자 완치) · 코로나19 진단키트 FDA 긴급사용승인 총 4개, 복지부 등 취득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최신 지침 앱으로 확인, 전국 최초 모바일 서비스 ·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날 행사 전면 취소
'20.04.30.	확진:10,765(+4) 완치:9,059(+137) 사망:247(+1) 확진:633 완치:453 사망:2	· 신규확진자 4명 모두 해외유입, 국내 발생 최초 0명 기록 ·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활발히 진행 · 황금연휴 기간 관광지 및 인근지역 방역수칙 점검 강화 계획	· 서울시, 코로나19 경제부담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기금 금리 대폭 인하
'20.05.01.	확진:10,774(+9) 완치:9,072(+13) 사망:248(+1) 확진:634 완치:455 사망:2	·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부분적 운영 재개 계획 발표 · 체류 자격 상실한 약39만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관리 방안 발표	· 박원순 시장, 5일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경기장 방역 직접 챙겨 · 코로나19 지친 시민 응원 위한 '산속영화관:자동차 극장', 온라인 전시 오픈
'20.05.02.	확진:10,780(+6) 완치:9,123(+51) 사망:250(+2) 확진:635 완치:463 사망:2	· 중대본 수도권 일부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 서울 구로구, 은평구,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5개 시군구 전체 요양병원 6,544명. 코로나19 검체취합검사 방법 활용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 · 선별진료소 발생 초기 257개소(1.27.), 최대 639개소(3.20.)확대, 운영 축소해 현재 638개소(5.1.)운영 중 - 코로나19 발생 양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동형, 도보 이동형 등 다양화 운영 - 향후 운영성과 평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 계획 중	
'20.05.03.	확진:10,793(+13) 완치:9,183(+60) 사망:250(-) 확진:637 완치:473 사망:2	· 5일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발표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신규 확진자 감소, 집단발생 감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안정화 - 운영중단 공공시설 위험도 고려 방역지침 마련 후 단계적 운영 재개 - 생활속 거리두기 개인, 집단 방역 기본 수칙 및 보조수칙 발표	· 서울시, 제2회 추경 통해 총2조8,329억원 코로나 대응 긴급지원 · 5월 어린이날 공원 내 모든 행사 전면 취소 ·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지급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5.04.	확진:10,801(+8) 완치:9,217(+34) 사망:2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주관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와 함께 “K-방역 제1차 웹세미나” 개최 · 국민대상 생활방역 의견수렴, “아프면 3~4일 쉬는게 제일 어려워” · 중대본 건강보험 선지급제도 5월에서 6월까지, 1개월 연장 추가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전화상담·처방 운영 개선 등 	
	확진:637 완치:481 사망:2		
'20.05.05.	확진:10,804(+3) 완치:9,283(+66) 사망:25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운영 조정, 감축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9개병원 500여개 병상,(4.28.)8개병원 1,200여개 병상 감축 - 5월 6일 7개 전담병원 지정해제 등 총 1,725병상 감축 계획 	
	확진:637 완치:489 사망:2		
'20.05.06.	확진:10,806(+2) 완치:9,333(+50) 사망:2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치료제 분야 14개사(社)와 백신 분야 7개사를 중점 지원 후보군으로 설정하여 개발 현황, 기업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여 관리 중임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5월 6일(수)과 7일(목)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 중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심층 상담을 진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코로나19 방역협조 요청 천주교, 기독교계 대표와 만남 · 서울형 생활속 거리두기 발표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해외공유 사이트 오픈, 방문 2백만부 돌파 ·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확진:637 완치:494 사망:2		
'20.05.07.	확진:10,810(+4) 완치:9,419(+86) 사망:25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66번 확진자 발생, 연휴동안 이태원 클럽 5개 업소 방문 및 수원, 성남, 강원도 등 방문, 전 지역 추가확산 우려 · 생활속 거리두기 국민 참여 위한 홍보 적극 진행,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계획 ·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에 관하여 정책과 기술이 어우러진 종합 정보 전 세계 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콜롬비아 부통령에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공유 · 시립 은평병원, 코로나19 극복위한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행동지침’ 안내
	확진:637 완치:508 사망:2		
'20.05.08.	확진:10,822(+12) 완치:9,484(+65)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15명 이상 추가, 총 19명 · 중대본 이태원 클럽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상황 공유 위한 긴급회의 소집 · 클럽 등 유흥시설 한달간 행정명령 시행(5.8.20시부터) · 범정부 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 · 코로나19 상시감사체계 강화 위한 SARI, ARI 감사대상 의료기관 확대 운영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 본격 가동 · 식문화 개선, 외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 방역 추진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했던 63개 문화시설 단계별 운영 재개 · 코로나 피해 여행사에 전국 최초 현금지원 시작 ·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 긴급점검
	※미발표		
'20.05.09.	확진:10,840(+18) 완치:9,568(+84)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로 인한 확진자, 검사 수요 다시 급증 ·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실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경기도 중심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 및 계획 점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발표 · 용인66번 확진자 관련 동선 조사, 1,500여명 대상 유선 출입여부 및 동선 확인 등
	※미발표		
'20.05.10.	확진:10,874(+34) 완치:9,610(+42)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확진자 관련, 지자체별 유흥시설 합동점검 실시, 접촉자방문자 신속 진단검사 추진 중, 주말 비상 선별검사체계 지속 유지 · 중대본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 발표 · 5.13.~5.29. 권역별 대학 방역 관리 현황 현장 점검 실시 	
	확진:669 완치:541 사망: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현황자료 기반 작성/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화색영역)

*서울시 확진자 및 완치자 수는 공식 보도자료 발표일 기준 기입(미발표일 미기입), 발표 시간에 따라 당일 최종 확진자 수와 차이 있을 수 있음

● 발생·치료 현황

-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약 일주일새 54명…"속도전 필요"\(종합\) \(연합뉴스\)](#)
- [이태원 클럽 방문 5517명 중 36% 1982명 '연락 불통' \(서울신문\)](#)
- [이태원 클럽발 감염 전파 속출…헬스장서 추가 확진자 \(연합뉴스\)](#)
- ["걸려도 모른다" 이태원 집단감염 무증상 비율, 평균 3배 \(아시아경제\)](#)
- ['이태원 클럽' 감염 군부대 확산… 軍 장병 접촉 군인도 '양성' \(세계일보\)](#)
- [이태원 클럽 감염자 30%는 '무증상'…"숨지 말고 적극 검사를" \(연합뉴스\)](#)

● 정책대응

- [중동·아프리카 입국자 확진 늘어…“모든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서울신문\)](#)
- [서울·경기·인천 하루 확진자 100명 넘으면 병상 공동활용한다\(종합\) \(연합뉴스\)](#)
- [원격의료 명석 끼는 정부, 의료계 “공공의료 확충 먼저” \(경향신문\)](#)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본격 논의…7월 권고안 제출 \(연합뉴스\)](#)
-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포석도 \(뉴스1\)](#)
- ["한국 이태원클럽 코로나 대거 확진으로 성소수자 차별 우려"\(종합\) \(연합뉴스\)](#)
- [음지로 숨는 코로나 환자들…또다른 시험대 오른 K방역 \(한국경제\)](#)
- [방역수칙 '공염불' 만든 이태원 클럽…"입장객 줄이고 최후엔 영업중단"\(종합\) \(뉴스1\)](#)
- ["낙인과 차별없이 최선"…의료계, '성소수자' 코로나 검사 독려 \(뉴스1\)](#)
- [문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방역 1등국가 될 것"\(종합\) \(연합뉴스\)](#)
- [이태원 클럽 방문한 외국인 관리 '관건'…조기발견 한계 우려 \(연합뉴스\)](#)
- [이재명 "이태원·논현동 갔던 사람은 누구나 코로나 무료검사" \(중앙일보\)](#)
- [정총리 "특정 커뮤니티 비판, 방역에 도움안돼…협조 절실" \(연합뉴스\)](#)
- [20대 이태원 클럽 감염 예견된 일?...코로나19 심각성 인식 낮아 \(머니투데이\)](#)
-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이르면 올해 말 출시" \(경향신문\)](#)
- [박원순 "모든 유흥업소 즉시 집합금지명령…위반시 엄중 처벌"\(종합2보\) \(뉴스1\)](#)
- [서울시 "시민 77%, 박원순 시장 코로나19 대응 신뢰" \(서울신문\)](#)
- [서울 시민 8명 중 1명 '코로나블루'…'지역경제 회복' 절실 \(한국경제\)](#)
- [코로나19 이후 지방의 역할은…전문가 머리 맞대 \(뉴스1\)](#)
- ['韓 대응법' 칭찬하던 외신들, 이태원 클럽 감염 지적 왜? \(머니투데이\)](#)
- ['모범국' 한국·독일 집단 확진에…외신 "완화 위험성" \(머니투데이\)](#)

[재난긴급지원금]

- [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신용·체크카드신청…홈페이지·앱으로\(종합\) \(연합뉴스\)](#)
- [서울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확 넓혔다 \(한국경제\)](#)
- [서울시민, 정부 재난지원금·市 긴급생활비 둘 다 받는다 \(서울경제\)](#)
- [세대주 아니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수령 가능\(종합\) \(연합뉴스\)](#)
- [경제계 "文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의지 환영…근본 조치 뒷받침되길"\(종합\) \(아주경제\)](#)
- ["코로나는 장기전…소상공인 줄도산 막을 대책 끊임없이 내야" \(매일경제\)](#)

[교육]

- 정부 "등교 연기, 2~3일간 역학조사·현장의견 보고 결정"(종합) (연합뉴스)
- 열 나면 '일시적 관찰실'로 가라는데...학교 15%는 보건교사 없어 (뉴스1)
- 등교개학 사흘 남았지만 '방역 매뉴얼' 못받은 보건교사들 (한국경제)
-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감염 일파만파...학부모들 "등교개학 반대" 아우성 (뉴시스)
- 고용부, '자녀 개학연기'로 직장 못나간 학부모에게 271억원 지급 (국민일보)

● 경제현황

- 올해 국가채무비율 45% 도달 우려..."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연합뉴스)
- "코로나궤 경기 침체, 한국은 타격 적을 것" 왜? (동아일보)
- 코로나19 피해 기업들 "IMF 때보다 경제 충격 30% 더 크다" (한겨레)
- 블룸버그 "한국 성장률 -0.1%로 선방...중국·인도네시아 뒤쫓는 속도" (중앙일보)

● 국제현황

-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400만명 돌파...27만7000여명 숨져(종합) (뉴시스)
- WHO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몇 달 내 기대"(종합) (연합뉴스)
- WHO "백신 나올 때까지 전 세계 생활방식 크게 바꿔야" (뉴시스)
- 중국 고위 보건당국자, 코로나19 대응 부족 인정..."이례적 시인" (연합뉴스)
- 중국 신규 확진 다시 두 자릿수...우한서도 36일만에 나와(종합) (연합뉴스)
- 中 보건위 "코로나로 공공의료 약점 드러나"...방역 실패 사실상 인정 (국민일보)
- 미·중 갈등, "전세계 휴전·코로나19 대응 집중" 유엔 결의안 무산시켜 (뉴시스)
- 코로나에 백악관 초토화...방역·보건 수장 줄줄이 자가격리 (이데일리)
- 미국, 주말까지 47개 주 봉쇄령 완화...여론은 조기재가동에 우려 (연합뉴스)
- "미국 보건부,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증산 제안 묵살" (연합뉴스)
- 유럽 일부서 내부국경 통제 완화 움직임...봉쇄 항의 시위도 (연합뉴스)
- 이탈리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대로 떨어져 (아시아경제)
- '집단면역 논란' 스웨덴, 사망 3000명 넘어도 "대응 성공적" (뉴시스)
- "프랑스서 11월16일 이전 코로나19 발생했을 수도" (뉴시스)
- 일본 코로나 신규 확진 114명...사흘 만에 다시 100명대 (연합뉴스)
- "죽을만큼 아파야 코로나 검사" 비판받던 일본, 검사기준 완화 (조선일보)
- 일본, 코로나 출구전략 모색...일부 지자체 휴업·휴교 해제 (연합뉴스)
- '확진자 0' 北 "코로나로 힘든데 남조선 호전광은 무력증강" (서울경제)

● 연구현황

- 미국 FDA, 15분 안에 코로나19 진단하는 항원검사 긴급 승인 (연합뉴스)
- "코로나19, 눈 통해 감염될 확률 사스의 100배" (뉴스1)
- 코로나19, 머리에서 발끝까지...폐 손상 넘어 온몸에 치명타 주나 (조선비즈)
- 독일 연구진 "코로나19 '제2 확산' 확실...대다수 전문가도 동의" (서울신문)
- 스위스 연구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인공 변종 합성 (뉴시스)
- 비타민D 부족하면 코로나19 사망률 높다 (한겨레)
- 개학 경고음... "어린이 접촉자수 성인의 3배" (한국일보)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 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무증상	•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 없음 ④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⑤ 비흡연자
경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2020.3.5.)

● 예시2.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MEWS)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C)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중(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중(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예시3.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 NEWS)

변수	3	2	1	0	1	2	3
산소포화도	≤91	92~93	94~95	≥96			
산소투여여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맥박	≤40		41~50	51~90	9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	≤90	91~100	101~110	111~219			≥220
호흡수	≤8		9~11	12~20		21~24	≥25
체온	≤35.0		35.1~36.0	36.1~38.0	38.1~39.0	≥39.1	
의식수준				정상			이상

- 5점 이상 중등도, 7점 이상 중증

※ 예시2,3 출처 : 대한중환자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흉근요법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 (2020.3.2.)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4판)」(지자체용)

[붙임2]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현황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2020. 3. 13. 보도자료

지역(시도)	개소	기관명
서울	5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부산	1	부산의료원
대구	7	대구의료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중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달서구)
인천	5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길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백령병원
광주	2	빛고을전남대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대전	4	국군대전병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울산	5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세종	1	NK세종병원
경기	7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	5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충북	2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남	4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북	3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	3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경북	6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국군대구병원(경산)
경남	4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제주	3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총합	67	17개 시도, 67개소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2) : 울진군의료원(경북), 고려요양병원(울산)

※ 출처(3.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

[붙임3] 전국 국민안심병원 현황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외]

2020. 5. 5. 기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33	6	24	8	16	3	5	2	6	4	9	1	1	-	78	3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9	2	11	-	12	4	11	3	12	6	16	2	29	4	4	2

출처 : 5.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붙임3] 전국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5. 5 기준

연번	2차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1	강남구 강남메트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2	강남구 강남차병원	외래진료	02-3468-3000
3	3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4	4	강남구 리북한방병원	외래진료	02-546-1358
5	5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6	6	강남구 우리들병원	외래진료	02-513-8000
7	7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외래진료	1577-0007
8	8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9	1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10	2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11	3	강동구 남기세병원	외래진료	1577-2533
12	4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13	1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14	2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5	1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6	2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7	3	관악구 연세건우병원	외래진료	02-1644-4630
18	1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9	2	광진구 해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20	1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21	2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외래진료	02-2067-1500
22	3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23	1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24	1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25	2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26	3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7	1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8	2	도봉구 바로선병원	외래진료	1666-5853
29	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30	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31	3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32	4	동대문구 코리아병원	외래진료	02-2281-9999
33	1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02-870-2114
34	2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35	3	동작구 더본병원	외래진료	02-587-2299
36	1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37	2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38	1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39	1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40	1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41	2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42	3	성북구 서울척병원	외래진료	1599-0033
43	1	송파구 경찰병원	외래진료	02-3400-1114
44	2	송파구 서울병원	외래진료	02-405-8501
45	1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46	2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47	3	양천구 흥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48	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49	2	영등포구 대림성모병원	외래진료	02-829-9000
50	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51	4	영등포구 새길병원	외래진료	02-1522-0075
52	5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53	6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54	7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55	1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56	1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57	2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811-7755
58	3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59	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01-2001
60	2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61	3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62	4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63	1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02-2260-7114
64	2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65	1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66	2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67	3	중랑구 서울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76-7000
총합	23개 자치구	67개소	외래 43개소 / 외래 및 입원 24개소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40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2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41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42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3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4	성동구	성동군자의원*	02-499-7785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5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6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인암병원)*	02-1577-0083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7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8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9	송파구	경찰병원(아간 및 주말 미운영)*	02-3400-1124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50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51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52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3	양천구	홍익병원*	02-2600-0620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4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5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6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7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8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20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59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21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60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2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61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3	금천구	희명병원*	02-2219-7231	62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4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63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5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64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6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5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02-383-0129
27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6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8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7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9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8	종로구	서울직업자병원*	02-2002-8650
30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02-1577-3675	69	종로구	서울지구병원*	02-397-2018
31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70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32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02-966-1616	71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33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72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4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73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5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74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6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75	서초구	舊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7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6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8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7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9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78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 검체채취 가능

* 출처 : 5.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코로나19 일상생활 수칙 - 영유아 놀이 및 수면 편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영유아의 놀이 및 수면의 중요성



영유아의 **놀이**는 신체발달, 언어능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의 영향을 주고
수면은 신체, 학습 능력 발달 등에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어요

추천하는 놀이

1. 독서와 함께하는 신체놀이

아이와 함께 책도 읽고 책 속의 동작을 따라하며 부족한 활동량을 채워보세요



2. 재미있고 건강한 요리놀이

부족한 활동량으로 입맛이 없을 아이들과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함께 요리를 해보세요



내 아이의 수면을 지키는 방법

1. 자기 전 활동적인 놀이는 금지
2.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이 잠들도록 노력하세요
3. 매일 밤, 애착을 가지는 물건과 함께 잠들게 하세요
4. 아이가 잠들기 전에 편안한 상태인지 확인해주세요
5. 아이와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는게 좋아요

참고

EBS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함께하는 <예술 교육 프로젝트>

EBS 육아학교 <놀이언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youtube <다누리>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http://seoul.childcare.go.kr/>

키드키즈 : <http://www.kidkids.net/>

고망세 : <http://www2.edupre.c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http://www.childcare.go.kr/>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 <https://www.pediatrics.or.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함께하겠습니다

